

〈해설〉

구소청의 〈날아가는 공작〉

서 연 호*

구소청(具素靑)의 <날아가는 공작>(1926, 여름 공연)은 그의 문집 『李舜臣과 諸葛亮』(연희동문회출판부, 1949, 10)에 수록된 3막 5장의 장막극이다. 이 문집에는 「7백 의사총의 유래」 「이순신과 제갈량」이라는 글을 실고, 스스로 사화집(史話集)이라 하였으나, <날아가는 공작> 이외에도 수필 「겸손은 덕이 된다」, 강연원고 「완전한 독립을 얻으려면」, 방송원고 「해운과 조선의 장래」 등 잡다한 글이 실렸으므로 통상적인 문집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하여 작가는 문집의 「머리말」(1949, 10, 3일 작성)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날아가는 공작>이라는 희곡은 지금부터 약 20년전 나의 재학시대에 고도의 신경쇠약과 싸워가며 학과의 여가를 도적하여 근근히 써 놓았던 어릴 때의 처녀 작이니만큼, 구상과 문장의 즐렬하고 유치한 점으로 보아 그대로 내 놓기에 실로 자면함을 불감하는 동시에, 끝으로 한마디 더 쓰고자 하는 것은 지나간 1926년 여름에 근화여자학교 후원회 주최로 이 극을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상연한 일이 있었으나 각본 내용이 신여성에게 모욕이라는 오해를 받아 당시 명성이 쟁쟁하던 모모 여류문사 여류 교육가 등이 무대에 돌입하여 연극을 중지시키는 등 일장 살풍경을 야기했더니만큼 발표하기에 임하여 미리 현명하신 여류 독자 제위의 깊은 양해를 구하여 마지 않음과 아울러, 또 한 가지 부기해 들

*고려대 교수

것은 이 극으로 말하면 과거 일제시대 가혹한 검열제도 밑에서 경찰의 눈을 속여가며 간신히 써 놓았던 것으로, 하고 싶은 말의 백분지일도 표현하지 못한 것은 실로 유감 천만이다.

이 작품은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흥미로운 소재와 시대적 이념을 자극적인 행위와 감상적인 정조를 바탕으로 변화가 많은 극적 구성을 통해 펼쳐가는 전형적인 대중극이다. 젊은이들의 복잡한 애정의 갈등, 그로 인한 모함과 폭력과 복수와 배신, 선량한 의지와 추악한 음모의 대결, 행복의 기대와 사랑의 상실, 동포의 현실에 대한 깨달음과 새로운 진로의 모색 등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동기와 사태들이 모두 대중극에 알맞은 요소들이다.

실업가(채용신)의 양녀이자 차녀인 봉주와 그집 아들의 가정교사로 있는 고학생 백기옥과의 기구한 애정을 중심으로 하여, 봉주를 탐내는 귀족출신 청년인 민형기와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부랑학생 상희, 백기옥을 탐내는 장녀 봉희, 그리고 백기옥과 더불어 이들 추악한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새로운 청년의 길을 함께 가는 고학생 임봉춘 등이 이 작품에서 복잡한 사태를 엮어간다. 종래 대중극이 즐겨 채용해 온 몇 가지 요소가 이 작품에서도 효과적으로 응용된다.

지식 청년들이 보수적인 관습과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며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 특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철학과 개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은 1920년대에 선구적인 삶으로서 인식되어 일반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인데,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중심적 의미로 설정되어 있다. 남녀 두 주인공을 축으로 하여, 내적으로는 두 사람의 애정심리를 면밀하게 그리면서, 외적으로는 주변 인물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하나하나 과장되게 자극적으로 그림으로써, 흥미 진진한 사태를 충분히 맛볼 수 있도록 해준다. 유행어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유려하게 전개되는 지적인 대사의 묘미와 더불어 감상적인 시와 음악적인 효과가 작품의 대중성을 한층 살려준다.

지극한 고난과 박해, 비인간적인 음모와 폭력 가운데서도 시종 일관 견실한 애정을 지속하던 봉주가, 자신을 위해 민형기를 제압한

상희의 흥계와 유혹에 이끌려 그를 따라 나서는 데서 극적인 상황은 크게 반전된다. 경찰사에서 절도죄의 혐의가 풀리고 중국에서 귀국한 부친으로부터 거금까지 얻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백기옥은, 상희 일당과 고군 분투하던 임봉춘을 통해 봉주의 가출 전말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분노에 찬 여성 혐오자로 변신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 작품은 대중극의 상투적인 해피 엔딩 구조에서 벗어나, 작가의 시대적 발언을 결말부분에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당시 여류 지도자들이 이 작품공연에 반발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여주인공의 좌위적인 변절과 여성 폄하의식의 조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말미에서 임봉춘은 작가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편다.

여보게, 미인이란 아름다운 공작일세. 보기에는 고음지만 기르기에 힘이 들고, 탐내는 자가 많으니만큼 다라나기를 잘 한단 말이야. 자네는 한 마리 공작을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했나. 그러나 탄력 많은 그 새에게는 자네 이외에 또 상희라는 임자가 있었다는 말일세.

맑스의 말과 같이, 사람의 의식은 경제적 조건하에 좌우되는 것일세. (중략) 기한(飢寒)은 양심을 마비시키네. (중략)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 일을 죄라고 한다면 그 죄의 책임자는 봉주도 아니요 상희도 아니요 오직 세상일세.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세상이라는 그것을 저주할지 언정, 어떻게 그 잔혹한 세상에 짓밟힌 가련한 생명까지야 미워할 수가 있겠나?

한편에서는 생활난으로 자살을 한다,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를 이끌고 외국으로 유리를 한다 하는 이 처지가 아닌가? 지금이라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 보게. 눈보라 휘날리는 차디찬 씨베리아 별판에서 빵을 달라고 부르짖는 비명소리가 들릴 것일세. 그래 이 판국에서 자네는 일개 여자를 위하여 산중으로 도망을 가겠다! 참말 굉장한 수절일세.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먹을 길을 찾아야 하네. 그리고 배워야 하네. 다시 말하면 살아야 된다는 말일세. 공연히 남의 바람에 끌려서 무슨 주의니 연애니 하고 백천 마디 떠들고 날뛰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소득이 있겠나? 차라리 그것보다도 온건하게 바늘 한 개라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보고, 쌀 한 톨이라도 힘써서 더 먹을 궁리를 해야 되네. 그리하여 어떠한 시기가 오기까지 2천만이라는 불쌍한 동포가 와 신상담, 한 가지 살아야 하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임무일세. 사명일세.

(이상, 3막 2장에서)

이러한 친구의 충고에 대하여 주인공 백기옥은 마지막 결의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음! 그러면 나도 이 자리에서 결심을 했네. 오늘부터 위시하여 나의 손으로 삶의 탐을 세우기까지, 아니 어떠한 목적을 달하기까지, 나의 기억에서 여자라는 두 글자를 일체 떼어버리기로 결심을 했네. 과연 자네의 말과 같이, 우리 조선 청년은 참되지 못한 연애에 중독이 되었네. 나도 역시 그 가운데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지금에야 절실히 깨달았네. (역시 눈물을 머금으며) 자 부탁하네. 이 미로에서 방황하는 철모르는 나를 친구 겸 동생으로 생각하여 착란한 나의 전도에 지도자가 되어 주게.

(제3막 2장)

<날아가는 공작>이라는 제명은 작가가 생각하는 대로, 변절하기 쉬운 여성의 속성을 상징한 것임이 판명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작품의 구도로 볼 때, 두 남녀의 결합을 통한 행복한 결말로 끝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계몽적인 발언을 삽입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또 한번의 반전을 설정한 것이 오히려 결합으로 드러난다. 그 부분이야말로 하나의 군더더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토로된 작가적 발언은 건전한 자유연애나 자유결혼과 논리적으로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이 오히려 그릇된 세상을 개조하거나 가정경제를 견실히 하는데, 나아가서는 민족

적 현실을 극복하는데도 새로운 활력소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두 사람의 대사회적인 싸움은 낡은 조선 사회를 극복하고, 새로운 윤리와 건전한 경제적 토대를 수립하기 위한 선구적인 쾌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애써 추구해 온 두 사람의 값진 애정을 ‘부질없는 연애 따위’로 작가 스스로가 부정해 버린 것은 작품 전후의 모순인 동시에 온당치 아니하다.

대중극 역시 훌륭한 계몽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런 행위가 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도 작가적 발언은 작품의 도처에 스며들어 얼마든지 훌륭한 의미로 되살아날 수 있었으며, 역설적으로 작가적 발언을 성실하게 성취시키기 위해 두 남녀의 모범적인 애정이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연극적인 행위와 계몽적인 발언이 별개의 요소로 제시되는 대중극이었던 만큼, 우수한 내용과 기량을 지니고서도, 작품의 예술적인 성공은 고사하고, 사회적인 여론의 지탄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決心을 했네. 果然 자매의 말과 같이. 우리 朝鮮 青年은 참되지 못한 戀愛에 中
 毒이 되었네. 나도 亦是 그 가운데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只今에야 切實히
 깨달았네. (亦是 눈물을 머금으며) 자 附託하네. 이 迷路에서 彷徨하는 칠 모
 로는 나를 親舊兼 동생으로 생각하여 錯亂한 나의 前道에 指導者가 되어 주
 계.

우사담 感激하여 글씨를 握手한다.

風便에 유방한 나팔소리가 殷殷히 울려온다.

고요히 幕이 나린다

(195)

琦玉

이 불지라도 웃을것 일세.....
 글제 가만히 생각해보게. 當場 아침저녁 밥거티가 없어서 결절 때는 우리의 身勢로, 또는 汽車를 타면서 어찌하여 바위가 구르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程度로 무슨 주계에 戀愛란 무엇이고 主義란 다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덕을길을 찾아야 하네. 그리고 배워야 하네. 다시 말하면 살아야 된다는 말일세. 空然히 남의 바람에 끌려서 무슨 主義이니 戀愛이니 하고 百千마디 떠들고 날련들 그것이 果然 우리에게 무슨 所得이 있겠나? 차라티, 그것보다도 穩健하게 바늘 한개라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보고, 쌀 학물이라도 힘써서 더덕을 窮理를 해야 되네. 그리하여 어떠한 時機가 오기까지 一二十萬이라는 불상한 동포가 臥薪嘗膽, 한가지 살아야 하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急務일세. 使命일세. 그때도 자내는 내, 내말을 못들겠나? (慷慨하여 두눈에 눈물이 어린다)

(默默히 듣고 섰다가 突然히 주먹을 부르쉬며) 음! 그러면 나도 아자리에서 決心을 했네. 오늘부터 爲始하여 나의 손으로 삼의 塔을 세우기까지, 아니 어떠한 目的을 達하기까지, 나의 記憶에서 女子라는 두글자를 一切 배어 버리기로

(194)

率棒 (氣色이 더욱 嚴肅해지며) 勿論일세. 오늘날 戀愛라는것은 우리의 心神을 麻痺

시키는 毒藥일세. 支那에 阿片이 輸入된 뒤로 中國 사람의 肉體가 썩는것과 같
이 우리 朝鮮에는 戀愛라는 風潮가 들어온 後로 一般 青年의 思想이 썩어가
네. 들만 모여도 戀愛! 셋만 모여도 戀愛! 한은놈도 戀愛! 젊은놈도 戀愛
! (부르짖는 주먹을 부르짖는 演說) 이것이 戀愛에 麻醉가 된것이 아니고 무엇인
가? 자네도 亦是 中流者中の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주게. 그래도 자네는 부
끄럽지도 아니한가?

玆玉 (깊이 感動된듯이 머리를숙이며) 나도 亦是 자네의 卓越한 識見에는 感服을
하네 마는.....

率棒 (구짖는듯이) 「하네나는」이란 다 무엇인가. 뭐 그렇게 사람이 弱해. 感服을 하거
든 곧 實行을 해보게. 只今 우리는 허미지근한 사랑을 謳歌하고 있을때가 아
닐세. 우리는 外人에게 比하여 數百年 떨어져졌네. 그러니까 남들은 잠잠지마
도 우리는 일해야 될것이요 다른사람이 웃을때에 우리는 울어야 하네. 우리
는 거지일세. 아무것도 없네. 權利도 自由도 없는 우리가 戀愛에나 成功을 하면
그것이 果然 무엇이 되겠나? 딸가 벗은 몸뚱이에 冠帶기나 쓰고 나선다면 답을

(193)

青年에게는 特別히 우리 朝鮮 青年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焦眉의 問題
 가 아니일세. (語聲이 次次 높아지며 興奮이 高潮에 達한듯이 수덕을 부르짖다.)
 글세 가만히 생각해보게. 한편에서는 生活難으로 自殺을 한다. 남은 父母와
 隣 妻子를 이끌고 外國으로 流離를 한다! 하는 이處地가 아닌가? 只今이라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물어보게. 눈보라가 휘날리는 차더찬 씨베리아. 별관에
 불상한 우리 同胞들의 땅을 달라고 부르짖는 悲鳴소리가 들릴것일세. 그때 이
 局에서 자네는 一個女子를 爲하여 山中으로 逃亡을 가졌다! 참말 空狀한 守
 節일세. 그럭. 앓게. 제발 精神을 좀 차리게.

琦玉 (일마름 녹으러진 態度로) 그러면 只今 내處地되어서 風珠를 아주 斷念해야
 되겠나? 設使 그가 나를 저바렸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風珠를 爲하여
 生을 바쳐야 되지 않겠나? 그는 나로하여서 父母와 家庭을 버렸으며 艱難과
 苦楚를 겪었거늘.....하물며 내가 슬피하고 피로위할머이 나는 慰勞해주고, 내
 가 苦心하여 쓰러질때에 나를 불들어주던, 어둠고 의롭고 살얼한 나의 앞길에
 唯一의 빛이요 별이요 동무이던 그를 一朝에 고말 잊어야 되겠나? 끊어야 되
 겠나? 아! 여보게! 果然 그것이 옳겠나?

(192)

을 率樞의 앞에 내던지라 (일배. 자내는 이것을 가지고 불쌍한 우리 苦學生들을
爲해서 뜻있게 저 주계. 그리고 不肖한 나를 代身하여 우리 아버지께 謝罪해
주게. 나는 이 자리에서 보기싫은 이社會를 하직하고 다라나며배. 깊은 山中으로
 들어가서 중이 되며배. (심심한듯이 率樞의 손을 잡아 흔들면서) 자! 그러면
나는 가네. 부디 잘 있게. (초연히 절어 나간다)

率樞 (慌忙히 따라가면서) 여보게! 좀 가만 있게. (瑋玉의 팔을 잡는다)

瑋玉 놀게. 이 사람이 왜 이래! (팔을 푸는친다)

率樞 (느거운 友情에서 울어 나오는 沈痛한 語調로) 여보게! 제발 자네도 좀 知

覺이 나보게. 失權을 當하고 自救을 하느니 送亡을 가느니 하는것은 못생긴

짓일세.

자내는 사나이가 아닌가? 鳳珠는 女子로되 오히려 자네를 버리고 갔거면, 자네
는 버림받은 그 女子를 爲하여 어! 모리서 나오시는 父親을 버리고 자네를 期待
하는 이社會를 놓치고 輕率히 다라난다는것은 父母에게 對해서는 不孝요. 이社
會에 對한 罪人일세. 사람은 決코 戀愛만을 爲하여 사는것이 아닐세. 人生
에게는 여러가지 義務가 있게. 勿論 사랑도 顯하지 아니한것은 아니지만, 우리

(191)

참아달라고 略少하나마 生活費까지 주고 갖는게 보통은 姑捨하고單 사흘을 못
참아서 벌써 마음이 變하는 그러한 眞정한 戒指아이를 아직도 잊지 못한단 말인
가. 참말 딱하이. 딱해. (담에 떨어진) 寫眞을 가리키면서) 于先 저기 떨어진
그 寫眞을 좀 보란 말이야.

琦玉 (寫眞을 집다가) 오! 이것은 우리의 紀念寫眞이 아닌가? (잠간 생각하다가
머리를 끄덕거리며) 그러면 寫眞까지도 亦是 虐待을 받았구나! (애달픈듯이
볼머다 보서면) 鳳珠! 鳳珠! 그때는 갓구나. 永遠히 가 버렸구나! 아! 어
떻게 참아 받건이 돌아 서던가? 어 殘忍한 惡魔여! (激怒하여 당위에 메다칠
다)

率棒 읊지 잘하네. 男子란 그대야 쓰느니.....아무 念慮 말개. 실마 이世上에 鳳珠
만 한 女子 없었나.....

盜賊이라는 陋名은 벗었겠다. 잃어버렸던 父親을 찾아. 또 많은돈이 생겨.....
그만하면 훌륭하지 않은가. 돈! 돈! 그 돈만 있으면 鳳珠같은 女子를 몇쪽이
라도 살수가 있다는 말일세. 참말 돈이라는 그놈이 이世上에는 諸葛亮이니.....
琦玉 돈! 돈! 안해! 돈으로 산 안해! 그것이 果然價値가 있을가? (突然히 率棒

(190)

濟的 條件下에 左右되는것일세. 다른사람을 爲하여 自己의 몸을 돌아보지 아니
 한다는것은 人情이 아니라 例外일세. 飢寒은 良心을 麻痺시키네. 우리가 萬一
 女子가 되어서 鳳珠와 똑같은 處地를 當했다면 또한 그렇게 되지 아니 하리
 라고 누가 敢히 保證할것인가? 하늘며 아직 心志未定한 어리고 약한 女子의
 몸으로 어떻게 山같이 무거운 生活의 짐을 견디어 나가며, 팔같이 단 誘惑의
 魔手를 벗어 날수가 있겠나? X X X X X X

그러니까 萬一에 이런 일을 遇하고 한다면 그罪의 責任者는 鳳珠도 아니요 尙
 照도 아니요 오직 이 世上일세. 그러면까 우리는 차라리 世上이라는 그것을
 阻礙하지않고, 어떻게 그 殘酷한 社會에게 沈淪한 可憐한 生命까지야 미워할수
 가 있겠나?

奉格 (憤慨한듯이) 어 보게! 자네가 그것을 말아라고 하나? 簡介는 女子의 生命일
 세. (激昂하여) 무덤을 부르려다) 적어도 그 生命이라는 것을 빼앗기는 자리에
 있어서 무덤을 무릅쓰고 抵抗치 아니하고, 일말이 해반주구테 하고 돈뿐이나. 있
 으니까 그것에 반해서 自己의 사랑하던 男子를 殉身같이 내버리는 그러한 好
 惡한 계집아이들 있지 못해. 日前에도 내가 와서 자네가 나올때까지 보물 동안만

(189)

牽棒 (복잡으면서) 여보게 琦玉이! 精神을 차리게.

琦玉 (無量한 悲憤을 차내는듯이) 아! 여보게! 자네는 나의 이 사나이 다음지 못한 行動을 容恕해주게. 나는 不可不 鳳珠를 저 무서운 色魔들의 손에서 救해 줘야 되겠네. 鳳珠는 患難之中에서 나를 따라왔거든, 나는 어떻게 오늘날 鳳珠의 不幸을 보고 참아 가만히 있을수가 있겠나?

牽棒 (구릿는듯이) 여보게! 자네는 그 便紙 사연도 보지 못하나? 尙熙를 사랑하거는 하는데 逆境에 올고 있는 자네를 내 버리기가 人道上 참아 볼상하다는 그 편지 사연도 보지 못해. 그런줄 몰랐더니 자네는 아주 독특한 바보일 세 그편.

琦玉 (피로운듯이) 손을 감는다. 생각한다. 그의 表情은 激烈한 內的鬭爭으로 말미암아 각각으로 變한다. 그러나 理性이 回復되는듯이 次次 冷靜해진다.)

牽棒 나 같으면 원 생각해볼 餘地도 없겠네. 當場에 끊어버리지.

琦玉 (忽然히 눈을 뜨며) 그렇지만 여보게! 우리가 한번 더 公平한 見地에서 생각해 본다면 決코 鳳珠만을 그르다고 나무를수는 없음을 아게. 나는 차라디이 自然의 歸趨라고 말하고 싶네. 「밖스」의 말과 같이 사람의 意識은 經

아니면 저것이라는,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가 남는다는 算術的 事象을 했다는 말이야. 더럽지 아니한가. (氣色이 皎烈해 진다) 그 證據는 이것이 있네. (당애 떨어진 便紙를 집어주면서) 이것은 卽 鳳珠가 尙熙에게 보내려던 便紙인데 그 內容을 볼것같은데 果然 鳳珠라는 제집아가 일마나 大膽하고 可憐스러운 제집아이었다는 것을 仔細히 알것일세.

琦玉

(便紙를 받다가 놀래어 부르짖는다) 오! 이것은 鳳珠의 筆跡이로구나! (便紙를 보며 따라 일글빛은 각각으로 變하고 손과 입술이 가늘게 떨린다. 突然히 便紙를 부우 쫓으면서 悲憤과 絶望에 부르짖이는 소리로) 아! 그러면 鳳珠의 마음 이 變했구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오! 天下 女性들의 마음이 모두다! 變한다 할지라도 鳳珠만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었다니... (기이하게 嘆息한다) 아! 할수없다. 不幸은 나의 運命이었구나! (失神한 사람같이 한참이나 떨거나 무릎을 생각하다가 안타까운듯이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鳳珠는 잤다. 나를 버리고 가 버렸다! 아! 세상 에 믿지 못할것은 女子의 마음이로구나! (비틀거린다)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87)

파열해.

琦玉 자네는 鳳珠가 그렇게 초라 초라이 貞操를 더럽힐 女子인줄 아나?

率椿 아니 여보게! 자네는 무엇을 가리켜서 女子의 貞操라고 하나? 독 고깃 덩

어리를 더럽혀야 貞操가 더러워진것 인줄 아나? 아닐세.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
만 했더라도 그것이 發覺되면 法律上 殺人 未遂犯이라는 罪人이 되는것과

같이 아직까지 鳳珠의 몸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卽 精神的으로
벌써 더러워 졌다 그런 말일세.

琦玉 그렇지만 이번 일로 말하면 鳳珠의 本意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一時 誘惑에

빠진것이니까 容恕할만 한 點이 있지 아니한가?

率椿 아니 本意에서 나왔는지 아니 나왔는지 자네가 어떻게 아나?

琦玉 응 그것은 내가 斷言을 하네.

率椿 여보게 美人이란 아름다운 孔雀일세. 보기에는 고읍지만 기르기에 힘이 들고,

貪내는 者가 많으니만큼 다라나기를 잘한단 말이야. 자네는 하나리 孔雀을 所有하

기 爲하여 모든것을 버리지 아니했나. 그러나 彈力많은 그새에게는 자네 以外

에 또 尙顯라는 임자가 있었다는 말일세. 卽 자네와 尙顯 둘을 놓고 이것이

(186)

참만 可憐한 일일세.

琦玉 그러면 정말 鳳珠가 갔다는 말인가? (半信半疑하는 듯이) 그러나 그것은 될수 없
는 만이지.

牽椿 이사람아! 자네는 아리도 풀을 두고 있게 그러. 이 세상에는 참 사랑이라는 것이
없느냐...:只수까지 자네는 鳳珠라는 奸邪한 계집아이에게 감동같이 속아 왔다
는 말일세. 첫째 색어진 이 社會에서 無産階級의 딸을 쫓고 무슨 사랑을 求한다
는 것부터도 벌써 無價公子이지.....

琦玉 (移是 못 믿는 듯이) 가다니! 鳳珠가 가다니! 여보게 나는 좀 찾아가 보려
게.

牽椿 이사람아! 이 넓은 天地에 어디로 찾아가!

琦玉 응! 이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 보지.

牽椿 여보게! 고만 斷念해 버리지. 鳳珠는 자네를 버리고 가지 아니했다. 버리고 간
女子를 찾아 다닌다는 것은 못생긴 짓일세. 또 그뿐 아니라 散命 찾는 다 할지라도
鳳珠의 貞操는 벌써 다 버린것을 짓일세. 그러니까 인제는 前에 보던것과 같이
그렇게 淸淨하고 純潔한 鳳珠라는 處女는 이미 이 世上에서 永遠히 사라져

(185)

계. 자아 그러면 나는 물어가 봐야 되겠네. (다시 걸어간다.)

牽椿 (可憐히 여기는 表情으로) 여보게! 精神을 좀 차리게.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鳳珠라는 女子는 벌써 가 버렸네.

琦玉 응! 가다니! (얼굴빛이 해쓱해진다.)

牽椿 잠깐. 잠어. 자네를 버리고 다라나 버렸네.

琦玉 그러면 鳳珠의 마음이 變했다는 말인가? (머리를 흔들면서) 그것은 決코 그럴

理가 없지. 아마 자네가 잘못 알았나베.

牽椿 잘못 알어? 흥! (입가에 皮肉的 痕癩이 일어난다) 이世上 女子의 마음은 우

리의 마음과는 다르니.....只今 막 閱濫基와 尙熙 두놈이 와서 버리고 간걸

일새. 만일 자네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머리를 흔들면서) 응 그것

도 모르지. 世事는 亦是 塞翁之馬니까.....

琦玉 (눈이 동그래지며) 무엇이 어째? 左右間 내 좀 들어가 보고 나올게. (慌慌

히 下手로 나갔다가 조금 뒤에 다시 뛰어 들어오면서 거의 울듯이) 아! 어

보게! 그러면 자네의 말이 정말인가?

牽椿 그럼 거짓말인줄 알았던가? 그야말로 아주 盲目이 되어 버렸네. 그러. 허허!

(184)

琦玉 (如狂如醉하여) 자! 자네도 기뻐해 주게. 인제야말로 나는 萬事가 大通일세.

(左右를 돌아보며) 그런데 風珠氏는 어디를 갔누? 만일 風珠가 이消息을 들으

면 얼마나 기뻐할구? 아 風珠氏! 風珠氏! (허덕 허덕 안으로 돌아가려 한 다)

牽樁 아니 어보게! 暫間만 참게. 내가 자네한테 急히 할말이 있네.

琦玉 (돌아서면서) 무슨말이야? 일짖 하게.

牽樁 대관절 이리 좀 오게 그러. 그렇게 急할것이야 무엇 있나?

琦玉 (덧질음 걸어나오면서) 그런데 참 어보게! 내가 자네한테 附托할게 하나 있

게. 或 무뚝한 집 있거든 한세 求해 주게. (辛酸한듯이) 남의 夕을세 잡아야 어

디 聲피해서 있겠던가. 그리고 또 아버지나 나오시면 適히 婚儀式을 舉行해야

되겠는비. 대관절 新婚旅行은 어디로 가는것이 좋을구?

牽樁 (비웃는듯이) 왜 한참은 總角會를 組織한다고 진즉대고 다니더니 벌써 그만부

러나?

琦玉 (狼狽하여 머리를 감으면서) 우응! 그야 내가 直接 장가를 가면서 體面上이

얼개 그것을 組織할수가 있다. 그러기에 어렵지만 자네가 引權을 해서 좀 해주

(133)

牽棒

아따 이사람아! 그 뒤지않은 文字 고만 쓰고 여서 이야기나 해.

豬玉

그럼 자네 이돈의 出處를 이야기할까 물어보게. 애함!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只今부터 十七年 前に 胸中에 어떠한 不平을 품으시고 飄然히 집을 떠나신

뒤로 一切 消息이 頓絶하던 아버지께서 그동안 中國에 건너가서 或은 海岸의

漁夫로 或은 炭鐵의 從業員으로, 작은 苦楚를 다 겪으시다가 天幸으로 某國 領事

의 恩遇를 입어 湖北省 督軍의 部下가 되어 가지고 爾來 活動을 繼續하던中

年前에 일어난 塞直戰爭에 奇功을 세운 結果 只今은 參謀長官이라는 榮職에

昇差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零陵에 炭鐵을 經營하셔서 百餘萬圓이라는

財産을 모아 가지고 情은 故國을 訪問하려 하시던 차에, 마침 緊急한 軍務로

因緣하여 臨時 中止하고 于先 이돈 萬圓과 便紙를 同封하여 나의 踪跡을 좀

찾아서 傳해 달라는 囑托이 十餘日 前に 總督府 外事課로 왔더라말이지. 그래서

秘密히 나의 行方를 搜索하던 中이었던 모양이네. 그리고 便紙에는 于先 이돈

萬圓으로 學費에나 쓰이 쓰라고 그리셨드군.

牽棒

야! 참말 感觀 感觀한 일일세. 나는 무슨 말로 致賀를 表할는지 모르겠네.

(다시 豬玉의 소를 잡아 혼든다)

(182)

率椿 그일 이라나?

琦玉 아따 왜 閔濛基란 놈의 凶計로 나를 劫盜罪로 몰은 그事行 말일세.

率椿 그래 어떻게 됐어?

琦玉 그런데 일이 다 될 때라 夙姬라고 하는 나 있던 집 主人의 딸 되는 女子가 證

人으로 불려와서 모든 일을 事實대로 自白을 해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無罪로 釋放이 되고 閔濛基는 誣告罪로 起訴가 되었단 말이야. 인제 濛基도 不日

內로 捕縛이 될것일세.

率椿 何如間 일은 痛快하게 잘 됐네. 나는 자네의 前道를 爲해서 親費하네. 그런데

그 손에 든 것은 무엇인가? (本藥을 가리킨다)

琦玉 이것말인가? 돈일세. 돈.....萬圓이야 萬圓.....(기려서 필필 된다)

率椿 그것이 어디서 왔어!

琦玉 (답답한듯이) 이사람아! 萬圓이여니깐, 萬圓.....

率椿 아니 글세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말이야?

琦玉 오응!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말이야? 그런데 俗談에 隔不鏡來라더니, 그야 말

로 나는 命이야 隔이야 하는 판이거든.....

(181)

덕성은 琦玉아! 불쌍한 동무들이여! 깨달아 다고.空虚다. 아무것도 없다.正義란 무엇이요 戀愛란 다 무엇이냐? 이世上에는 오직黃金이 있고 地位가 있고 勢力이 있을뿐이다! (도 暫間 沈吟하다가 突然히 주먹으로 마구창을 치며) 아 痛忿하다.可惜하다. 琦玉君이 머지 아니하여 나옴더인데 鳳珠는 그만 가 버렸구나! 이것이야말로 心術국은 運命의 作亂이 아니인가!

이 때에 上手로부터 琦玉— 손에 革護을 들고 숨을 헐떡거리며 슬피 뛰어 들어온다.

琦玉 (門밖에서부터 숨찬 목소리로) 鳳珠氏! 鳳珠氏! (大門안으로 들어선다)

率椿 (반가운듯이 마조 나오면서) 야! 琦玉이!

琦玉 오 率椿君! (힘있게 握手한다)

率椿 그런대 자네가 警察署에 잡혀 갔다더니 어떻게 벌써 나오나!

琦玉 (喜色이 滿面하여) 여보게! 자네도 기뻐해주게. 인제야말로 나는 온전히 산 사람일세.

率椿 살다니! 인제는 자네가 죽었던가? 그때 대판결 무슨일이야?

琦玉 응 바로 그일이네.

率棒, 「앗」 소리를 지르며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비슬비슬 마당가운데 쓰러진다.
石恩—壯漢等과 合力하여 急히 쓰러진 尙熙와 壯漢을 부축하여 가지고 上
手로 나간다.

率棒, 몸을 뒤치며 기—르게 呻吟한다.

舞臺는 마치 난리가 지나간것 같이 一種의 소조하고 寂寞한 氣分이 흐른다.

떨적어서 自動車의 警笛소리가 들린다. 그소리에 率棒— 눈을 뜨고 四方을

돌아보다가 놀라는듯이 벌떡 일어난다.

率棒

(쿠익을 부르뒤면) 앵! 분하다. 이놈들을 놓쳤구나! (손으로 머릿뒤를 문지르

며 몇걸음 걸어 나오다가 大門안에 떨어진 便紙를 집으며 놀라는소리도) 응

이것이 무엇이냐? 「尙熙氏 殿이라. 鳳珠누부터……」(다시 돌에 떨어진 寫眞

을 받로 밀어 보다가 머리를 꼬덕거리며) 아하!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鳳珠

와 尙熙사이에는 前日부터 隱微한 關係가 있었구나! (便紙를 든채 마루끝으로

와 걸어앉아서 內容을 읽어보다가 힘없이 땅에 떨어뜨리며 寒心한듯이) 할수

없다. 이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놈은 男子이다. 그때도 鳳珠만은 그렇지

않을줄로 믿었더니 亦是 이세상에 平凡한 女子였구나! (暫間 동안을 띄어서) 어

(179)

이름을 타서 鳳珠는 運轉手에게引導되어 蒼皇히 大門밖으로 뛰어 나간다.
그 즈음에 鳳珠의 몸속으로부터 便紙가 떨어진다.

率棒 | 성면 이리매와 같이 앞뒤로 달려보는 衆敵을 相對로 渾身の 勇氣를
集中하고 平生의 秘技를發揮하여 電光 石火와 같이 東閃西忽 左衝右擊、背負足
拂 橫打直突等、實로 柔道와 柔鬪의 妙를 極한 奇絶快絶한 一大活劇을 演出
하며 狂龍 奔馬와 같이 날뛰는 反面으로 壯漢等도 必死의 氣力을 다하여 或進
或退、且戰且走의 팔러산式 戰法으로 左를 치는듯 右를 掩襲하고 前者가 쓰
러지면 後者가 다시 이어 자못 猛烈하게 抵抗한다.

그러나 얼마 아니하여 壯漢한 사람은 率棒의 得意의 巴投術에 걸리어 凄愴한 悲鳴
을發하며 나가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尙熙도 血流滿面하여 숨을 헐떡거리
더한편 구석에 精神을 잃고 쓰러진다. 이 서술에 나머지 두명의 壯漢도 意氣沮喪
하고 氣喘力窮하여 敢히 싸우지 못하고 슬금 슬금 大門을 向하여 다라나려 한다.
이것을 본 率棒은 怒한 獅子와 같이 高喊을 지르며 兇히 따라갈때에 어느름엔
지 上手로부터 들어와서 몸을 大門뒤에 숨기고 있던 石현이가 靑은 棍棒을
들고 不意에 나타나서 뒤로부터 率棒의 머리를 때린다.

鳳珠—한편으로 避해가서 몸을 떨며 가만히 보고 있다. 싸움이 次次 猛烈해진다.
 運轉手—尙熙를 助力코자 하여 옆으로부터 牽椿에게 달려들다가 미처 손
 도 놀릴새 없이 牽椿의 역센 주먹을 얻어맞고 悲鳴을 지르며 亦是 鳳珠의
 뒤로 피해온다. 이 틈을 타서 尙熙— 兇히 일어나며 하다가 다시 牽椿의 발길
 에 걸리어 「썩!」 하고 쓰러지면서 두손으로 牽椿의 다리를 얼싸안고 잇발로
 함부로 물어 뜯는다.

牽椿! 狼狽하여 兇히 몸을 굽혀 柔道의 手法으로 尙熙의 목을 졸른다.
 이 사이에 運轉手와 鳳珠— 慌忙히 大門앞으로 避해오려 한다.

이光景을 일뜻 본 牽椿은 必死의 氣勢로 달려붙는 尙熙를 힘껏 에다치고
 「야!」 하는 大喝一聲과 같이 兇히 한손으로 運轉手의 뒷덜미를 잡고 다시
 鳳珠의 앞을 막으며 숨찬 무소리로 부르짖을때에 忽然히 上手로부터 야듯한 휘
 파람 소리가 울리자 동방거리는 발자취소리와 같이 勞動者 貌樣으로 차림
 壯漢 세사람이 大門을 차고 뛰어 들어 와서 소리를 지르며 메를 지어 牽椿
 에게 달려든다. 同時에 쓰러졌던 尙熙도 協力하여 하나가 牽椿을 包圍하고
 다시 다섯사람 사이에 肉彈相搏의 激烈한 亂鬪가 始作된다.

(177)

運轉手、對答하며 上手로부터 물어온다。

尙熙 (運轉手에게) 어서 이 아씨를 自動車로 모시게. 자아 風珠氏! 나가십시오.

(風珠氏 불르고 나간다)

세사람! 한가지 大門앞까지 왔을대에 突然히 上手로부터 우리같은 소리

가 나며 林奉椿! 憤然히 大門을 차고 물어온다. 세사람! 놀래어 一時에

뒤로 물러선다.

奉椿 (怒氣를 띤 語調로) 風珠氏! 琦玉君을 내 버리고 어디를 가시렵니까? (尙熙

를 알아보고) 오! 내가 尙熙로구나! (憤怒하여 이마에 靑筋이 움직인다) 어디

女자가 없어서 何必 親舊의 안해를 피어내. 이 天下에 義理없는 놈아!

尙熙 (運轉手에게 눈짓을하며) 어서 아씨를 모시고 나가게.

奉椿 (怒目을 보듯하고 腕을 벌면 앞의 女가 나타나 憤然히) 못간다. 어디를 가.

尙熙 (眉宇에 殺氣가 나타나며) 그러면 나는 무얼 먹겠다고 이터 女가 다니며 말생

이나. (陷罪에 빠진 毒藥와 같이 이를 악물고 奉椿에게 달려든다)

奉椿 무엇이 어째? 요것아! (尙熙를 잡아 에다친다)

暫間동안 두사람 사이에 無言의 格闘가 繼續된다.

事 準備! 알아 있자?

蒸蒸—도로 고개를 움추리고 上手로 사라진다。—間—

風珠—류령크를 가지고 下手로부터 들어온다。

風珠 (머뭇거리면서) 여보셔요! 어렵지만 며칠동안만 더 참아주세요. 나는 암만해도

이대로 떠나지는 못하겠습니다. 萬一의 瑤玉氏께서……)

尙熙 (눈살을 찌푸리다) 왜 또 問題를 꺼내십니까 글세……(말하는듯이) 그리

지 말고 어서 나가시지요. 어서 어서……(팔을 잡아 끈다)

風珠 (마지못하여) 가만히 좀 세셔요. (다시 망사티다가 때—볼. 실험에서 한창의 寫

眞을 꺼내어 류령크에 넣으려 한다)

尙熙 무어예요 그건 또? (寫眞을 빼앗아서 보여다보다가) 이게 뭐 寫眞인가? 오! 瑤

玉君의……(갑자기 氣色이 좋지 않아지며) 이런것을 가져갈 必假가 있을까

요? (마당으로 내 던진다)

風珠 에그디나—(부도짖으며 뛰어가서 집으려 한다)

尙熙 (風珠의 팔을 잡으며) 그까짓것 내 버리고 어서 나가시지요. (慌急히 運轉手

를 부른다.)

(175)

鳳珠 (꺼 안긴채 몸을 떨면서) 따라 가지요. 따라 가지요. 어디이든지 당신을 따라
가지요.

尙熙 感謝합니다。感謝합니다。사랑하는 鳳珠氏! (感激함을 못 이기는듯이 새파랗게
질린 鳳珠의 땀에 가만히 키스하면서) 아아! 나는 나는 只수 죽어도 恨이 없
겠습니다。 (황홀한 一瞬間이 지난 뒤에 문득 손을 놓으되) 자아 그러면 어서 가
시지요。 이자리에서.....

鳳珠 (눈물 맺힌 눈으로 尙熙를 쳐다보며) 그렇지만 琦玉氏께 未安해서.....
暫間만 참아주세요。 마지막으로 告別의 便紙라도 한장 써 놓고 가겠습니다。

尙熙 (再促하는듯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사람에게 便紙는 써놓아 무덤하셔요。 倏然히
時間만 虛費하지 말고 어서 나가시지요。 (손을 잡아 끈다)

鳳珠 그러면 좀 가만히 계셔요。 내 튜링크를 가지고 나올게요。 (울면서 下手로 나
간다)

조금 뒤에 閔濬基— 上手로부터 나타난다。

濬基 (大門안으로 고개만 디밀고 가만히) 여보게 인제 됐나?

尙熙 (손을 치으며) 응 됐네。 念慮 말고 어서 나가 있게。 어서 어서..... 그리고 自動

나다. 만일 당신이 끝끝내 나를 排斥하신다면 나는 차라리 이자리에 죽어버
리지요. 이것은 勿論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나의 가슴에
矢戀이라는 악착한 못을 박아서 죽이는 것이올시다.

여보시오! 당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나? 殺人者가 되지 않나? (품속으로부터
短刀를 빼어들며) 자! 나는 죽습니다.

鳳珠 (놀래이 「아!」 소리를 지르며 일어선다)

尙熙 그러나 마지막 所願이옵시다. 한사람의 可憐한 青春이 당신으로 하여 無窮한 眞한
을 품고 朝露와 같이 스며졌다는 것이나 잊지 말아 주십시오. (칼을 무에 겨우며)
자!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 來生에서나 다시 만나지요. (칼을 들어
무릎 꿇로드는채 한다)

鳳珠 (흔히 뛰어가서 칼 든 손을 잡고 매 달리면서 五臟을 짜 내는듯한 목소리

로) 여보시오! 차, 참아주세요. 마, 따라가지요. 모든것을 犧牲하고 당신을 따라
가지요.

尙熙 (가만히 鳳珠를 꺼 안으시며)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참으로 나를 따라오
시렵니까?

(173)

죽기 前에야 어떻게 잊을수가 있었습니까? (또 잠깐 사야들 펴서)

당신을 떠난 나의 마음은 砂漠이옵시다. 여보시오? 당신은 저! 거칠고 할수한 砂漠속에서 목 마름을 참지 못하여 죽으려고 힘뻑거리는 그사람을 볼때에 한 모금의 生命水를 아끼시었습니까?.....

지금 나의 머리는 어지럽고 나의 가슴은 피롭고 나의 四肢는 얼어 옵니다. 어 썩고 의롭고 차디찬 氷窟속에서 오를오를 떨고 있는 시들어 가는 나의 靈魂은 당신의 따뜻한 微笑가 아니고는 蘇生할 餘望이 없습니다. (더욱 열정적으로) 당신은 나의 靑春이요. 幸福이요. 女王이옵시다. 당신을 떠나서는 나는 世界도 없고 生命도 없고 快樂도 없습니다.

아무리 香氣로운 꽃일지라도 당신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눈은 즐겁게 못할 것이요. 아무리 美妙한 音樂이라도 당신으로 하여 생채기 받은 나의 가슴은 慰勞가 못될것입니다. 아아! 어찌 하시었습니까? 對答하여 주시오. 다만 한마디라도 좋으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對答하여 주시오. (타는듯한 두눈으로 이윽히 鳳珠를 바라보다가) 여보시오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안하십니까? 그래도 당신은 나를 불상타고도 생각지 아니 하시었습니까? (突然히 態度가 變하며) 네 좋은

우럭집에는 拾五萬圓이라는 財産이 있습니다. 아무럭 비싸고 귀한것이냐도 당신이 願하는것이면 무엇이든지 사 드릴것이요. 아무럭 싸롭고 어찌은 일이라도 당신을 爲하여서라면 辭讓치 않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것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일 당신의 옛날의 뜻을 한번만이라도 찾아 볼수가 있다면, 生命도 財産도 헌신같이 버리려 하는 이 情熱에 可憐한 心情을 좀 살펴 주십시오.

鳳珠

(울면서) 그렇지만, 나는 참아 琦玉氏를 저바릴수는 없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孤兒을시다. 父母도 親戚도 없고 財産도 名譽도 없는 불상하고 의로운 그에게는 오직 저 하나가 있을뿐이 아니오니까? 또 그이가 只今 監獄에 갇혀 계된것도 그 原因은 亦是 제게 있습니다. 그거나 당신은 財産도 있고 名譽도 있으며 家庭도 있고 父母도 계시지요. 또 이世上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훌륭한 女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나 그거나... 壽命한 이몸을랑 永遠히 永遠히 있어 주십시오.

尙熙

무엇이요! 있어 달라고요! 果然 있을수가 있겠습니까! (더욱 熱情的으로) 가슴속에 진이진이 새겨진 女神과 같이 思慕하던 그 얼굴, 그 소리, 그 사랑! 카아!

(171)

네. 좋습니다. 아마 당신은 分明히 나를 혐여하시지요? 미워하시지요? 蛇蝎과 같이 怨讎와 같이.....네 그 번들도 압니다. 벌써.....다만 이몸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恨嘆할 뿐이지요.

鳳珠. 무엇이요! 미워한다고요! 참말 너무하십니다. 여보세요! 果然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때 갈때 없는 불쌍한 이몸을 救援해 주시려는 당신을 생각하면 저는 고마워요. 感謝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아아! 나는 참아 琦玉氏를.....(해! 불위에 쓰러

지더 흠* 느낀다)

尙熙. 여보시오 鳳珠氏! 琦玉君은 監獄에 갇힌 罪囚가 아닙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는 琦玉君을 기다리고 軟弱한 女子로서 無情한 世上의 險惡한 波濤한 어떻게 견디어 나가시렵니까! 무서운 苦痛은 只今 칼날같은 헛바닥을 날듬거리며 당신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두렵지 않습니까? 鳳珠氏! 그러나 萬一 나를 따라 오실것 같으면 당신의 몸은 이 무서운 運命으로 부터 벗어날것이요. 나의 魂은 저! 絶望의 深淵으로부터 救護를것일나

(170)

尙懸

(激하여) 여보시오. 너무나 그렇게 사람을 판사하지 말으시오. 비록 못생긴 나

이지만 그래도 눈물도 있고 離情도 있습니다. 萬一 萬玉君이 당신을 爲하여

피를 흘린다면, 아니 生命을 바친다면, 나도 당신을 爲하여 피를 흘릴 것이요

生命을 바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爲하여서라면 무엇이든지 버리지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 보됩니다. 寶玉이라도 버리지요 生命이라도 버리지요 개껍더기나

도 벗길 것이요 虎狼이 窟이라도 들어 가됩니다. (잠간 사이를 띄어서)

아무리 멀고 먼 絶島이라도 당신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갈 것이요.

아무리 무서운 地獄이라도 당신이 제신 곳이라면 離離치 않고 찾아 가겠습니다.

絶島— 地獄— 당신과 같이 가는 絶島이라면 나에게는 樂園이 될 것이요. 당

신과 함께 있는 地獄이라면 나에게는 天堂이 될 것이다. 자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나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哀訴하는表情으로) 불

상한 尙懸를 죽이시겠습니까? 살리시겠습니까?

鳳珠

아아 여보시오— 저 한몸이 죽어 없어진 셈만치고 모든것을 容恕해 주십시

오. (다시 느낀다)

尙懸

용서요— 용서요— 只今 이 자리에서 容恕라는 그 말이 무슨 所用이 있겠습니까?

(169)

萬一 당신의 따뜻한 가슴이 나의 最後의 무덤이 되어 주신다면 나는 只今 죽어도 恨이 없게됩니다。자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의 죽는 꼴을 보고야 마시렵니까? 모든것을 잊어버리고 이자리에서 나를 따라와 주시렵니까?(가만히 鳳珠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無限한 愛情이 넘치는듯 하다)

鳳珠

(일마름 同情하는態度로) 未安하지만 저를 斷念해 주십시오。나는 이미 마음을

바친곳이 있습니다。

尙熙

우엇이요? 바친곳이 있다고요! 여보시오! 그말이 果然 당신의 입으로 나왔

니까? 글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萬一 당신이 참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三

年 동안에 어떠한 變遷이 있었을지라도 반드시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빛이 變하고 땅위에 있는 바다가 마를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變

치 마자던 옛날의 言約을 벌써 잊어 버리셨습니까? (호르느트 호르는 눈물을

젖으면서)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까지 變하였건만, 그래도 못생긴 이놈은 참아

참아 옛 情을 잊지 못합니다。그러。 (목이 메인다)

鳳珠

(亦是 일말을 가리고 涕泣하면서) 여보시오! 그 말씀난은 말아주세요。 저의

가슴은 쓰라립니다。(느간다)

못 믿으셔요? 내 마음을 疑心하셔요? 아아! 어떻게하면 이 가슴을 당신에게 보여 드릴수가 있겠습니까. 단일 나의 心臓을 가슴으로써 당신의 誤解를 풀어드릴수가 있다면 나는 躊躇치 않고 이자리에서 가슴을 가로지요. 그리하여 붉은피가 뚝뚝 흐르는 나의 心臓을 꺼내들고 당신의 눈앞에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피로운듯이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아아! 내 가슴은 탐니다. 안타까움에 내가 숨은 타오릅니다. 이세상에 쓰리고 아픈 일이 많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誤解를 받는 그것보다 더 쓰린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苦惱를 못 견디는 듯이 비틀거리다)

鳳珠 (가만히 尙照를 바라보다가 놀래는 소리로) 에그머니 저것 보게! 그 손등에서 피가 흐릅니다. 무엇으로 좀 치매기라도 하시지요. (안으로 들어가며 한다)

尙照 (손을 쳐으며) 아니가만 두십시오. 이 피는 나의 一生에 가장 보배로운 피입니다. 나는 차라리 이손이 끊어지지 아니 한것을 慰望합니다. (熱情的으로) 萬一 당신을 救해 드리기 爲하여 이손목이 끊어졌다면, 아니 내 生命이 없어졌다면 당신에게 버림을 받고 차디찬 이세상에선 飢餓히 살아가는것 보다는 일마나 價値있겠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당신의 발앞에서 죽기가 所願이옵시다.....

(167)

鳳珠 (솔뭍을 만 - 語調은) 여보시오 鳳珠氏.....

당신은 三年前 옛날 漢江 鐵橋 으스름 달빛 아래서 우리의 將來를 言約하던 공
은 盟誓를 빌서 잊어 버리셨습니까?.....

내가 東京으로 건너가서 몇번이나 당신에게 便紙를 부렸으나 부치는 쪽쪽 도
로 돌아오기에 궁중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卽時 朝鮮으로 건너와서 찾아보려
하였으나 造物이 猜忌하였던지 뜻밖에 肋膜炎이라는 病에 걸려서 이태 동안이
나 府立病院에서 呻吟하던 그때에도 어두워오는 黃昏, 떠 오르는 달 아래서 살
살한 病院 窓門에 依支하여 머리로 저물어가는 故園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운
당신을 생각하고 몇번이나 안타까운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次次 興奮된
다) 아! 여보시오! 크래도 당신은 나를 못믿으시겠습니까? 怨望 하시렵니까?
(두어걸음 들어선다)

鳳珠 (눈을 흘기면서) 그럼 怨望치 않고.....!.....!.....!.....!.....!.....!.....!.....!.....!.....!
오

尙熙 (야속한듯이) 여보시오! 당신도 사람이지요? 木石은 아니겠지요? 木石이라도
意識이 있다면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길것이올시다. (안타까운듯이) 그때 나를

(166)

鳳珠 (반가운듯이 앞으로 나오면서) 尙熙氏!

尙熙 오! 鳳珠氏 (안으로 가는듯이 두팔을 벌리고 마루위로 올라온다)

鳳珠 (뺨걸음을 쳐서 避하면서) 저리 앉으시지요.

尙熙 (無情한 感慨를 發치 못하는듯이) 여보시오 鳳珠氏! 당신도 사람이지요? 어찌

먼 그다지도 無情하십니까?.....

내가 지나간 三年 동안에 당신으로 하여서 無限한 苦痛을 참아가며 얼마나 애
타는 눈물을 流렸는지 아십니까?.....

내가 東京에서 나온뒤로 당신이 白琦玉君과 같이 지낸다는 말을 듣고 노만 落
心絶望한 끝에 몇번이나 自殺을 圖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한번이라도

당신을 만나보고 죽겠다는 一縷 殘望을 품에 품고 오날날까지 쓰디쓴 生을 이어
가며 그동안에 三四次나 눈물겨운 편지로 나의 쓰라린 가슴을 呼訴하였으나

따뜻한 回答한장도 못받아 보고 다만 이世上의 無情함을 咀呪하며 晝夜長天에
쓰라린 눈물로 歲月을 보내던 이 나의 可憐한 心情을 좀 살펴 주십시오.

鳳珠 (날카롭게) 거짓말. 당신같이 無情無信한 이의 말은 나는 믿을수가 없어요. 東
京으로 가신뒤에 三年 동안이나 便紙한장을 안 해주시고.....

(165)

다)

鳳珠 (몸부림을 치면서 高聲으로) 盜賊이야!

이때에 上手로부터 尙熙—「야!」소리를 지르며 急히 大門을 차고 뛰어들어와서 濛基의 덜미를 잡어 마루아래로 끌어 내린다.

濛基 (눈을 부릅뜨며) 이놈이 쉰 놈이야 그런데!…….막 남의 집 家宅侵入을 하고 도 無事할까…….…….

尙熙 家宅侵入! 너는 家宅侵入만 알고 婦女劫奪은 罪가 되는줄 모르느냐?
濛基 무엇이 어째? 이놈아! (尙熙에게 달려온다)

暫間동안 두사람 사이에 無言의 猛烈한 格闘가 繼續된다. 濛基! 기운이 붙이는 듯이 자조 자조 쓰러진다.

尙熙 (숨을 헐떡거리는 濛基를 잡아 門밖으로 내치면서) 나가거라 이 나쁜子息!

아주 죽여 버리기 前에…….

濛基 (帽子를 들고 쫓겨 나가면서) 오나 只今은 내가 強弱이 不同으로 쫓겨간다
마는 조금만 있으면 나는 콩밥이다. 그런줄 알아라. (上手로 사라진다)

尙熙 (돌아서면서) 아! 兇惡한놈! 하마 트면 큰일 날뻔 했군! (옷에 흙을 던다)

(104)

편 이리서는 피임에는 따지지를 안는다나요.

溼漉 (憤然히 뭐어 일어나며) 아니 그때 정말 못 가졌다는 말씀이요? (帽子를 집어 쓴다.)

風珠 (沈着하게) 왜 안가면 누구를 어째요?

溼漉 아니 그때 父母가 定해준 男便은 마다 하고 무슨 사람이니 돌아땡방이니 해

가지고 돈합춘 없는 盜賊놈을 마다 위 사는것이 穩當한 일이라고 생각하옵?

風珠 그럼 穩當차 않고.....

溼漉 (타오르는 憤怒와 憤鬱으로 두눈이 熱火같이 빛나며) 저!。 그렇게 양합춘

합것 같은면 腕力으로라도 끌고 갈려이니 그런을 어썩.

風珠 腕力이요! 참말 大段하십니까. 그럼. 그렇지만 腕力을 무서워 할 風珠가 아니

에요.

溼漉 (激怒하여) 무엇이 어째? (뛰어가서 風珠의 손목을 잡는다.)

風珠 (얼굴빛이 새파랗게 變하며) 이걸 무슨 계같은 짓이야. (힘껏 손을 뿌리치고 한

옆으로 轉回한다.)

溼漉 어디로 가! (미친 황소와 같이 숨을 쉰근거리며 따라가서 暴力으로 꺾 안는

(163)

藝基

(活氣를 일으키는) 아 酒強 張遠이 같은 男子들도 못 살아서 죽는다 사느니

하는 이世上에 無經驗한 女子로서 뒤 봐줄 사람도 없이 왜 가는대로 살만

오. (寒心한듯이) 흥! 참말 딱한 일들이야 요새 젊은 男女들이란 무슨 사람

은 神聖한것이니 달음한것이니 해 가지고 도무지 앞 뒤 생각 없이 날뛰다가

흔히 結果가 좋지 못한것은 恒常 人生生活에 가장 必要한 經濟라는 것을 等閑視

하는 까닭이었다! 그래서 苦生을 흥때 해 보고야 비로소 한다는 소리가 「사

랑의 맛은 쓰드라!」 하는 이것이었다. 그러나 果然 사랑의 맛이 처음에는

달다가 乃終에 쓴것이 아니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經濟的 苦痛을 當해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랑의 맛도 써 지는 것일넌다. 忽然히 鳳珠氏도 쓴苦生 말고

어서 일적암치 집으로 가십시다.

鳳珠

그렇지만 집에는 다시 다녀 들어가기로 決心한 以上에야……

藝基

아니 그럼 나하고 같이 우리집으로 갑시다. 그럼.

鳳珠

(冷然히) 내가 왜 당신의 집으로 갑니까. 밤을 밟아 버어도 당신같은 이의

집으로는 가지를 아니해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그만 두고 당신 걱정이나 하

십시오. 왜 누구를 좀 봐어보려고 (鼻笑하며) 나도 教育을 받은 女子을시다. 그

(162)

장비 아야 그렇게 너무 難難은 말도.....

鳳珠 (눈을 두마로 뜨며) 그건 무슨 失體의 말씀이에요. 누가 時計라면 四足を 못

쓰는줄 아십니까? 나는 고만 물어잡니다. (일어선다)

장비 (慌忙히 손을 저으며) 아니 아니 暫間만 참으시오. 내가 急히 물어볼 만

이 있으니.....

鳳珠 (말할새) 무슨 말씀이에요?

장비 (哀願하는듯이) 글세 이리쯤 앉으시오. 그렇게 肅할것이야 무엇 있습니다

까?

鳳珠 어서 말씀만 하세요. 이리고도 돌습니다.

장비 그러면 風使의 불은니까 그동안의 瑣瑣함이 筆紙 같다는 말이 있으니 그때 그

새 정말입니까?

鳳珠 (공인이 고개를 숙이며) 네.

장비 허허! 저게 원 말이 되었나! 物盜犯이니까 적어도 三年 懲役은 필터인게!

.....그때 鳳珠氏는 將次 어떻게 할 作定입니까?

鳳珠 (하숨을 쉬면서) 왜 가는데로 살지요.

(161)

鳳珠 그럼 남이 아니고 親戚인가요?

濼基 아니 親戚은 아니지만……그래도 親分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卷簾을 내

어 불을 붙여서 두어 목욕 할다가 房안을 붙여다보며) 그러면 只今 몇點이나 됐

누? 아마 이놈의 집에는 時計도 없나보다。(鳳珠의 손목을 有心히 바라보며)

안 그 돌색이 닮 되든 우레마까는 다 어떻게 하꼬 하마모 안 끼셨으니 썬 일

입니까?

鳳珠 다 접혀 먹었지요。

濼基 허허! 저게 원 모양이 됐나! (포커에서 감용으로 산 美形의 「제이스」를 내어

무경을 열어들고) 에! 이것은 내가 어번에 東京 尙美堂에서 一金 七百 八拾

圓也를 주고 注文해은 瑞西製 二十石인 비 어수운대로 于先이 것이나 하나 가져

보시려우? (鳳珠에게 준다)

鳳珠 고맙기는 합니다 마는 나는 그런것은 가지고 싶지 않은걸요。

濼基 그럼 더 좋은 것을 하나 사 드리니까?

鳳珠 아니요. 나는 차라리 時鬪을 못 볼지언정 才鬪없이 남의 物件을 받기는 싫어

요.

때때로 잘고 每日 필필 ฤษ시면서 아수야 말아십니다.

鳳珠 에 通知라는것은 그것입니까? (冷笑하며) 그러나 집에는 다시 아니 들어가지로

決心한 以上에야 아무렇게도 무슨 關係있나요.

蓬莖 에! 그렇게 독 잘라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나는 다시 할말은 없습니다. 마

는 世上일이란 그렇게 單純하게 自己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이다음에라

도 後悔하지 말고 眞의 眞의 생각해 보는것이 어때요?

鳳珠 (斷然히) 後悔도 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할 必要도 없습니다.

蓬莖 (할말이 없는듯이 한참이나 天井을 바라보다가) 그런데 참 할말이 없습니까?

나까? 아까 내가 이리로 슈터니까 뎌 자가 袂에서 紙片을 하며 왔다

고 紙片을 紙片 대 大門안으로 들어오셨지요. 그때서 보기에 어찌 可痛하고

昌皮한지 내가 불려서 한참 꾸짖고 돈을 물어주어 보았습니다.

鳳珠 (若干 미리를 숙이며) 참말 感謝합니다. 돈을 도로 물어 드리지요. (물속으로

부터 紙片을 꺼낸다)

蓬莖 (손을 저으며) 아니올시다. 내가 그돈을 도로 받고 물어 주었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나에게 하듯이 誠實하게 말씀하십니까?

(159)

濛濛

그런데 그동안에 玠玉君은 學校에서 쫓겨 났대지요? 허허! 그거 참 안됐
구! 몸이弱해 놓아서 勞動 같은것은 못할디야. 말하자면 증도 아니요. 俗淺
도 아닌 그야말로 일치가 되어 버렸군. (가장 同情하는듯이 입맛을 다시면서)
그것 참 青年의 前程이 可憐한걸.

珠

(反抗的으로) 可憐하니 어떻게 말씀이에요?

濛濛

(집안을 두두물아보며) 허허! 집골하고 그때 이런데서 하투인들 어떻게 걸디시
우? 서받막대 거칠것 없다드니 이집이야 말로 꼭 맞쳤군. 그때 집안은 이렇
게 翻辛한데 玠玉君은 돈하곤 못벌고 피동 피동 놀기만 하니 그거 이터다가
는 짝대하면 밤 굶으시겠구려?

鳳珠

누가 당신더러 그런걱정 하시래요.

濛濛

(일어하여) 아니 걱정이 아니라 보기에 하도 딱하니까 말이지요. (트림을 걸
게 하며) 어! 點心에 羅滿한 洋料理를 먹었더니 속이 大段히 거북하군.

鳳珠

그런데 通知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濛濛

네. 다른것이 아니라 요새 鳳珠氏의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말한마디 없이 뛰어
다니다고 원경 轉變은 다시 들디지도 않을뿐 아니라 父女間 義理까지도 끊어

(158)

鳳珠 (門안으로 들어서며) 이리 오느라! (기침을 크게 하며) 鳳珠氏 제심니까? (안쪽으

로 기웃거리다)

鳳珠 (안으로부터) 누구세요? (가는 기침소리와 같이 가벼운 발자취소리가 들린다)

조금 뒤에 鳳珠, 손에 부지개를 든 채 下手로부터 들어온다.

淺珠 (帽子를 벗으며) 아 鳳珠氏 그동안 健康하십니까.

鳳珠 (머리를 숙이며) 네 安寧하셔요. (마두로 올라가서 댁프에 불을 켜 놓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찾아 오셨어요? 이리쯤 올라 오시지요.

淺珠 네 고맙습니다. (올라가서 椅子에 앉으면서) 鳳珠氏도 좀 앉으시구려.

鳳珠 아니요. 나는 밥을 짓다가 나왔으니까 곧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淺珠 네? 鳳珠氏가 밥을 하셔요? (필적 쿠션서) 원 저런 변이 있다!

鳳珠 (正色하며) 變은 무슨 變이래요. 저 덕을 받은 계손으로 짓는 것이 當然한 일이

지요.

淺珠 아니 오늘 나는 鳳珠氏에게 좀 通知해 드릴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재판관

이리 좀 앉으시구려.

鳳珠 무슨 말씀이래요? (마지못하여 한편 椅子에 가만히 걸터앉는다)

(157)

다.

滋蒸 (남이 동그래지며) 웬 사람이야? 남의 집애물 왜 들어가?

下僕 (돌아서며) 백. 무엇 좀 받으께 있어서 그렇니다.

滋蒸 무어야 받으께?

下僕 팔값이예요. 요아래 직전에서 왔습니다.

滋蒸 열마나 돼? (포켓트에서 직갑을 꺼낸다)

下僕 (팔씨가 더욱 恭遜해지며) 네. 모도 三圓 七十錢이랍니다. 來日은 이벽에서 移

宿을 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서와요 主人이 오일은 세간으로라도 代捧을 치가

지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지게까지 지고 오지요. (지계를 추켜하며 빙그레 웃는다)

滋蒸 무어 세간? 허허! 어떻게 無鹽을 해 놓나 (돈을 띄워 주며) 私執行을 하느라

은 法律上 抵觸이야. (손짓을 하며) 자아 이서 나가라구.

下僕 (허리를 굽을거리며) 네. 고맙습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서

며) (그런데 참 이거 보십시오!

滋蒸 (화를 발끈내며) 돈 받았으면 잘것이지 웬 잔말이야. (손짓을 하며) 어서가!

下僕 (벌떡하여) 네. 네. 가겠습니다 (上手로 나간다)

야. 最後일세. 精神차라게.

會慶 글세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무슨 手段을 쓰든지 風流 하나만 써야겠으면 그만 아닌가? 제 아무리 도저하다는 女子라도 여태까지 내 손에서 벗어나 본 일은 없으니까..... 그것보다도 다른 準備나 잘 해 놓게.

濼基 응 準備는 물설름 없이 되었네. 股取 蔡氏집에서 무슨 기별이 온다 할지라도 一、二時間쯤은 滯滯시킬 만치 해 놓았단말야. 그러나 賞者가 允當 악지가 써야 놓니까 終是 마음이 놓이지 않는걸.

尙服 아까도 말 했지만 만일 이번 일이 되기만 하면 報酬는 著實히 해야 되네. 濼基 쉬! 너무 머물지 말게. 그야 勿論이지. 두말 할꺼 있나.

尙服 그럴 몇 千圓이나 줄텐가?

濼基 아따 이사람아! 그런 念慮는 그만 두고 어서 成功할 생각이나 해. 일은 하기도 前에 약속것부터 생각하니 되겠나. (손질을 하려) 그만 저티가 숨어있게. 도 볼키디.

尙服! 上手로 도로 나간다.

同時에 米진下候! 지지를 지고 上手로부터 나타나서 大門안으로 들어오려한

(155)

第三幕 第二場……………決心

때 前場으로부터 約 一週日後。黃昏。

배경 前場과 同一함。

幕이 열린즉 舞臺는 빈채로 고요한 灰色 振幕속에 쌓여 어렴풋이 비친다.
두어마리의 잘자리를 찾는 참새가 담안아까시아 숲에서 짹짹어리며 푸들인다.

조금뒤에 閨齋基와 尙熙— 한가지 上手로부터 나타난다.

齋基 (밀적) 서서 大門안을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낮추어) 여보게 尙熙— 인제야말로 絶體 絶命일세. 짝 짝 잘못하면 헛애만 죽도록 쓰고 내몸 하나는 破滅이 되는 관이야.

尙熙 글세 너무 念慮말려니까……

齋基 (화를내며) 어째 念慮가 안되겠나 이사람아! 只今 手形事件에 對해서 舞臺은 나를 注目하고 있네. 또 그뿐 아니라 鳳姬라는 女子의 마음이 차차 殊常해 진단 말이지. 그러니 어째 마음이 便할수가 있겠나. 廢一言하고 只今 危機는 각 일 각으로 닦쳐오네. 그러니까 이번일이 되고 안되기는 쏘려 자에게 달렸단 말

(154)

琇玉 그렸습시다.

刑事 (洋服안짚을 쳐들어 보이며) 나는 本町警察署 刑事요. 暫間 取調한 일이 있으니

뽕까지 같이 잡시다.

琇玉 (놀라는 表情으로) 메? 警察署요? 무슨 까닭입니까?

刑事 (눈을 부릅뜨며) 무슨 까닭은 가 보면 알지. (捕繩을 꺼내며면서) 자! 받아.

琇玉 (沈着해지며) 未安합니다 마는 집안 사람에게 暫間 일로고 가겠습니다. (洋服저

고리를 입으며) 안으로 들어가랴 한다)

刑事 (琇玉의 팔을 잡으며) 안돼 안돼. (무소리가 더욱 거칠어진다)

琇玉 그림 몇자 써 놓거나 하겠습니까.

刑事 「소미자 하야구 가래」 (턱을 툭툭한다)

琇玉 — 悲痛한 表情으로 急히 簡單한 便紙를 써서 帽子에 놓고 帽子를 집어 머리에 얹으며 돌아선다.

刑事 — 琇玉을 捕繩해 가지고 나간다.

琇玉 (大門앞까지 와서 참아 못잇는듯이 머리를 돌리며) 오! 鳳珠氏! (다시 무슨 말을 하려 하다가 刑事에게 끌리어 上手로 나간다) — 慕이 나린다

(158)

밖은 고요한데 여대사신자 그윽하 무명치는듯한 **바야울림의** **떨로다가** 마
디 마디 **爽然한** 哀愁를 속살거리는 듯이 가늘게 떨려온다.

鳳珠 | 보든 新聞을 접어놓고 한참이나 茫然이 앉았다가 살그머니 일
어나서 옆에 벗어놓은 洋服저고리를 집어 가만히 琦玉의 등을 덮어
주고 그리운듯이 바라보다가 가늘게 한숨 쉰다. 머릿들 숙이고 생각한
다. 氣色이 더욱 暗淡해진다. 문득 決心한듯이 살짝 몸을 돌려 操心
房으로 들어가서 壁上에 걸린 **바야울림을** 떼어 옆에 끼고 발끝으로 사뿐
사뿐 大門을 向하여 걸어 나간다.

鳳珠 (門앞까지 와서 未安한듯한表情으로 琦玉을 돌아보며) 琦玉氏 용서해주세요.
來日아침 밤을 해먹기 爲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含淚하면서) 마, 마, **바야울림**
을 제, 첩히려 잡니다. (上手로 나간다)

조금뒤에 刑事 | 上手로부터 들어와서 琦玉을 깨운다.

刑事 여보 여보! (마루위로 올라선다)

琦玉 (두울) 비비코 일어나면서) 왜?

刑事 당신의 白晝玉이요?

(152)

瑠玉 (심지를 들으면서) 불이 어찌 이렇게 호된가? 암만해도 石油을 좀 치야겠는걸.

鳳珠 石油도 떨어졌어요.

瑠玉 石油가 떨어졌다! (新聞을 집어놓고 茫然이 翫을 바라보다가) 참말 달이야

참다! (鳳珠를 보며) 그야말로 고요한 달밤이로구려!

鳳珠 (머리를 돌리며) 말세요. 오늘날은 변으로 밝은 피요!

瑠玉 (嘆息하는듯이) 에에! 꽃같은 青春, 달밤은 밤이건 마늘..... (日記帳을 펴 놓

고 뒤적거리면서) 고만한의 일찌기 불어 가시구려.

鳳珠 젠 참어요. (新聞을 펴 놓고 보는체 한다)

瑠玉 (하필을 모게 하면서) 그런피 어찌 이렇게 고박 고박 줄턴가! (어개를 추씩

하며 초력을 띄어서) 그런가?

鳳珠 (瑠玉의 態度가 우습다는듯이) 고개를 돌티고 욕구영속으로 가만히 웃는다)

瑠玉 어! 웃지 말라니까. (日記帳을 도로 덮으며) 암만해도 日記를 못쓰겠는걸. 참도

오고 불도 초리고..... (대-불위에 폭 언디면서) 에기 보디면서 空想이나 한

런 하자. (間-가늘게 코를 풀기 始作한다)

참고 불은 드디어 꺼져 버린다. 舞臺는 蒼白한 月光으로 昏昏과 같이 朦朧해진다.

(151)

琦玉 호떡 이태너간 시나방!

鳳珠 (살스럽게 웃으면서) 그것은 왜 안 잡습고 가져 오셨어요. (한 옆에 놓는다)

琦玉 응 나는 잔뜩 먹은거. 못밖에 漆樞君이 호떡은 한턱 내겠지. (앉는다)

鳳珠 아까 그이 말씀이지요? (마주 앉는다)

琦玉 (點頭하며) 응. 으. 라. 날. (더운듯이 上衣를 벗어놓고 물고림히 鳳珠를 바라보다)

가) 그러나 아마 鳳珠氏는 그런 飮食은 처음 먹어보리다. (색이 초창해지며)

아! 참말 鳳珠氏를 이렇게 苦生 시키는것이 다! 나의 罪이요. 나는 자다가

도 그것을 생각하면 (피로운듯이) 손으로 가슴을 누르면서) 가슴이 똑 터지는것

같다우. 그러나 근往 苦生을 해온 골이니 아무디 어릴드라도 며칠 동안만 더

참아 주어요. 그때는 반드시 무슨 道理가 있을 것이니까.....

鳳珠 (축으리고 앉아서 입술을 물어뜯다가 慰勞하는듯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

요. 혼자 當하는 苦生인가요 무어.....

琦玉 그렇지만 나 왜셔야 어디 그럽디까. (新聞을 뒤 들고 들으다 본다)

石油가 없는지 뽕프. 불은 차차 흐려지는데 매마침 照鑿을 더어날 一輪 明月이

교차히 中天에 솟. 더 호르는 月光이 두사람의 얼굴을 은근하게 비취워 준다.

(150)

을 박차고 뛰어들었다

琦玉 (반이 동그워지면)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러우? 아마 갑자기 미친지로

간!

鳳珠 (웃으면서) 아니에요. 셋은 받으며 왔다가 자기집에 불이 났다고 그 야단이예요.

琦玉 불이 났다고? 하하하! 그럼 얼끔 얼끔 셋은 언제만 왔구먼. (帽子를 벗

어 붙고 마루로 올라온다)

鳳珠 그런데 어떻게 벌써 오세요?

琦玉 (머리를 함으면서) 응 가다가 도로 온거. 알았해도 鳳珠氏를 집에다 혼자 뒤

져 어디 마음이 놓일디까. (잠깐 망사리다가 문득 鳳珠앞으로 가며)

에... 그런데 참 내가 鳳珠氏에게 훌륭한 선물을 하나 줄게 있는데 (포켓등에서 종이봉지를 내어주며) 자아 이것을 받아요.

鳳珠 (받으면서) 그것이 무엇이예요?

琦玉 (입속으로 가만히) 호! 별!

鳳珠 무엇이예요?

(149)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기우리며(암만해도 우리집 같은걸. 이거 큰일 났구나!
(큰소리로) 불이야! (다시 바라보다가) 울 상이 되며(에그 저것 봐라! 우리집
다란다. 내 두루막이 어디 갔나. (慌々히 두루막을 입으면서) 이런 경찰거 쯤
돈 몇푼 받아 먹으려다가 五千圓짜리 집 울라 가나부다. 나는 가우. 쯤든 무
해 두우.

鳳珠 어느날쯤 오실테어요?

家主 (慌急히) 문을 향하여 뛰어 나가면서(모뎌 글피. 모뎌 글피. 불이야! (다시 울

아서며) 여보 내 帽子 어디 갔소? (겨우 帽子를 찾아쓰고) 또 내 가방이 어
디 갔나. (慌々 매면서) 가방 가방 가방! 불이야! 하느님 살려주.

鳳珠 (갈々 웃으면서) 아 그앞에다 두고 못보십니까? (書籍을 집어서 整頓해놓는다.)

家主. 蒼蠅히 가방을 집어들고 上手로 뛰어 나가다가 大門 밖으로부터 鳳
珠를 부르며 슬며시 뛰어 들어오는 瑤玉과 마주쳐서 「에르머니」 소리를 지르
며 나가 자빠진다.

鳳珠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게) 에그 다치지겠네!

家主 (벌떡 일어나면서) 영 경찰거 우리집 다란다! 나는 失禮히우 불이야! (門

(148)

어디 집황 놈 덕을 시립 개아들놈이 있다.

鳳珠 그렇지만 돈이 미처 못된걸 어떻게 합니까. (哀願하는듯이) 오늘날 君往 幸

은니 未安하지만 이다음에 한번만 도와 주세요.

家主 (단을 부랴이되) 안되우 안돼. 어느 오라를 질놈이 돈환을 못받고 석달 열흘

이나 집을 저저 준단달요. 애벌! 그러기에 요전에 내가 무어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世上없어도 셋돈 해 놔야 된다고 그랬지!

鳳珠 그러지 않아도 걱정이 꽤서 아까도 말은 했답니다.

家主 (소리물 바림 지르며) 아 말만 하면 所用있소. 돈이 나와야지. 어! 이터다가는

안되겠군. (威脅하는 態度로) 세간부더 불어내야지. (帽子와 두루마를 벗어놓고

마루로 뛰어 올라와서 배! 불위에 糞穢等屬을 함부로 버려놓으며) 이진다! 무

엇 말라진거야. 셋돈도 못 내는 주제에.....

이때에 멀리않게 火鍾소리가 요란히 울린다.

家主 (귀를 기우리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불이 났나? (마당으로 뛰어 내려가서

담너머로 내다 보다가) 애! 이것 봐라 불이 났구나! 가만 있자. 저게 어디쯤 되나!

바로 宗橋앞인데 (정신을 하되) 애그! 그럼 우리집이나 아닌가? (消防 自動車의 警笛

(147)

했다가, 문득 몸을 들쳐 椅子에 와 앉아서 두손으로 턱을 괴고 月光에
어론거리는 나무 그림자를 시름없이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한다. 자물
개 한숨 쉰다. 一間

鳳珠 (忽然이 고개를 돌며) 에그 내가 精神없이 앉았네, 오일이야 말로 便紙를 마
자 찌야지. (몸속으로부터 封套를 꺼내가지고 그속에 들었던 便箋紙를 내어놓고 覽
間 읽어보고 나서 펜을 들어 잘못된 곳을 校正하며 마음을 조리는듯이 자조
자조 門간을 내다본다 雲間을 지나가는 기러기 소리가 웅숭히 들린다)

조금뒤에 家主 一 가방을 옆에 끼고 上手로부터 나타난다.

家主 (門밖에서 거친 목소리로) 애행! 셋돈 내오느라. (들어오면서) 主人제시요?

鳳珠 (急히 便紙를 封套에 넣어 몸속에 감추고 일어서며) 에그!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家主 왜 늦게 와서 걱정이요? 아무때라도 셋돈만 내구려!

鳳珠 저일을 어찌나. 主人어른이 오날도 또 어디를 나가셨는대요.

家主 그 主人이라는 이는 번초이 만날수가 없으니 웬일이요? 그때 그이는 돈 한푼

안 내고 남의 집에서 막 뇌장만 부릴 作定이 됩니까? 흥 경철거! 이럴려서야

(146)

쿠사탐—서로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웃는다.

琦玉 그런미 웨 또 남을 보고 웃어요?

鳳珠 先生님은 왜 웃으세요?

琦玉 나는 웃고 싶어서 웃지만.....

鳳珠 다른 사람도 웃고 싶어서 웃지요.

琦玉 아니 나는 이쁜 美人이 곁에 있으니까 웃고 싶지만, 그 다른사람이라는 이

는 어째서 웃고 싶을까?

鳳珠 (부끄러운듯이 슬쩍 고개 돌리면서) 아이 모릅니다.

琦玉 (다소곳이 숙이고있는 눈같은 무뎠을 어딘듯이 물었다보면서 정중하게) 모릅니다

요?

鳳珠 물라요.

翠椿 (門밖에서 큰소리로) 어복제 琦玉君— 잔사실 그만하고 어서 나오게.

琦玉 (깜짝놀래어 亦是 高聲으로) 어이 나가네. 자아 그럼 내 얼핏 갔다오리다. (숨

히 上手로 나간다)

鳳珠— 초연히 門옆에 依支하여 琦玉의 그림자가 머리로 사라질때까지 보고

(145)

琦玉 무얼 품 다녀 올걸?

鳳珠 그뻐 참 시장하지 않으세요?

琦玉 (머리를 흔들며) 아니 나는 조금도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鳳珠氏는 아마 몹시 시장할걸!

鳳珠 (亦是 머리를 흔들면서) 아! 그래요.

琦玉 (帽자를 벗으며) 자! 그럼 내일껏 잤다 오리다. (大門을 향하여 걸어 나간다)

鳳珠 (따라가면서) 그럼 일찍 다녀 오세요.

琦玉 (몇걸음 나가다가 문득 돌아서며) 그런데 참 휘휘한대 大門을 걸고 있구며!

鳳珠 (정그래 웃으면서) 글세 그런 念願은 말으세요.

琦玉 자아 그럼 내 일찍 다녀오리다. (또 몇걸음 나가다가 終是 戀戀함을 禁치 못 하는듯이 다시 돌아서며) 門을 꼭 걸고 있어야 돼요.

鳳珠 (若干 눈썹을 정그리며) 아이고 어서 나가보세요. 그이가 기다립니다.

琦玉 (그래도 어쩔 나는 참만해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걸. 두 어린아이를 江가에 들것 살구면.)

(144)

瑠玉 의 보게 남부끄러워. 다들 이야기나 하세.

이때에 밀리서 汽笛 소리가 울린다.

牽棒

(時計를 꺼내보며) 이키 이것 바라! 내가 精神없이 앉었네. (화비들 입을면서)

그럼 나는 新聞 配糧할 것도 좀 남고 해서 오늘은 그만 가려네. 그런데 참 자

제도 같이 나가세 그럼. 우리가 한가지 가볼 때도 있고.....

瑠玉

(따라 일어서면서) 가볼 때가 어디야?

牽棒

글세 나만 따라와 보지.

瑠玉

그렇지만 나는 그만 무려네. 時間도 늦고 길도 비포.....

牽棒

아따 또 별 걱정을 다 하네. 이런데 와서 누가 무어 좀치갈까봐 그리나? 자아

어서 나가세. (瑠玉의 팔을 끈다)

瑠玉

그럼 가만 있게. 내 옷을 입고 안에 좀 다녀 나갈테니 먼저 나가 기다리게.

牽棒

그럼 내 大門 밖에서 기다릴테니 빨리 나오게. (新聞을 끼고 上手로 나간다)

瑠玉, 房으로 들어가서 帽子를 쓰고 洋服저고리를 빼어입으며 안으로 불

어갔다가 조금뒤에 鳳珠와 같이 이야기를 하며 나온다.

鳳珠

(놀림이) 오빠 되시겠어요?

(143)

이렇게도 冷淡한 당신을 참아 참아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이야 말로 果然 열마나
바보입니까? 잊으랴야 잊을수 없는것!

아아! 이것이 사랑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드겁게 사랑합니다. 비노니 당신의 그 탐음한 카스를
밖에 못마른 나의 입술에 던져주소서. 그리고 당신의 그 마스한 품속에 사랑
에 주린 이몸을 꺼안아 주세요.

나는 決코 一時的이나 娛樂的으로 당신을 사랑하는것이 아니라.
永久的이요 絶對的이요 積極的이요 熱情的이요 獻身的으로 사랑합니다.

(氣백히는듯이 입을 딱 벌이면서) 야! 이 的이야말로 참말 宏壯 吽吽지근!
하구나! 그런데 여보제 이거 內이 이렇게 무더기로 쏟아지나?

瑠玉 聲외히이 코민 읽제. (便紙를 빼앗아서 찢어버린다)

瑠玉 (결결결 웃으며) 이것이야말로 萬國博覽會에 出品할 便紙인걸! 읍지 的만
은면 新式의 되늘출 알고, 참말 어지간히 건방진 제집애로군! 원 날보고 쓰
래도 이렇게 시큰둥 하제는 못쓰겠는걸! (다시 椅子에 앉으면서) 어! 참 사람
이 살라니까 별꼴을 다 보졌군. 그때 자네는 무엇이라고 答狀을 할텐가?

(142)

「白瑤玉氏 段이라. 鳳姬. 을 읽」 鳳姬는 또 누구구? 자네는 아주 러브가 수두
목 허이 그럴?

瑤玉 아니야. 「러브」가 아니야. 이리 내게 이리내. (때앗으려한다)

翠椿 (避해가면서) 가만 있게. 失禮지만 좀 보아야 하겠네. (高聲으로 朗讀한다)

애뜻한 젊은이의 눈물을 안타깝게도 자아내이던 시들 많은 봄의 얼굴도 어느듯 地平
線 저쪽으로 사라져 버리고. 버물가지에 피고터 노대 보르고 나무숲에 더운바람을
제촉하는 거룩한 여들의 神은 푸른 수뭍을 물아하늘 한점으로부터 가만히
과
만히 날아오나이다.

아! 룬노니 이피외

彩雲속에 徘徊하는 인질. 보다도 아름다운 마이 스원 하! 투 지어! 악천달에

공계 된 매꽃보다도 清高하신 우리 사랑이시여!

玉體가 健康하신지요?

이몸은 거룩한 당신외 恩惠아 때 날마다 날마다 울고 있나이다.

아! 이눈물은 누구 때문에 흐드나이하?

당신도 사람이지요? 冷血動物은 아니겠지요? 어찌편 그다지도 無情하시요!

(141)

地에까지 미치지 못했을것도 怪異치 않은 일일세.

琦玉 자기 修身齊家 治國平天下之術이 무엇인지 아나? 그리고 또 「말류스」의 人

口論을 볼것 같으면.....

率椿 (손을 저으며) 여보게 말류스고 소류스고 제발 듣기 싫으니 그까진 卓上空論

은 그만 두고 아까 그 이야기나 하자 하계.

琦玉 그럼 그러지. 그런데 말이지 그와같이 집안이 艱難해 놓니까 自然 근색한 일

이 많단 말이야. 첫째 食事로 말하자라도 조밥을 먹거던. 또 가끔 건너 뛰기도 하

고.....그때 놓나 鳳珠같이 富者집 閨中에서 苦生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라난

軟弱한 素質로 조밥을 먹어가며 井臼之役을 하는 불이야 어디 참아 앉아서 볼

수가 있단가. 그래서 할수없이 人力班을 끌기로 決心을 했는때, 자네가 아다시

괴 내음이 또 虛弱해 놓니까 어찌 골똥 싶지가 않네. 그러. 衫便이 이름

되었단말이지. 그러니 어찌 근심이 안되며 잠인들 오겠나?

率椿 (머리를 꼬더거리며) 아하 그렇제 됐더라! 어쩔는지 자네는 幸運兒일세. 나

같은면 人力車 아니라 동동 馬車라도 끌겠네. (헤! 불위에 놓인 便紙를 집으

면서) 이것은 또 어디로 온거냐?

(140)

아니? 들렸네. 들렸어.....

牽棒

아니 여보게! 어째서 文學이 꼬리잡탕 하단 말인가 응? 그것은 자네가 모두 지 藝術의 權威라는것을 모르는 소리야. 자아 물어보게. (팔을 뻗으며) 한 구력으로 唐나라 社稷을 깨뜨려버려던 一代의 豪傑 黃巢로도 한번 植致遠의 討逆의 檄文을 볼때에 놀래어 거꾸러졌으며 千古의 大作 杜甫의 民約論이 發表될때에 佛蘭西의 天地는 뒤집혔네 그럴. (興奮되어 얼굴에 힘줄이 서고 입가에 침이 고인다)

琦玉

이키 또 자네의 藝術 至上論이 나오시네 그럴! 하지만 그것은 몇世紀 前이야 길세. 주된것에게는 글을 보고 뜻을 觀賞할만한 感興조차 없는 法이니. 勿論 藝術도 不必要한것은 아니겠지만, 그때도 時務의 緩急과 先後라는것이 있게 그럴. 글세 當場 배가 고파서 죽을라고 걸떡거리는 客에게 몇百卷의 宗敎나 文學類가 必要하겠나? 한그릇의 밥이 必要하겠나? 가만히 생각을 좀해보란 말이야.

牽棒

응 자네같이 다만 經濟라는 至極히 작은 바늘구멍을 通하여 이世上 모든것을 보라고 하는 唯物主義의 近視眼的 觀察로서는 아직 藝術이라는 偉大한 境

(139)

에 수레서도 벌써 빵이라는 그것을 第一條件으로 是認하였다 그런 말일세. 첫째 어떠한 社會를 勿論하고 經濟라는 土壤가 完全치 못해 놓을것 같으면…… 이! 키 또 자네의 너저분한 經濟 講義가 나오시네 그러. (손을 저으며) 여보 제 듣기 싫이 듣기 싫어 (모으로 돌아앉는다)

琦玉 (웃으며) 이 사람은 經濟問題라면 독 蛇蝎같이 싫어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남의 言權無視일세. 자! 돌아 앉제. (의지로 돌려앉힌다)

率椿 나도 勿論 經濟라는것을 絶對로 否認 하는것은 아닐세. 다만 자네의 어쩔지 않는 說教소리에 머리가 아프니까 그렇지……

琦玉 글세 이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다 듣고나 말을 해. 가만……그러니까 結局 사람은 먹기만 爲하여 사는것은 아니겠지. 그러나 亦是 먹지 아니할것 같은것 같아갈수가 없네 그러. 따라서 이世上에 어떠한 神聖한 職業이라도 收入이라는 最終目的이 없어 놓을것 같으면 何等의 誠誠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지. 只수이라든 朝鮮안에 있는 宣敎師나 牧師 月給을 食할만 안을것 같으면 그야말로 큰 야단이 날것일세. 하물나 우리 醫師과 같이 經濟的으로 破滅에 가까운 社會를 조금이라도 붙잡아 보려던 자네같이 고리담담한 文學者의 貧弱한 骨골으로 될줄

(188)

率椿 음! 婦人이라니? 아하! 「나루초도!」 그럼 只今 그女子가 自네의 러브인

가? (일어나서 玆王의 손을 잡아 흔들면서) 야! 오네네도! 아 나는 그런줄

은 또 모르고 참말 自네에게 對해서 失禮 莫甚일세.

玆王 이 사람 신데이고 바늘데이고 앉아서 이야기나 들게.

率椿 (앉으면서) 그러서?

玆王 (頭緒를 잊은듯이 고개를 기우러며) 가만있자 내가 무슨말을 하려고 했던가?

음지 그런데 말이지. 요새 우리집안 經濟 狀態가 아주 말아니란 말이야. 내가

鐵工場에 들어가서 서무튼 일을 하다가 팔을 다치고 나온 뒤로는 生産行爲라는

것은 別로 없고 全部 消費된일세. 그러. 또 如干 關係 나부랭이를 좀 해 봤

대야 結局 勞力의 代價는 零이니.....

率椿 (반정거리는데도) 흥! 生産行爲나, 勞力의 代價나, 이거 어디 無識한 놈이야

알아들음수 있나! 참말 經濟學者이라 다르다. 그러서!.....

玆王 (답답한듯이) 자네는 恒常 그 經濟라는것을 蔑視하는것이 큰 病痛이네. 그게다

官尊商卑라는 색어진 觀念을 아직까지 못버린 까닭이지. 그래도 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못사느니. 사람은 떠므로만 살지 못 한다는 觀念을 두고 볼지라도

(137)

權을 바라본다。

瑤玉

(便紙를 들어 보다가 결근으로 슬쩍 權樞의 몸을 보고 주먹으로 깨! 눈을 「망」 하고 울리면서) 이사람! 자네 무얼 그렇게 보나?

權樞

(깜짝 놀라여 「어」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돌리다가) 이야! 그런데 이제 웬 일인가? 나는 도무지 까닭을 알 수가 없네 그러!

瑤玉

(便紙를 말아서 封套에 넣으면서) 이사람 까닭이요 무엇이요 대관절 앓거나 하

權樞

(앞으면서) 그女子가 只今 말하던 蔡鳳珠 아님이요? 그런데 이제 도무지 웬 생

瑤玉

이야! 나는 똑 공주에 瑤池仙境을 보는 것 같으니..... 자아 아까 내가 잠 못 잔다면 理由를 說明할게 물어보게.....

權樞

요새 우리 英게지멘트가 말이니..... 응? 英게지멘트라니?

瑤玉

그럼 우리 「미라이노 쓰마가」 말일세. 權樞 또 「미라이노 쓰마」라니?

瑤玉

아따 그럼 우리 戀人이 말일세.

翠椿 응 滿點일세。 그러나 殿正하게 評하자면 鳳珠라는 女子로 말하면 如花如月的

絶代佳人은 필자연정 幽閒貞靜한 窈窕淑女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니……

이때에 上手의 二開門이 고요히 열리더 鳳珠, 손에 편지를 들고 들어온다.

鳳珠 (瑤玉에게) 뭐 기다리셨지요?

瑤玉 (결 혀 앉은 채)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

翠椿— 놀래여「어」소리할 지도마 일어난다.

휘둥그백진 그의 臟腑은 차차 꿈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황홀해진다.

鳳珠 (당바닥에 떨어진 新聞을 집으며) 에그 오랄도 도 新聞이 왔네. 벌써 사흘째

누가 이렇게 몰래와서 新聞을 던지고 가요.

瑤玉 글썽. 그거 어떤녀석이 그러는지 한번 물어와서 무척히 손을 좀 내주지 세.

翠椿— 거의 機械的으로 얻어 있는 新聞과 갖비를 집어서 슬그머니 뒤로

감춘다.

鳳珠 (操心스럽게) 아무로 올라와서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게 默禮하면서) 失禮합니다

다. 이 便紙 보셔요。(恭遜히 新聞과 便紙를 遞! 붙위에 놓고 下手로 나간다)

翠椿— 마치 電氣에 맞은 사람같이 어리둥절하여 밀지니 鳳珠의 나가는 뒷貌

(135)

참고 맑은 하늘가에 無數한 별들은 즐림듯이 잠박이떨계 白雪같은 구름속으로
까웃이 내다보는 두렷한 望月 같으니.....

翠椿 그대 그것은 또 무슨 意味로 하는 말이야?

琦玉 응 보름달과 같이 完全 無缺하다는 뜻이지.....

率椿 어떠한것을 가리켜서 자네는 完全 無缺하다고 하나?

琦玉 자아 그럼내 懈釋을 함께 들어보게. 이世上에 所謂 美 라는것은 말이지 特別

히 우리 人類의 美에 있어서는 大概 두가지 種類로 區別할수가 있던 말이지.

即 外的美와 內的美, 바꾸어 말하면 肉的美와 靈的美, 이것을 다시 解剖해서

말하자면 假令 고은 恣態라는가 아름다운 音聲과 같은것은 外的美라 할수가

있고 또 그와 反對로 부드러운 德性이라거나 烈烈한 節介와 같은것은 內的美

라고 할수가 있던 말이지. 그런데 이世上에는 이 두가지를 具備한 사람이

드물거던. 即 얼굴이 좀 특사하다는 者는 大概 마음성이 곱지 못하고 또 마음

성이 곱다는 者는 大概 容貌가 薄色이란 말이야. 그런데 鳳珠라는 女子로 말하

면 이 두가지를 兼全했거던. 即 南原府使 文字로 안팎으로 美人이란 말이지.

그런故로 完全 無缺하다 그런말일세. 어떤가?

(184)

홀 어떻다고 생각하나?

瑠玉 자네가 未嘗不 보기는 바로 보았네.

率椿 (신이나서) 아 바로보고 말고 그 容貌라든지 行動이라든지 도무지 한갓도 나

무랄것이 없느니. 첫째 그 얼굴로 말하면 美妙하고도 귀임스럽지.....

瑠玉 아무렴 態度로 말하면 음침하고도 端雅하니.....

率椿 學識으로 볼지라도 高等 女學校 卒業程度요.....

瑠玉 나이로 말하면 꽃이 필때이요.....

率椿 아마 性質로 본다면 多情하고도 熱烈할걸.....

瑠玉 아음 貞淑스럽고도 연삼삼하지.....

率椿 그거 자네도 美人評을 제법 하네 그려!.....

瑠玉 아따 이사람 제법이고 무엇이고 인제는 總評을 해 보게.

率椿 그럼 그리지. 자아 내 評을 할게 물어보게. (손짓으로 形容을 하면서) 아침해

가 울연히 떠오를제 말이지 겨울같은 湖水우에 방긋이 웃고 있는 이할 머금

은 蓮꽃 같으니.....

瑠玉 이사람 그것은 오히려 不足하이. 자아 내가 評을 할게 물어보게.....

(133)

그런지 別로 어떤지 몰랐더니 目前에 社會에서 物品을 팔고 있기에 가까이 가서 仔細히 보니까 참말 相當하네. 그러. 활짝 핀것이 아주 絶世美人이 되었단걸! 그때 자네는 그런 훌륭한 麗姬를 옆에다 두고 戀愛도 좀 못걸어 보았던 말인가. 그걸로 보면 자네는 아주 拙丈夫야.

璿玉 흥! 그렇지만 나같은 無資格者로서야 어떻게 敢이 그런 女子를 일러 부수가 있겠나!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별 치어다 보기지. 그것보다도 자네나 술을 交際를 좀 해보지 왜그랬어.....

率椿 (머리를 흔들면서) 여보게 어림없네 어림없어.....: 如于 演壇에 올라서서 亂棒歌나 하고, 男子 히야까시나 하려 다니는 너저분한 女子로 알았다가는 큰로 다 치겠네. 무어 어름에 들 붙여보기야. 나도 첫불타 말을 좀 붙여 보려다가 생코 물 着實히 메었는걸! 하하하! (拈活하게 웃는다.)

璿玉 음시 살살하게 굴던걸세. 그러?

率椿 아 살살하고 말고.....

璿玉 그버나 무어 자네의 멧심을 가지고 어르! 어름 좀 일러보지 왜.....

率椿 여보게 말 말게. 果然 普通 女子와는 크게 다르네. 그때 대판걸 자네는 그女子

(182)

璿玉 그런 어디 좀 그래볼까。(말삼하 苦笑을 미금는다)

率椿 (活潑하게) 그때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 發見이나 했나?

璿玉 (疑訝한듯이) 發見이라니?

率椿 찾았느냐 말일세. 찾았어.....

璿玉 찾기는 무엇을 찾아?

率椿 허허! 이사람아! 암견한 處女말야.

璿玉 으응 암견한 處女! 그때 자네는 그동안에 하나 보아 무었나? (일마름 快活 해진다)

率椿 없네 없어。如干 있다는것은 (손가락을 꼽으면서) 모두 진방지고, 야살꽃고, 말 팔양이, 불여우! 그때 그까짓것들을 무었에다 손단 말인가!

璿玉 (웃으면서) 그렇지만 설마 하나도 없을라구.....

率椿 (갑자기 생각난듯이) 그런데 참 여보게! 자네 있던 그 蔡氏집 말이 있지?

鳳珠라는 女子말일세。只今 어떻게 됐누?

璿玉 어떻게 되진 어떻게 돼 그때로 있지。

率椿 구렁 아리 約婚한게도 없단말이지! 그런데 그前에는 먼 빛으로 일찍 보아서

(131)

率樁 그런데 얼굴이 말뚝되게 瘦瘠했네 그때? 勿論 자네의 性質이니까 價値도 되

... 겠지만 그까진 일로 얼굴까지 들릴것이야 무엇있나. 나도 요전에 어느 친구의

게 자네의 事情을 大綱 들었네 마는 그게 다 一時 橫厄일세. 언제든지 仲實

될때가 있겠지 설마. 사내子息이 이世上에서 살아가자면 그까진 일 씬은 恒茶飯

으로 알아야 하네.

瑠玉 (더욱 沈鬱해지며) 무어 그럴분이 아니야. 요제 나는 참말 말 못할 근심이 하

나 생겼네. 너무 心虛가 되어서 밤에 잠도 변수히 못한단 말이야.

率樁 이진참 宏壯한 근심인 貌樣일세 그러. 어디 그 理由나 좀 들어보세!

瑠玉 무어 누구에게 말할 일도 못돼.....

率樁 흥! 秘密인 모양일세 그러. 何如間 나는 자네에게 忠告할때 하나 있네. 자네

는 너무나 神經質이 돼서 못쓰겠네. 이다음부터는 그 말때 없는 근심과 걱

정은 一切 버리게. 그리고 나처럼 이렇지 허허! 웃어 가면서 一生은 樂觀으로

좀 지내보란 말이야.

瑠玉 그럼 突然히 슬픈일을 보고도 히히! 웃고 지내란 말이지? 미친놈처럼.....

率樁 아무렴 그렇지. (點爾한다)

(130)

瑠玉 (倣然이 顔色이 俄然히 지막) 아! 여보게! 자네는 아예도 모른다! 나는 盜

賊音일제 盜賊音! 그럭도 자네는 나를 親舊로 생각했 줄수가 있겠나?

翠格 그것은 도 무슨 뉘한 소리야. 盜賊音이란 것은 法律上 問題요 자네와 나 사이

는 友誼的 關係가 아닌가. 盜賊은 盜賊이요 親舊는 和舊이지 무슨 相關있나.

念慮말게 아무리 자네가 은 世上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네의 옛 벗 林

翠格이는 자네를 저바리자 아니 할것일씩.

瑠玉 (感激하여 翠格의 손을잡이 힘있게 흔들면서) 참말 感謝하이. 자네는 나의 唯

一の 同情者일씩.

翠格 아따 그런 인사치레는 그만 두고.....

瑠玉 아냐야. 인사치레가 아니라 眞情으로 나는 자네의 그 뜨거운 友情에 感謝하

네.

翠格 (환미를 벗어 놓으면서) 인제는 제법 더워지는걸!

舞臺가 차차 어두워지며 떠오르는 月光이 어설피우며하게 미친다.

너! 數堂으로부더 저너 鐘소리가 구슬뜨게 울며 온다.

瑠玉, 일어나서 簾幕의 불을 켜 놓고 다시 앉는다.

(129)

玊玉 자네 이거 참 오래간만일세. 그러! (손을 잡고 마루로 올라가서 椅子를 밀어 놓으면서) 이리 앉게. 이리 앉어.....

率椿 (新聞을 내려놓고 椅子에 앉으면서) 그래. 자네는 친구도 때어 버리고 이렇게 혼자 숨어서 팔긴가?

玊玉 (亦是 앉으면서) 참말 자네에게는 未安하야 마는 不得된 事情이 있어서 그랬네. 容恕하게.

率椿 그래. 대판질 어떻게 돼서 여기와 있게 되었더람?

玊玉 여보게! 그동안 蔡氏집에서 나온뒤로 여태까지 지내온 일을 생각하면 참말 이에서 신물이 나네! (辛酸한듯이) 그 어느 눈보라 몹시 치던날 밤중에 말일세. 밥값 問題로 몸을 불이고 있던 下宿에서 大 昌皮를 當하고 쫓겨났네. 그러. (우는 말로 泣려다가 고만두고) 그래서 大字 그대로 絶命 絶命, 進退 維 谷之中에서 갈바를 모르고 헤매다가, 그래도 아주 죽지는 말라는 運命이었던지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집을 얻어가지고 요새는 自炊를 하고 지내는 中일세.

率椿 그런데 學校는 이젠 그렇게 오랫동안 缺席을 하고.....

말해 알까? (도 暫間 생각하다가) 음다 運程가 있다. 먼저 끌겠나 못 끌겠나 實習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구?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음지 그게 그럴듯한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나 어떻게 實習을 해 볼구? 무엇으로?... (답답한듯이 물로 내뿜가서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빙빙 돌아다니다가 침하물에 놓여 있는 제작 한머리를 물어보며) 음지 이게 됐다! 이! 키 이만하면 人力車 위에 一百五十斤짜리 사람 하나 탄 폭은 단단히 되겠는걸! 가만 있자여 기 實習을 이겼다. 已往 實習을 해 볼때면 좀 무욕히 해 봐야지.

안으로 들어가서 實習을 가지고 나올때에 搖鈴소리가 나며 新聞配達夫 林 率稱, 大學制服에 학비를 거입고 新聞을 메고 上手로부터 나타나서 門을으로 新聞을 던지고 돌아선다.

琦玉 (人氣에 머리를 돌리다가) 오 新聞! (急히 따라나자면서) 여보 여보! 우리 집에는 新聞을 사람 없소.

率稱 (돌아서다가 말하는소리로) 요! 琦玉이!

琦玉 야! 率稱君 아년가?

率稱 (琦玉의 손을 잡아 흔들면서) 하우우 슈우.

(127)

萬一 人力車를 팔것 같으면 한달 收入이 적어도 五十圓은 되었다? 그러면
 그돈 五十圓 중에서 (손가락을 꼽으면서) 十圓은 집세 주고 十圓은 쌀 팔고
 五圓은 나무 사고 五圓은 옷해 입고 또 五圓은 鳳珠 學費로 쓰고 十圓은
 雜用이요 그 나머지 五圓은 貯金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거 豫算이
 꼭 틀어 맞은구나! 응 별수없다. 人力車 고는것이 得策이다. (좀 동안을 의
 어서) 그러나 이거 堂々한 詩人으로 人力車 팔기는 좀 쟁의한걸! (머리를 흔
 들면서) 아니 그렇지 않지 民은 以食 爲天이요 勞動은 神聖하나까... (點頭
 하면서) 그렇지 누구든지 첫째 먹어야지. 이世上에서 떠드는 무슨 宗教이니, 藝術
 이니 하는것도 甚至於 사랑까지라도 먹어야 된다. (주먹을 부두워며 힘있게)
 이것이 眞理다! (暫間 聲이들 띄어서) 그러면 結局 問題의 歸着點은 經濟로
 구나 經濟... (또 한참 생각하다가 팔을 걸고 들외다보면서) 그러나 나같이
 虛弱한 몸으로 그 힘드는 人力車를 팔수가 있을까? (머리를 흔들면서) 안되
 지 안개 學校에서 筆記만 좀 오래 하도 볼세 팔이 아픈디 그 힘드는 人力車
 를 어떻게 팔수가 있나. (氣色이 초침해지며) 그러면 이것도 또 失敗로구나!
 그렇지만 (다시 주먹을 부두워면서) 사대자식이 그 따위것을 팔! 가만 있자 어

(128)

鳳珠 그림 손으로 눈물 가리세요. 그림도 떠들썩 피아세요.

琦玉 아음 그림지. 자! (손으로 눈물 가린다.)

鳳珠 (일어나면서) 가만히 좀 저세요. (흔히 편을 물어 鳳稱紙에 글씨를 써서 때! 불

위에 놓고, 다들 걸로大門을 向하여 뛰어나가면서) 인제 그만 매세요. (上手로

사라진다.)

琦玉 (손을 피고 일어나면서) 그림 피도 무엇할찌 놓았어! (原稿紙를 들고 읽어본

다) 暫間만 기다려주세요. 동무의 집으로 돈을 취하러 갑니다. 저녁살이 없

어서.....

(忽然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응! 저녁살이 없다! 예에 참말 寒涼하구나!

實하게 자란 鳳珠를 조박을 먹이다니 어떤 鳳珠를 받을 줄기다니! (안타까운

듯이 주먹으로 때! 불을 치면서) 이제 원 말이 됐나! 가만 있거다.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답답한듯이 마루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증얼거린

다) 身分이 盜賊이니 제법 무뎠한 職業은 求財불수 없고, 만주장사를 다시 하

자니 그것은 敎入이 뭇뎠 못되고.....가만 있자! 人力車를 고는것이 어떨구!

(125)

鳳珠 (눈을 내리깔은채 들릴듯 말듯이) 先生님의 안해지 누나의 안해예요.

琦玉 응? 나의 안해라! 야! 이진 참 들린중 한가운 말이로구려. (뛰어 일어나서)

鳳珠의 두손두발을 꼭 잡고 어떤듯이 물어다보면서 큰 소리로 (그때 나의 안해란 말이지.)

鳳珠 (얼굴을 품게 정그리던) 놓으세요. 이것을 놓아 주세요. (가만히 琦玉을 뿌리

치자 슬피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피! 불우에 꼭 엮인다)

琦玉 (방그태 웃으며) 그런데 또 그말 한마디 했기로 그렇게 부끄러울것이야 무엇

있어요. 자 이제 그만 머리를 들어요.

鳳珠 하예요.

琦玉 싫다니! 그거 디영 민하겐 군다. 폐계원 비벨 백서 있다. 그리지말고 어서

손을 떼라우요. 을자참 오늘이 末日이겠다! (鳳珠의 앉은 椅子를 흔들면서)

어서 밤해 먹고 禮拜堂에 갑시다. 어서 어서.....

鳳珠 (눈을 흔들면서) 아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일어나요. 자꾸 남을 그렇게 물어다

보시는걸 무어.....

琦玉 워 부끄럽진 무엇이 부끄럽담. 그럼 내 눈을 감고 있지.

(124)

면 저일을 어떻게 해요. (근심스런表情)

琺玉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뼈가 녹는듯 한 哀傷的語調로) 아! 여보시오

鳳珠氏! 왜 이 못생긴 琺玉이를 내버리고 華麗한 本집으로 돌아가지물 아니

하시려우?

鳳珠 (亦是 언짢은듯이)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참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심

심해요. 나는 인제 암만해도 집에는 안 들어 간대니깐요.

琺玉 (感動하여) 우? 암만해도 집에는 안들어 가겠다! 그것은 어째서? 이 苦生을

하면서 무슨 樂이 있겠다고?.....

鳳珠 그럴 남의 안해가 되어서 그만 苦生도 아니 할까요 무어.....

琺玉 응? 안해! (사랑스런듯이) 鳳珠氏는 아직도 玉같은 處女인미 안해라니 누

구의 안해?

鳳珠 (부끄러운듯이 外面을 하면서) 아이 모르겠습나다.

琺玉 (多少 快活해지며) 모르다니! 自己가 한 말을 모른다는 그런 無責任한 말이

어디 있어요. 當然히 그러지말고 어서 對答을 해 봐요. (多情스럽게 들여다 보며

거의 속살거리는듯이) 그때 누구의 안해!

(128)

琦玉 아마 그렇지.

鳳珠 (근심스러운 表情으로) 저어 主日날은 빛 받으려도 못 오는 法이지요?

琦玉 그야 믿는 사람이면 모로되 普通 사람이야 그럴수가 있나. 그런데 警眼間에 그

것은 어찌서 물어요?

鳳珠 아니 글세 말이애요.

琦玉 아니 글세라니! 그래도 까닭이 있겠지.

鳳珠 까닭은 없지만.....

琦玉 까닭은 없지만.....어떻단 말이애요?

鳳珠 저어 그고저께요.....(슬쩍 琦玉의 눈치를 보면서) 아이 참 이다음에 들으셔
요.

琦玉 (焦燥하여) 이다음이라니 그러지 말고 어서 하던 이야기를 마쳐야지.

鳳珠 (마게 못하여) 저어 그고저께 先生님 안 제실때 집임자가 와서 貰돈 안낼때면

숨 때 가지고 나가라고 고래 고래 소리들 지르면서 막 強制로 남의 팔을

잡고 大門밖까지 나가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할수가 없어서 제발 오늘 한번만

다시 와 달라고 간신히 사정을 해서 보냈는데.....萬一 그이가 또 오

(123)

琦玉 고만 구다니! 어서 그리지 말고 시원하게 말한 해 봐요.

鳳珠 저어 물을 길어가지고 오는데요. 뒤에서 어떤 녀석이 히사시까미가 물을 다

길는다고 히야까지를 하면서 물을 던지겠지요. 그래서 분깎에 튼을 해 주라고

물이다 보니까 여터 녀석들이 손벽을 치면서 깔깔깔 웃고 있지를 않아요. 그

때서 어떻게 부끄러운지 다들박질로 뛰어들다가 고만 물등은채로 넘어갔어요.

(말을 마치자 고개를 숙이고 치마끈을 물어 뜯는다.)

琦玉 (눈살을 찌푸리며) 음! 원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러기에 나부터 朝鮮

놈이지만 우리 朝鮮 人誰이야. 말로 남에게 壓制를 받아도 싸단말야! (寒心한

뜻이) 에에! 언제나 精神을 좀 차리려는구!.....

그러나 如何間 治療라도 좀 해 봐야 되겠구려.

鳳珠 젠 참어용. 인제 거진다 나았는데요 무어..... 一問一

琦玉 (길게 한숨을 쉬면서) 鳳珠氏!

鳳珠 메?

琦玉 아아 靛辛스러운 살림 살이가 매우 괴롭지요?

鳳珠 (시름없이) 아! 예요. (暫間 痛한을 피어서) 저어 오늘이 主日이지요?

(121)

琇玉 (急히 일어섬) 응! 이거 鳳珠의 목소리 아나! (門앞까지 뛰어나가서 물

● 물을 받으너) 자아 놓아요. 내가 들고 들어 갈터이니.....

鳳珠 가만히 제셔요. 같이 들고 들어 가세요.

琇玉 어서 놓으라니까 그까짓것을 같이 들고 들어갈껀 무어 있담. (물통을 받아 들고

下手로 나갔다가 조금뒤에 다시 들어와서 椅子에 가 앉는다)

鳳珠 (치마에 물은 물을 대강 털고 亦是 마루로 올라가서 琇玉과 마주 앉는다)

琇玉 (물고르미 鳳珠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애처러운듯이) 그 품던 손등이 상일하기

에 몰라보게 거치러졌구려! (물레는 소리모) 예구 그런데 그 손등이 붓지 않

았소? 어디 좀 봅시다. (손을 잡으려한다)

鳳珠 (재빨리 손을 잡추너) 아니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琇玉 아무렇지도 않다니 적지아니 부너나온네. 왜 어디서 넘어졌소? 아마 몹시 저릴걸?

鳳珠 무어 別로 저리지는 않어요.

琇玉 그렇지만 藥이라도 좀 발라보지 왜. 대판걸 어떻게 하다가 그랬단말요?

鳳珠 (無心히) 아까 아침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오는데요. (暫間 머뭇거리다

가) 아이 그까짓 얘기는 하면 무익합니까. 또한 두렸습니까.

살그머니 그대를 한아 가지고
 하늘가에 초르는 구름에 세여
 자유롭게 자유롭게 홀* 날아서
 自由樹 우거진 南쪽 나라로
 고히 고히 모셔 가리다.

瑤玉

(會心の微笑를 머금으며) 그때도 그럴듯이 됐거던! 이만하면 어따가 내 놓은지
 버젓하단말야. 가만 있자 어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입속으로 다시 읊다가
 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음! 그렇지! 내가 짓기는 했다 마는 未嘗不 傑作
 이다! 가만 있자 (손가락을 꼽으면서) 율스도이 기!에 詩人 文士! (무릎을
 탁 치면서) 읊다 그렇다! 나는 詩人이다. 詩人이라도 如干 너저분한 詩人이
 아니라 堂*한 詩人이다.

이때에 上手로부터 鳳珠, 불용운 물고 나타난다. 앞치마가 물방울로 若干
 더러웠다.

鳳珠

(승운 활짝거리며) 大鳳珠까지 와리! 先在남!

(119)

그윽하고 寂寞한 山谷사이에

潔白하게 홀로된 百合이더라.

(二) 그대가 아름다운 꽃이라 하니

이몸은 變하디 나비가 되지요

그리하여 숲속에 새소리 나고

꽃가지 봄바람에 한들 저털제

외고도 보드라운 그대의 땀에

달콤한 키스를 드려 보려고

아실랑 아실랑 기억 들지던

오! 香氣롭고 따스한 그대의 몸에

가만히 가만히 품어 주소서.

(三) 그리고 山間에 가을이 오리라

너무나 좁은 가슴 태우지 말어요

만일 誰가 울이 온다고 보면

가볍고 포근한 나의 나뭇잎

(118)

있으므로 舞臺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通行하는 板子門만이 있을뿐이다.
背景으로 樹木이 우거진 山麓과 드문드문 西洋式 鍊瓦葺 住宅들이 보인다.
숲사이에 세 소리가 어지러이 들린다.

幕이 열림중 白瑠玉, 피·플. 앞에 앉아서 閑暇히 볼된다. — 間 —
무부장사의 무부 의이는 소리가 閑暇히 볼된다. — 間 —

瑠玉 (정음) 단지고 기지개를 키면서) 어디 인제 한번 물어볼까! (정음) 온는다)

꽃을 보고서.

(1) 오 — 그딴 꽃이라지요?

꽃을 보고서 의의권 꽃이라지요

그딴꽃 이쁜상에 꽃의 비하면

무엇이라 볼때 봐야 할줄는지요

담머리의 웃고 있는 한타이랄까

바닷가에 뜬제된 海棠아랄까

아니라 아니라 그것도 아니라

(117)

第三幕 第一場……………艱苦

前幕으로부터 約 四個月後. 첫 여름 夕陽.

멀지않게 社稷松林이 내다 보이는 어떠한 閑寂한 洞里. 白瑤玉의 집.

山기슭에 의따로 떨어져 있는 頽落한 古屋이다.

上手는 길로 通한 一閑門이 있고 그 다음으로 漣하얗 무너져가는 토담이

있으며 담 内外에는 아까시야等 雜木이 우거졌고 그 사이로 門밖 道路의

一部分이 보인다.

담안은 마당—마당 正面으로 單間房과 마루가 있고 마루 中央에는 古物인

듯한 硯·불과 木造椅子가 두개, 硯·불위에는 書冊 硯·프. 文房具 등이 벌려

있고 房門은 방앗이 열렸는데 間수가 떨어져진 壁위에 걸린 낚은 蓑笠帽과

洋服이 보이며 此外 一般으로 艱難한 家庭에서 볼수 있는 器具等屬이 適當

히 벌리어있다.

下手 右便으로 꺾이어 안房과 부엌이 있는 모양이나 이것은 工前에 各 집

살림을 하기 위 하였음인지 마루 一部와 마당까지 어울려서 板막이 板子가

(116)

前幕까지의梗概

實業家 蔡容臣의 집의 몸은 불이고 있던 白地天은 戀愛關係의 葛藤으로 말미암아 그집에 出入하는 貴族 閔潑基의 詭陷을 입고 蔡氏집에서 쫓겨나와서 만주를 팔아가며 備儀이 苦學을 繼續하던中 어느날 밤에 食價問題로 下宿에서 逐出을 當하였을뿐 아니라 閔潑基의 끊임 없는 中傷과 陰害로 因緣하여 學校에서 退學을 당게 되자 落望과 悲觀이 其極에 達하여 一時는 厭世的 自殺까지 行하였으나 此亦 斷念하고 머리위에 다쳐오는 모든 屈辱과 困窮中에 生路가 無하여 어찌할 줄 모르던차에 黑暗裡에 明星과 같이 突如에 나타난 蔡氏집 養女 鳳珠의 純眞한 獻身的 사랑에 感激한바 되어 마음속으로 저절로 世波와 다시 싸워보기를 굳게 盟誓하고 必야호로 情熱이 불붙는 두 靑春 男女는 微弱한 힘을 서로 합하여 가난하나마 따뜻한 家庭을 이루어보게 되었던 것이다.

(115)

鳳珠 따라 가지요.

琦玉 따라 오세요? (말소리가 멀린다)

鳳珠 따라 가지요.

琦玉 이 집도 없는 苦學生을요? 더러운 盜賊을요? 後悔가 없겠어요?

鳳珠 (울면서 다만 고개만 까닥거린다)

琦玉 (感激함이 極하여 부르르 떨리는 팔로 덤색 鳳珠를 겨안으며) 오! 鳳珠氏!

鳳珠 (琦玉의 가슴에 폭 안기며) 아! 琦玉氏!

피부는 눈 속에서 熱淚에 젖은 두사람의 눈과 눈!

달콤한 悲哀였을까?

애달픈 歡喜였을까?

—— 急히 幕이 나린다 ——

(114)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오. 당신은 財産家의 舍姪이지요. 玉 같은 處女이지요. 그러나 나는 苦學生—아니 盜賊놈이올시다. 집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을 품이 愴하여 말끝이 흐트러진다)

미—르티서 夜警꾼의 목욕의 소리가 들린다.

鳳珠 베네. 그런줄도 알아야 벌써... 누가 언제 모른겠어요.

瑠王 알면서 왜 그러세요?

鳳珠 (더욱 激하여) 알지요. 알어요. 그렇지만 저는 禽獸가 아니에요. 사람이예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달다 하여 생키며 쓰다 하여 벨을수가 있겠습니까? 여보시오! 그것이 果然 옳겠어요? 옳거든 옳다 하십시오.

舍姪이요? 處女요? 그까짓게 다—무엇이예요. 盜賊이요? 苦學生이요? 그러면 어때요. 나를 그런 女子로 아셨습니까? 그런것을 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십시오. 가실때가던 어서 가시오. (또다시 轟々 느껴면서) 아아! 나는 나는...

..... 또한 죽어버릴테야.....

瑠王 (기외 自割을 할뜻이 한걸음 물어서며) 그러면 참으로 나를 따라 오시렵니

가.

(113)

는 사람이 어리석지요. 믿었던 사람이 바보예요. 바람앞에 불리는 갈매깃 같은 이 사람은 人心을 어떻게 믿어요. 더군다나 男子의 마음을……(또다시 좀 느끼며 말을 이루지 못한다)

瑤玉 (抑鬱함을 이기지 못하는 듯이) 아 여보시오! 너무나 그렇게 誤解하지 말으세요.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저! 높은데 제신 하느님이 보고 제실것입니다.

鳳珠 (急한 語調로) 아니예요. 아니예요. 거짓말이에요. 누가 도속을 잘 알고……:그래요. 저는 父母도 없고 親戚도 없는 보잘것없는 孤兒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예요. 孤兒니까 天痴니까 어서 어서 버리고 가십시오. (모으로 돌아서서 하염없이 느끼면서) 아아! 나는 나는……:고만 죽어 버릴때야.

瑤玉 (懺悔함에 胸臆이 거의 맥히는 듯이) 아! 여보시오 鳳珠氏! 이 瑤玉이도 사랑이슬시다. 사랑인 以上에야 왜 드거운 눈물인들 없었습니까? 타오르는 熱情인들 없었습니까? 그러나 보시오! 저! 마음에 되는 梨花나 가을에 되는 黃菊花나 다 같은 꽃은 꽃이지요? 내가 鳳珠氏를 單純한 愛情으로 사랑하나 또는 이름 다른 戀愛로 사랑하나 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까? 글세

(112)

鳳珠 여보시오! 저를 그런 女子로 아셨어요? 그다지도 理解를 못해 주십니까? 참 말 그러실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도 너무도 야속하고 無情하셔요.

琦玉 (다시 돌아서며) 내가 無情합니까?

鳳珠 네. 無情하지요. 無情하지요. 惡魔가 몰서거리는 그곳에다 依支없는 저를 두고...

... (또다시 흠뻑 느끼다가 눈물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여보시오! 제발 그리

지 마시고 어디든지 데리고 가 주세요. 아무런 어렵고 괴로운 곳이라도 辭讓치

않고 따라가지요. 天竺이라도 따라가고 地獄이라도 따라가고.....

琦玉 그렇지만 그것은 안됩니다. 자아 밤이 늦어가니 어서 돌아가시지요 나는 잡니

다. (決然히 돌아서서 피보는 눈보라 속으로 참아 떨어져지지 않는 발걸음 한 걸

음 두걸음 옮겨 놓는다.)

鳳珠 (애물 끊는듯이) 그럼 참으로 가지렵니까?

琦玉 가지요.

鳳珠 혼자 가지요?

琦玉 그럼 어찌합니까? (다시 돌아선다)

鳳珠 (忽然히 히스피릭 해지며) 네. 가십시오 가십시오. 가실때거든 어서 가지요. 밀

(111)

鳳珠 (突然히 고개를 돌면서) 저는 이자리에서 決心했습나다.

琦玉 (눈을 크게 뜨며) 네?

鳳珠 인제는 만나 보였으니까 집에는 다시 아니 돌아가기로 決心을 했어요. 已往

이地境이 된 以上에는 죽더라도 같이 죽고 苦生을 해도 같이 當하고.....(다

시 느낀다. 私情없는 눈보라는 속이고 첫는 머리위에 가득히 쌓인다)

琦玉 (寒心한듯이) 鳳珠氏! 글세 왜 그런 철업는 소리를 하셔요 네. 이世上은 아

비지의 집과는 다릅니다. 피로워요. 슬피요.

鳳珠 (激昂하여) 피로워도 좋고 슬피도 좋지요. 저는 富貴도 싫고 榮華도 싫습니

다.

琦玉 鳳珠氏! 그것이 眞情입니까? 그렇나 여기에 서있는 琦玉이는 옛날의 琦玉이

와는 다릅니다. 인제는 아무 希望도 없고 光明도 없어요. 이자리에서 나를 斷

念해 주실수는 없겠습니까? 鳳珠氏는 處女올시다. 아직 人生이라는 洗禮를 받

지 못하신 處女예요. 苦痛이라는 意味는 아시지만 實地로 當해보지 못하신 處女

예요. 이世上은 피로습니다. 자! 어서 돌아가시지요. 나는 가겠습니다. (만주께

박을 지고 돌아선다)

(110)

鳳珠 (瑤玉의 容貌樣을 有心히 바라보다가) 여보셔요! 失禮을시다 마는……(머뭇거

린다)

瑤玉 (물아서며) 네?

鳳珠 (선뜻 瑤玉을 알아보자 반가움이 極하여 와락 앞으로 달려들며) 아! 先生

님!

瑤玉 (놀래어 急히 帽子를 벗다가) 오! 鳳珠氏!

두사람 | 感慨無量한듯이 無言中에 서로 물고림이 바라본다.

鳳珠 (잔연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저게 웬일이세요?

瑤玉 | 말없이 기르게 한숨쉬며 만주계약을 내리 놓는다.

부르짖는듯 한 바람소리와 같이 눈보라가 다시 날리기 始作한다.

鳳珠 (怨望하는듯이) 그런데 어찌된 그다지도 야속하셔요. 편지 한장을 안해 주시고……

(手巾으로 얼굴을 가리고 涕泣하면서) 그고저께 石硯어범한때 만주계약을 지시고

監獄앞으로 지나가시드란 말을 듣고……(목이 메여) 말을 이르지 못한다)

瑤玉 (무엇이라 形容키 어려운 感情에 前後를 잊고 한참이나 茫然히 섰다가 비로소

인망한듯이) 鳳珠氏! 우지 마셔요. 여기는 길까지올시다.

(109)

石琬 (威勢를 보이며) 아무렴, 紳士라도 如干이만 저만한 紳士가 아니야. 驚々한 庶

一族—的 紳士라— 그런 말이야. (댄수댄수한 수염을 어루만지면서) 요섯살로

말하자면 잔도로만— 자 英辭하시는것만 보지. 紳士가 아니신가?

鳳珠 (한참이나 세사람의 騷動을 보다가 앞으로 가서 石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런

메 네가 누구냐?

石琬 (질색을 하여 慌忙히 帽子를 벗으면서) 아이구— 작은아씨— 이제 웬 일이십니

까?

鳳珠 (웃으면서) 그때 내가 驚々한 紳士란 말이지?

石琬 (恐縮하여 머리를 함으며) 아니올시다. 그럴理가 있습니까.

鳳珠 (正色하되) 술을 취했으면 집에서 잠이나 잘것이지 길로 다니면서 이게 무

슨 行惡이야. 어서가!

石琬 (허리를 굽을거리면서) 네, 잡지요. 여보게 秋月이— 잡네. (돌아서면서) 에에!

二十七年만에 紳士노릇 한번 하다가 고만 코가 납작해 지는구나! 昌皮莫—甚也

보다. (秋月과 한가지 上手로 나간다)

琦玉, 머리를 숙인채 만주께작을 지고 돌아선다.

(108)

秋月 (石魂을 치어다 보며) 異常도 하지! 그런데 만주장사가 왜 얼굴을 가릴까?

(갑자기 생각난듯이) 옳지 참 그건게로군!

石魂 무엇이야 무엇이?

秋月 왜 그에게 저녁에 우리집에 와서 내 구두 훔쳐가던 만주장사 말이예요. (瑠玉에게) 바론대로 말해. 웅남 딱지 말고.....그에게 저녁에 紅把洞 거기서 內

外酒店에 와서 만주 관 일이 있지? (말을 구른다)

瑠玉 (더 참을수 없는듯이 무초리를 흔여) 이 사람의 生血을 빨아먹는 妖惡한 賤婦

야! 아무런 오할날 우리 苦學生들이 돈이라는것이 없으므로 이 社會에서 無限

한 賤待를 받는다 마는 나같은 더러운 제집의 동물은 구두를 훔쳐갈 우리들이

아니다. (와락 秋月의 앞으로 달려든다)

秋月. 「에그머니!」 (초리를 지르며 石魂의 뒤로 避한다)

石魂 (팔을 벌려 앞을 막으면서) 어! 이런 무슨 바보같은 것이야! 점잖은 紳士

의 매개체를 보고.....

이파에 鳳珠— 兩傘을 접어들고 下手로부의 물이온다.

瑠玉 (氣막히는듯이) 무엇이냐? 紳士!

(107)

왜요 면재야 精神을 못차리고……(蔑視하는 態度로 아래 위를 둘러보면서) 이
런 洋服입은 골하고 참말 보구도 싫다.

琦玉 아 그래 못 내겠다든 말씀이요?

秋月 내기는 무엇을 내. 그런돈 별짓 있으면 먹고 지나겠다 애……(돌아서랴한다)

琦玉 (嚴然히) 안내면 못 잡니다.

秋月 못 가진 왜 못가? 퍼 말정일세 또……

石堧 (秋月의 어깨에 依支하여 몸을 흔들거리면서) 아따 그런 돈은 저승에 가서

받을셈 때까지 무얼 그리 쾌하게 놀어. (秋月의 손을 잡아들면서) 여보게 자네

도 추운데 고만 가세.

秋月 (손을 뿌리치면서) 가만히 좀 있어요. (琦玉에게) 그래 푸 받아야 직성이 풀

리겠단 말이니. 어디 열함이 어떻게 생겼기에 그렇게 맨텐스려. 좀 仔細히

볼까! (琦玉의 얼굴을 바짝 들여다본다)

琦玉! 얼굴을 안 보려는듯이 帽子를 꼭 숙여 쓴다.

이때에 棚場으로부터 돌아오는 듯한 男女 두사람이 이야기를 하며 종속 걸음

으로 舞臺를 進하여 지나간다.

(106)

石璽

아름 사 주지. 여보게. 만주장사!

琦玉 — 앞으로 가서 만주제국을 내리 놓는다.

秋月 어디 만주 二十錢이치만 봐 보우.

琦玉 — 만주를 新聞紙에 써서 준다.

秋月 그런데 만주가 어찌 차디 찬게 이 모양이야 두 뜰어 먹던것 같으니... 어디

先 맛을 좀 봐야겠군. (만주 하나를 입에 넣고 씹다가 突然히 상을 쟁그리며) 액

퀴 퀴! (입에 붙었던 만주를 빼앗아서 琦玉의 脣을 때리면) 그때 이것도 만주

라고 팔려다녀! 맨 新劇부성이름...:에끼 이 나쁜놈의 만주장사! 액 퀴 퀴!

내 볼 참 잊혀녀의 꿈자리가 사남더니 별말을 다 보겠네. (손에 들었던 만주봉

지를 눈더위로 밀티 핑개치고 石璽의 팔을 잡아 당기면서) 여보 나리! 추운데

어찌 가십시다.

琦玉 (憤한듯이 소매로 팔에 철을 두으면서) 아 만주같은 어떻게 할 셈인가요?

秋月 (성이 통속히 나서) 무어 어찌? 그까짓놈의 만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같은

프락도락 받고 싶은가네. 내 원참 氣가 막혀. (洋傘대로 상악대철을 하찐서)

(105)

石璉 (비물거리면서 혀 꼬라라진 소리로) 에에! 술 醉한다。人生! 一場은 夢이 되구는

주……타르르르! (空中에 손을 내밀어 보면서) 인제 눈이 차차 멎는 모양이로

군。어! 술 몹시 醉한다。여보게 秋月이! 내 글 한 귀 지을테니 들어보려나?

秋月 어디 지어보시우。(手巾으로 발등에 눈을 던다)

石璉 (暫間 沈吟하다가) 자아 들어보게。(불기잡을 치면서 陶然히 읊조린다)

白雪來라가 白雪不來하니 黑雲이 滿壘々 天不見이로다! (秋月를 돌아보며) 자

! 어떤가?

秋月 그게 무슨 소리요? 난 원하니 못 알아 들겠소。

石璉 허허! 이사람 그걸 몰라。자네 그거 어디 無識해서 쓰겠나。자! 내 새길테

니 들어보게。『白雪來라가』 흰 눈이 오다가 『白雪不來하니』 흰 눈이 오지 않

니, 『黑雲이 滿壘々 天不見이로다』 검은 구름이 가득! 7하야 하할도 보이지 않

는도다。(得意揚々하여) 자! 어디가? 내가 티끌 簪香傳 한卷은 독々히 못보

지만 그래도 글 짓는대는 文章이라네 文章……

이때에 琦玉! 만주를 담아가지고 일어선다。

秋月 (손으로 琦玉을 가리키며) 여보! 文章이고 무엇이고 저 만주나 하나사 주구

體。 나는 살아야 된다。(二)段 목소리만 들어도(朝鮮 民族의 一分子로서 自
 己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罪人이다 害蟲이다。(입술을 악물면
 서) 음! 나도 싸워보자! 악착스러운 이 世上을 相對로하여. 十字標의 軍兵처
 럽 군세계 싸워보자. 조그마한 苦痛을 참지 못하여 죽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다. 못생긴 놈이다.

이때에 癡癡함으로부터 醉客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鑿六

아! 하하하! 千里—他鄉에 남 離別하고! 孤跡 江南에 나 돌아간다. 참아 眞情
 여머가지로 설은 사정이 많아 나 못살리르다.

瑤玉! 愈히 短力을 假中에 집어넣고 다시 만주계좌 있는 곳으로 내
 터와서 요질러져 눈속에 과분한 만주를 찾아내여 新聞紙로 一스이 곱을
 털어가며 階階에 담는다.

이우고 下手로부터 石硯! 褪色한 中折帽에 鍍金의 眼鏡을 쓰고 秋月의
 팔을 끼고 들어온다.

秋月! 과로죽죽한 粉바른 얼굴에 風遮를 쓰고 발목까지 끌리는 單도에
 洋傘을 접어 들었다.

(108)

난 아 참 주시렁!

十字深 軍兵을 앞

主 爲해 일어나

그나 팔 소리 들고

나가서 싸우라.

數없는 怨讐앞에

主 따라 갈지나

힘센者 對敵하게

힘 많이 얻으라.

琦玉

(귀를 기울이고) 이윽히 讚美 소리를 듣다가 突然히 주먹을 부루러며 부르짖는다.)

죽어! 죽어! 아아! 내가 죽어?.....

그러나 나는 죽지 못한다. 나는 靑春이다. 꽃같은 靑春이다. 가슴속에 타고르는

無窮한 希望을 버리고 情은 朝鮮을 떠나서 어떻게 참아 죽을수가 있으랴? 그

(102)

瑠玉 오! 鳳珠氏! 나는 갑니다。永遠히 돌아갑시다。아마 눈물없는 이 세상은 나를

弱者라고 바보라고 嘲笑하겠지요? 唾罵하겠지요? 그러나 오! 직 감심받은 술

피하실 터이지요? 술어주실 터이지요? 오오! 꼬마은 鳳珠氏! 사랑스러운

鳳珠氏! (가만히 寫眞을 가슴에 갖다대며 슬픔을 못 이기는듯이 스스로 눈물

감는다。두줄기 더운 눈물이 감은눈을 넘쳐 흐른다。)

이때에 언덕아래 길로 무어사람의 行人이 지나간다

어! 그곳으로부터 男子의 우렁찬 목소리로 보르는 讚美소리가 불어오는

風勢를 따라 殷殷히 불린다。!

第五 十字梁 軍兵들아

主 爲히 일어나

族을고 앞서나가

군세게 싸우라。

主께서 勝戰하고

榮光 다 일드록

그軍隊 거나리사

(101)

력라。盜賊놈! 盜賊놈! 아아! 이 피로움을 어떻게 참을수가 있으랴? 그렇다 죽자. 이우에 더 잔다는것은 恥辱이다。(품속으로부터 短刀를 끄내 들고 默々히 물여다보다가 한우료를 꿇고 祈禱한다)

오! 하느님이시여! 나는 잡니다。차디찬 이 世上을 떠나서 따뜻한 당신의 나라로 몰아잡니다。萬一 이것이 偉大한 그리스도와 같이 人類를 爲하여 世上을 爲하여 죽는것이라 하면 아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시원하겠습니까?

마는 軟弱한 저이들은 一時的 試驗을 經지 못하여 往々히 값없는 추적으로서 當신의 期待를 저바리게 되오니 아아! 이것이 어찌 罪가 아니오더까? 刑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慈悲하신 神은 容恕할 實할 民사오너。마지막으로 한마디 懇求 하옵는바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處地에 있는 우리 朝鮮民族을 保護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은혜적도 特別히 尊重하고 可憐한 우리 苦學生들에게 빛을 비취워 주시옵소서。福을 내리워 주시옵소서。아! 멘! (일어나서 떨리는 손으로 短刀를 물여 가담히 품에 걸추어는다。진저리를 친다)

風雪은 좀 뜨음 해진다。품속으로부터 短刀의 寫眞을 꺼내 들고 그리운듯 이 물여다보며 중얼거린다。

(100)

하더 볼래여 부르짖는다) 음! 이것은 退學(퇴학) 뭘가 아님가! (또 한장을 들어 보다가) 오! 이것은 絶交文(絶交文)이로구나! 「君과 같은 窃盜犯(窃盜犯)은 친구로 認定(認定)할 수가 없다!」(정지를 벗어 버리고 주먹을 부르짖면서) 음! 이것이 모도다! 閔潁溍(閔潁溍)의 奸計(奸計)로구나! (또 한참이나 失神(失神)한 자람같이 멀거니 섰다가 초연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언덕변을 向(向)하여 시름없이 걸어가면서 憧憬(憧憬)이다. 이제는 믿음못도 바랄것도 希望(希望)도 光明(光明)도 다 없어졌다! (조금 동안은 띄어서) 十三年(十三年) 동안이나 외담을 무려가며 備備(備備)이 쌓아오던 功名(功名) 塔(塔)도一朝(一朝)에 고만 水泡(水泡)가 되고 마는구나! (벽 밑까지 올라가서 걸음을 멈추고 우뚝하니 아까시아 덩굴을 바라보다가) 學校(學校)에서는 退學(退學)을 맞고 親戚(親戚)에게는 絶交(絶交)을 당하고 旅館(旅館)에서는 쫓겨나고 世上(世上)에서는 排斥(排斥)을 받고……(슬픈듯이 空中(空中)을 쳐다 보면서) 오! 北風(北風) 寒(寒) 추운 밤에 나의 갈 곳은 어디이며, 二千萬(二千萬)의 同胞(同胞)에 날 맞아줄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또 한참이나 시름없이 무엇을 생각하다가 기! 르게 한숨을 쉬면서) 아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죽어야 할지 모르겠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다시 머리를 숙이고 歎想(歎想)한다. 氣色(氣色)이 더욱 慘憺(慘憺)해진다. 문득 決心(決心)한듯이 주먹을 부르짖어 부르짖는다) 음! 죽어라 죽어! 열피없는 人生(人生)이거든 죽어 버

(9 9)

이유고 下宿門이 다시 열리며 甲龍. 히!~ 잠을 손에 들고 오도르며
더 나온다.

甲龍 (同情聲) 禁치 못하는곳이)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집에서 나가시게 되셨다지
요? 참말 섭섭해서 어떻게 하나! (집신을 瑤玉의 앞에 놓으면서) 이것은 제
가 신던것인데 아주운데도 于先 신고 가십시오. 숫눈길에 발이 오직 시러시겠
어요. (포켓에서 두장된 편지를 내어주면서) 이것은 오늘 아침에 온것이요
요. 또 아까 저녁때는 어떤 女學生이 와서 白상을 찾다가 다시 오겠다고 갖
는데요.

瑤玉 (집신도 신고 편지를 받으면서) 아진 참말 너무나 고맙구려. (혼자말같이) 女學生
이 왔었다?.....

甲龍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까. 그러나 어디로 가시는지 여는껏 늦어지겠는데요. (悵然
히 머리를 숙이면서) 그럴 부디 安寧히 가십시오.

瑤玉 (亦是) 초창한 氣色으로) 그렇 부디 잘있소.

甲龍! 門을 열고 들어간다.

瑤玉 (電燈불 밑으로 가서 몇초이 푸은 손으로 편지를 들이 보다가 낯빛이 變

(98)

학우는 수족영계?

瑤玉

(憤怒를 참고) 여보시오! 학생에게는 冊과 校服이 生命이윤시다. 다른것은 당

아 들지라도 뭇뚱어치 못되는 그것이야 못 내주실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도 다

같은 敎人이지요. 이 추운 밤중에 사람을 내뺏으면서 冊까지 빼앗는 人事가 어

디 있습니까 곧세.

春甫

아따! 이전 인제부터 어떻게 에수분 着實히 믿었어! 말끝마다 敎人이니. 只

수는 二十世界야 二十世界! (二十世紀나能) 精神은 참 차리고 다녀. 敎人! 그

말 참 좋소. 그때 瑛靈에 무어라고 했습니까? 「남이 억지로 五臟을 가져가던

十指를 같지요. 절옷을 말라가던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쯤은 당신도 할지

○ 진지? 그 구루 마자 벗어내우. (말려붙어 瑤玉의 구루를 벗겨가지고 門을 걸

고 붙어간다)

瑤玉

(氣막히는듯이) 오! 참말 世上은 차구나! (일찍진 사람같이 머리를 숙이고

우뚱히 서 있다. 間斷없이 울아지는 눈보라는 霧처럼 옷속으로 쫓속으로 탐부

로 붙어간다. 말이 시린듯이 발끝으로 쳐져 떠는다. 그러나 積雪은 이미 발등을

덮는다.)

(97)

간다.

琦玉

(憤氣를 抑制하고) 거짓말을 할 리가 있답니까. 그것은 誤解시지요.

春雨

(손을 댄 * 저으며) 안돼 안돼! 덕같은 날랑은 오늘밤부터 내집에 불여들

수없소. 그리고 당신의 行裝을랑 밥값 三十三圓 五十錢 해가지고 와서 찾아갈

줄 아우. 그것도 한달만 지내면 競寶요 競寶! 알아 있지?

琦玉

여보시요! 아무리 밥값을 못 냈다기로 이 추운 밤중에 사람을 어떻게 내쫓습니

까 글세. 첫째 속이 비고 몸이 떨려 못 견디겠으니 廉恥는 없지마는 여태까

지 지내오던 主客의 誼를 생각하여 이번 한번만 들여 주십시오.(얼은발을 동

동 굴은다)

春雨

(손을 댄 채 저으며) 안되우 안돼. 여태까지 속은것도 慣한디도 수를알 알고...

...요새 學生녀석들은 모두 汗衫만 걸친 알 盜賊녀석들 뿐이더라!

琦玉

(너무나 冷情無禮함에 좀 성이 난듯이) 여보시요! 사람 待接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정 그말짓 같으면 그 冊하고 校服이나 내다 주시오.

春雨

무어 待接! 왜 사발 밑바닥이 어렸소. 흥! 校服을 내다달라! 그거 어찌 그럴

게 약은 수작만 잘하고 다녀. 必要한것만 꼭 빼가지고 가서 남의 밥값은 永永 잘라

(9 6)

瑤玉 (無顏할을 못 이기는것이) 未安한 말들은 무있이라고 여울수가 없습네다 마는
흐늘도 또 든 물려주마던 친구를 찾아갔다가 못 만나고 오는 걸일테요.

睿甫 (더욱 冷淡해지더) 여보 당신도 賸恥가 있지. 그때 난의 밥값을 아주 무속살
이 잘라먹을 作定이요? 밤낮 此日—彼日하니………… (담뱃대로 삼아때칠을 하면

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진………… (저진 눈키가 더욱 셀쫓해진다.)

琦玉 왜 그렇게 말습을 하십니까. 아무티 죽게 됐기로 설마 밥값이야 안 내겠습니
까. 工巧히 만날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지요.

睿甫 (소리를 벽 지르며) 여보! 大禮 그 만난다는 늬은 어떤늬이요? 벌써 몇남짜

못 만나니. 그때 그늬이 이世上에 잇는 늬이란 말이요. (집어생킬듯이 아때 위물

홀터보면서) 突然히 뜨거운 구의 맛을 모르고 뒤앞에서 고평위 거짓말을 하고 다

녀. 그렇지만 초락 초락이 안 될걸! 이 睿甫의 밥값을 좀 데어더어 보려고?

홍! 참 어립없다. 나도 紅瘦 마마 다 천늬이야. (입가에 야릇한 瘰癧이 일

어난다)

이때에 上手로부터 電報配達夫, 自轉車를 끌고 들어와서 懷中電燈을 내어 下
宿집 番地를 調查해보고 두사람의 舉動을 殊常한듯이 바라보며 下手로 나

(95)

니다 (慌忽히 下宿門을 열고 들어간다)

琦玉 - 겨우 精神을收拾하여 일어나서 머리로 문지르고 옷에 눈을 떨 때에 下宿門이 다시 열리며 主人金春甫 - 점은 두루막에 남방대를 물고 나온다.

春甫 (깜짝 놀래는듯이) 그런데 저게 웬 일이요! 그때 과히 다치거나 앓으셨소!

琦玉 네. 무어 별로 다친 곳은 없습니다.

春甫 그래도 그만 하시다니 多幸이요. 아 甲龍이란 녀석이 들어와서 어찌나 호활갑을

떠는지 나는 골 큰일이 난줄 알았소이다. 그러. (눈웃음을 치면서) 그래도 어

췌든지 壯士야. 그 추운때 工夫하실라 만주과실나. 그제 어디 당할 노릇이요. 그러

기에 어떤때는 보기에 어찌 막한지 곧 내게 餘裕가 있으면 도와라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이 나지요. (琦玉의 어깨에 손을 얹어 주면서) 이제 원

모양이 됐나! 시장인들 오직하겠소. (情남재 손을 잡아 물면서) 어서 들어잡시

다. (大門앞까지 와서) 그런데 참 돈 벌듯은 됐소? 오늘이 그름날인데.....

琦玉 (머리를 숙이고 말이 없다)

春甫 (今時로 열갈빛이 變하네) 그런데 어찌 활잡이 없소. 그림 오늘날도 또 변용이

못 된가로구려? (눈을 관하기 위하여 침하안으로 물어선다)

(9 4)

澄蒸 가만있게. 오늘 아주 이음을 죽여 버릴나래.

尙熙 다! 죽어가는것을 떠러면 무었하나. 어서 가세. (澄蒸을 끌고 下手로 나간다)

瑤玉의 呻吟소리와 같이 머! 머! 리서 개짓는 소리가 들린다.

私情없이 부는 바람이 눈가두를 몰아가다 그 쓰러진 瑤玉의 몸을 회개되는다.

조금뒤에 下宿小使 甲龍 目出帽로 얼굴을 싸고 손에 手帕를 들고

후로부의 불의온다.

甲龍 (瑤玉을 불러다보면서) 이게 그런데 누구야! (일으켜 앉히다가 깜짝 놀라는소

리로) 왜그 저편! 단상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웬 일이세요? (눈에

물 떨어 온다)

瑤玉 (손으로 머리를 싸내면서) 이구!

甲龍 (흔들면서) 精神 좀 차리세요. 그런데 더관절 뉘 일이십니까? 아마 넘어지셨

지요?

瑤玉 (말없이 點頭한다)

甲龍 (부축해서 일으키려다가) 아너 가만히 좀 제십시오. 안의 暫間 다녀 나오겠습니다

(93)

너 **只**수이 어느 때인 줄 알고 만주공, 팔러다니니? 아홉시가 겨나면엔 만주공과
는 것은 **警察法**에 **違反**이야. 너 공안잡 먹어 보려느냐?

瑠玉 (머리를 흔들다가) 오! 내가 **閻羅**로구나! 야! 이 개같은놈아! 내가 **白**
玉이를 알겠느냐? (**憤氣**에 조성을 부르르 편다)

濛基 (한결음 들어서며) 알면 누구를 어질테냐?

瑠玉 (주먹을 부르러며) 오냐 잘 말났다. 니같은 **無義無道**한 놈은 이자리에서 죽여
버리고 말 것이다. 받아라. (날더듬어 **柔道**의 **手法**으로 **濛基**의 목을 졸른다)

濛基 (얼굴이 빨갛게 **上**되어 가치고 숨이 턱 막히는 소리) 오, 음! 이놈이
사람 죽인다!

尙熙 — 사구라 **短杖**을 들고 가만히 뒤로 돌아가서 힘껏 **瑠玉**의 머리를 때린다.
瑠玉 — 「앗!」 소리를 지르며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비슬 비슬 눈 위
에 쓰러진다.

濛基 (바로소 숨을 도른듯이 「취!」하고 하숨을 쉬고 나서) 예끼 이 발길 **子**는 같으
나라고…… (구부랄로 쓰러진 **瑠玉**을 **私情**없이 저디 찬다)

尙熙 (만주공작을 발길로 차서 엎지르고 질근 질근 밟으면서) 자아 인제 고만 가

(9 2)

주어야지. 예 이놈아! 만주장사야!

琦玉 (對答지 않는다)

尙熙 (앞으로 나오며) 그런데 만주장사가 귀가 먹었느냐. 이제 對答이 없었어 어디

만주 구경 좀 하자.

琦玉 (마지못하며 만주계좌를 내려 놓는다)

尙熙 만주 한개에 열마식이냐?

琦玉 (머리를 숙인채) 五錢입니다.

尙熙 그거 어찌 만주값이 그렇게 비싸! 五錢이치나 어디 매불러 다! 먹겠냐. 一錢

三厘치만 팔아라.

琦玉 一錢三厘치는 못 팔니다.

尙熙 왜 못팔아? 이놈아!

尙熙 (短杖으로 만주계좌를 탁 치며) 一錢三厘는 돈이 아니냐?

琦玉 그런데 당신네들이 만주를 안사고 누구와 是非를 하려 다닙니까?

尙熙 무엇이 어찌? 이놈아! 是非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너같은것 하고 是非

를 하게. 허! 그놈! 점잖은 사람에게 對해서 쓰는 말버릇 하고……오! 참!

(9 1)

세여! 아주力士님네.

尙熙

벌써 三年前에 柔道가 二段이었다네. 突然히 그런놈한테 첫분리 뺏겼다가는 큰

코 다치지.....

濼基

움지 저기 그저 있구나! (발혀 째그려진 中山帽을 집어서 우그러진곳을 펴면서)

그래도 어떤놈이 집어가지 않았으니 多幸일세. (기쁜듯이 히히 웃는다)

만주 외이는 소리가 다시 나며 上手로부터 琦玉, 盤桓한 衣服에 憔悴한

氣色으로 만주 께짖을 지고 들어온다.

尙熙

(短杖을 집으면서) 내 短杖은 여기 있고... (濼基의 帽子를 보고 웃으면서) 그

것을 쓰고 챙피해서 어떻게 간단말인가?

濼基

그래도 맨 머리로 가는것 보다는 낫지. 이사람아!

琦玉

(몸을 부들 부들 떨면서) 아이 추워! 오늘따라 눈은 왜 이리 오시누! (떨

어진 烏打帽을 벗어서 눈을 툄다)

尙熙

(琦玉을 가리키며) 저저 만주장사 아니개? 울지! 白瑜玉君의 下宿이 이 近

處래더니, 그래서 그런지 저저 똑 琦玉이 같은데.....

濼基

무어? 저놈이 琦玉이 같애! 그럴 그냥 들수는 없는걸. 히야까시라도 좀 해

(90)

앞 사이에 猛烈한 格闘가 繰繰된다.

X X X X X X

尙服 (帽子를) 걸어 들고 下手로 다라나면서) 여보게 聞— 다라나세. 다라나. 그놈이

柔道부일세. 柔道부.....(음을) 變變의 리도 變變 나간다)

柔道 (忽히) 일어나서 短杖을 걸으면서) 變變라 이놈! (싸근거린다)

柔道 (한편을) 돌아서며) 오다 이구만!

柔道 아이그— 그 자식을 그저.....(短杖을) 變變 붙어 때리라는체 하다가 「에크」

소리를 지르며 미처 帽子도 걸을새 없이 蒼惶히 下手로 다라난다)

柔道 이놈들 거기 있거라! (소리를 露露같이 지르고 다라나는체의 공문이듯 차며 다

라 나간다)

舞臺는 暫間 高요하다. 머—리리서 만수 의이는 소리가 激激히 울린다.

幕四 마—리주노 호야 호! 이마에끼다. 마—리주노 호야 호!

조금뒤에 變變의 尙服— 되들면서 下手로부터 붙어온다.

幕五 어—그것 참! 오날 變變을 著實히 當했는걸. 그런피 그놈이 變變 變變

(89)

尙熙 國一館이야 (자랑하는듯이) 오늘밤에 거기 忘年會가 있어 : : : :

奉椿 忘年會? 종! 그러면 거기는 이! 본 妓生 아씨들로 있겠지 그러? 참말 자

네는 幸運兒야!

尙熙 妓生? 오호! 그야 勿論이지 : : : :

奉椿 (突然히 주력으로 尙熙의 불치를 보기주게) 간기네 무슨소리야 (가다음이) 이놈

아! 그레 친구 病의 補助할 돈은 없어도, 料理집 가서 妓生 끼고 놀 돈은 있느냐?

에끼 (禽獸만도 못한놈 같으니라고 : : : : (糸道의 手法으로 尙熙의 덕살을 잡

아 눈위에 매다치고 발질로 數없이 지른다)

尙熙 (短杖을 높이 들고 뺨벼들면서) 그런데 이놈이 웬 놈이야! 사람을 막 치니 ;

奉椿 (비속 돌아서면서) 너는 또 웬 놈이야! (오의감은 주먹이 번쩍하자 咄嗟

之間에 벌써 尙熙의 몸은 저편 비탈에 帽子는 이쪽 길우에 떨어져진다. 눈우에

구르는 帽子를 짓밟으면서) 주경장음이 전방까지 中山帽가 다! 무잇 말라진

거냐.

尙熙! 이놈을 타 날그리니 일어나서 따라 달려 할데 奉椿, 뒤로부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자, 憤然히 일어나는 尙熙, 危殆하여 奮鬪할 새사

(8 8)

尙熙 補助라니? (눈을 두바로 뜬다)

萃椿 친구를 爲해서 돈을 좀 내란 말이야。(손을 벌티면서) 자! 이서 있거든 좀

내게. 받는자보다 주는자가 闊이 되는것일세.

尙熙 (冷淡하게) 이사람 只今 돈을 보면 인사할 할 地境일세.

萃椿 그러니까 結局 없단말이지? (快活하게) 응! 그럼 그만두게 자네 보고 그런

請을 한 내가 장님이지……

萃椿 (참다못하여 尙熙의 소매를 잡아 당기면서) 이자답! 어서 가세. 時間이 너무 늦네.

尙熙 자! 그러면 失禮하네. 後日에 다시 만나세. (물아선다)

萃椿 (지금이 불을면서) 이전 이렇게도 兪한가.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이야기나 좀

더 하세 그러.

尙熙 (성가신듯이) 아눈이 어떻게 오시누메 길가에서 다야기가 무슨 이야기야……

萃椿 (悠然히) 왜 눈 오는때는 말이 안나오나?

尙熙 (哀願하듯이) 아니야. 나는 누구하고 만나기로 時間約束을 한일이 있어서 그래

어서 이것을 놓세. (팔을 뿌리치려 한다)

萃椿 (如前히 불을고) 어디서 만나기로……

(87)

隱君子村 이라는 이길로 들어섰나?

泰樞

흥! 以吾之心으로 度 他人之心이라드니. 眞然 그말이 옳군! 噫! 이길로 들어

섰느냐! 그 까닭을 좀 알고 싶은가? 응 그럼 이야기 해주지. 자네도 白琦

玉이라면 알겠네 그러? 우리의 中學時代의 친구말일세.

尙熙

응 알지.

泰樞

그런데 그동안에 瑤玉君이 그前에 있던 蔡氏집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아주 괴

네기가 말 아닌 모양이야. 그래서 무슨 만주장사를 한단단가! 그런데 또 요사

히는 들으니까 病이 낫다더니, 벌써 며칠째 學校에도 못 온다네 그러. 그런데

그사람의 下宿이요 近處 어더래. 그래서 오늘은 좀 찾아보려고 나온걸일세.

尙熙

(가장 同情하는듯이) 그것참 안됐군!

泰樞

그런데 元體 孤獨한 사람이라 病이 들었대야 누가 藥한帖 범수히 지어다 줄

사람이 없을것이란 말이지.....(갑자기 생각난듯이) 그런데 참, 여보제! 네

가 자네한테 請할찌 하나 있네. 다른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 나온 本意로 말하

면 어떻게 몇 친구에게 同情心을 좀 얻어서 瑤玉君을 病院이라도 시켜 볼까 하

고 나온 걸인테.....자네도 못했거던 補助를 좀 하게.

야단이야. 아니 殺命 도 춘 그랬기로 그게 그렇게 큰 罪 될것이야 무엇 일
단말인가? 원 그러것을 다 罪惡으로 치다가는 罪에 파묻혀 죽겠네.

牽樞 응! 자네는 그렇지 생각한지도 모르겠네 마는 자네 때문에 一生을 버리게 되는

많은 女性들이 불쌍치 않은가? 그때 그게 罪가 아니라란 말이지? (주먹질을 하던
서) 예끼 요 뺨잡스려운것 같으니라고.....

尙熙 (不快한듯이) 그런데 이사람이 미쳤나! 길에서 이제 무슨 짓이야. 여보게!
나는 그만 가겠네. (물아서며 한다)

牽樞 (尙熙의 손을 잡으면서) 가기는 어디로 가. 왜 나같은 新聞配禮夫 하고 이야기
하기가 쟁피해서 그러나? 나도 이 옷단 풀덕 벗어 버티면 버저! 一한 大學生
이야.

尙熙 아니 나는 오늘 좀 바쁜일이 있어서 그래.

牽樞 대판질이 밤중에 가는미가 어디야?

尙熙 아니 그럼 자네는 또 어디를 가는 셈인가?

牽樞 나야 寄宿舍로 가지.

尙熙 이사람 똑바로 말해. 호호호! 나를 속일려고! 寄宿舍로 간다면서 何必 되

(8 5)

저났네 그럭!

牽椿

응 저 오래 됐지. 그때 자네 伯氏께서도 平安하신가? 집은 여태 거기지? 別
감뒤!.....

尙熙

아닐세. 그동안에 우리는 移居를 했네. 바트 요 위야. 松月洞 ××番地... 한번
놀러 오게.

牽椿

듣있으면 한번 가자. 그때 들으니까 자네는 그동안에 東京가서 工夫를 한다더
니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나와 돌아 다니나?

尙熙

여보게 말 말게! 震災중에 하마트면 죽을뻔 하다가 艱辛히 살아 나왔네.

牽椿

그래 東京가서는 또 남의집 處女를 몇주이나 버려두고?
尙熙 예기 이사람! 그제 무슨 소린가?

牽椿

구슨 소리라니! 그래 내말이 그르단말인가? 안게 아서. 제발 자네도 인제는
知覺이 좀 나보게. 술을 쳐먹고 제집애나 추리러 다니는 것은 浮浪者의 할 짓

尙熙

이지. 우리같이 責任이 重한 學徒를 쓴 사람에게는 不當한 淫亂세 罪惡이란 말이
야. 무서운 罪惡...:..알겠나?
尙熙 (如前히 聲을거리면서) 그런게 이 사람이 날더러 무슨 女子를 버려 주었다고 이

(8 4)

두사람. 다 같이 外套로 무까지 싸고 帽子를 눈깊이 눌러 썼다.

滋基 여보게 尙熙! 술이라는게 果然 보배야. 이렇게 추운 날이라도 몇잔만 먹어 놓으면 얼그그한게 도무지 추운걸을 모른단말이지.

尙熙 여보게! 눈 피붓네. 찬말 말고 어서 가세.

두사람! 翠椿의 걸으로 지나간다.

翠椿 여보게! 尙熙 아닌가?

尙熙 (회 물아서며) 누구야?

翠椿 (앞으로가서 尙熙의 손을 잡아 흔들면서) 누구라니! 그때 나를 몰라!.....

尙熙 야! 이게 翠椿君 아닌가! 그런데 자네가 이밤중에 웬 일인가?

翠椿 웬 일은 무슨 웬일! 나는 이렇게 밤에 일어먹는 습질세.

尙熙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때 언제부터 저것을 始作했나?

翠椿 (눈을 부르뜨며) 저것이라니! 이것도 職業이야. 자네같이 술을 쳐먹으

러 다니는 습이나 나같이 新配運을 하시는 兩班이나 다! 그가운데 뜻이

있다는 말일세.

尙熙 (엿살핌을 追憶하는듯이) 歲月이야 참말 따로이 우리가 해진지가 벌써 三年이

(8 3)

壯健한 體格에 花鬚을 껴입고 防寒帽을 눌러썼다。 우뚝 솟은 코날 위로 炯々히 빛나는 目光과 금세인 性格을 象徴하는 듯 한 무겁게 다문 입술이며。 절을 걸 때마다 左右로 흔들리는 힘있게 부두런 주먹等, 이 모든 點으로 보아 勇敢하고 矚目한 氣像이 相對方으로 하여금 咄然이 一種의 威壓을 느끼게 한다。 舞臺 밖으로 부더 또 다시 노래소리 웃음소리 乞人의 哀願하는 소리가 뒤섞여 들린다。

牽棒

(電燈 달린집 番地를 調査해 보면서) 그런베 어느집이야 도무지 찾을수가 없으

니.....(귀를 기울이고 노래 소리를 듣다가 嘆息하는듯이) 흥! 어떤놈은 興에 겨워 노래 부르고 어떤놈은 배고파 울고 있고 또 나같은 兩班은 新聞配達을 하시고.....에에! 이것도 사람 제것도 사람! 다 같은 사람이 아닌가!
(手巾으로 몸에 눈을 닦는다)

머드는 소리가 나며 閱溼慕! 尙熙와 같이 上手로 부더 들어온다。

尙熙—細眼朱唇에 粉을 칠한듯한 두뺨은 얼듯 溜岳과 바!..렌티노..를 聯想시키나 仔細히 들어 보면 其實 그들 보다는 數倍 떨어진 最低級의 女性다운, 차라리 毒婦型에 가까운 美貌와 麗音의 所有者이다。

(8 2)

가저고.....

丙

그런데 저녀석이 별안간에 失神을 했다. 어문을 몰라 보고.....(웃음) 눈물 탄다)

乙

아따 으뜸인지 七八월에 따 먹는건지 고만춤 노닥어리고 어서들가세. 눈보라 떠울
에 사람 죽겠네.

세사람—종종 걸음을 쳐서 下手로 나간다. 바람소리와 같이 醉容의 노피
소리가 들린다.

癸二

사이다.....사구라니.....나제.....고마 쓰나구.....고마가.....이소제.....바
사구라 지루.....

癸三

조-센도 시나노 사까이니 아노 오-목고.....
나가스 이까다와 아리야 오호께-데도.

요이쇼- 유끼야 고포리니야 꼬리야 도사 사떼비 아스모 마다 안도견니와 쓰

끼가배두.

찌요이 찌요이!

搖鈴소리가 나머지 新聞配達夫 林奉椿—모장 안되는 新聞을 열에 끼고
上手로부터 들어온다.

(8 1)

電車 소리와 乞人の 구슬프게 부르짖는 哀願聲만이 寂寞한 夜空을 通하여 淒涼히 울려온다.

慶一 나리마님! 積善하시요. 제발, 더분 살려 주시요!

幕이 열린즉 舞臺는 暫間 비어 있다.

조금 뒤에 떠드는 소리가 나며 勞勳者 모양으로 차린 行人 세사람이 上手로부터 들어온다.

甲 허! 그것 참! 오늘 日數도 아주 세봉인걸! 낮에는 눈 때문에 버티도 못하고 밤에는 十里나 되는 데서 일꾼 찾아 온 것이 겨우 요 모양이야.

乙 (몸을 응응거리면서) 아이 추워! 제! 기! 그런데 하상 色酒家년 꼴이 건넌 거 술은 안 팔고 나들이가 다! 무엇 말라진거야. 그따위로 하다가는 그들의 술집 도 불일 다 왔다.

丙 아따 전장 맞고 오라를 길꺼! 萬戶長安 하고 많은 술집에 실마 秋月이만한 제집없겠다. 念愆받고 나만 따라오게. 내 물찬 제비갈고 돌아오는 반달같은 쪽 빠진 배편상을 하나 보여 줄터이니.....

甲 아따 흰소리는 또 파치가 자파져 날라 가게. 눈이라고 兩班의 티눈만도 못 한것을

(80)

第一幕.....道

때 前幕으로부터 約 四箇月後。 颯々한 찬바람이 벋속까지 사무치는듯 한
오는밤。

곳 西大門外 어느 초췌한 골목。

배경 正面으로 무너진 古城이 보이고 그 밑 든든을沿江에 밀적히 의엄연연 불

이 반짝어티는 눈 덮인 草家집들이 보인다。 下手 左便은 人家가 좁어진 비탈이
되고。 그 밑 平地는 道路——道路에서 쳐다보이는 城壁 内外에 드문 드문 선

아·까·시·아 가지로부터 바람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눈송이는 宛然히 紛々
한 落花와 같다。

上手 右便으로 좁 붙어가서 近日에 새로 移舍를 했는지 미처 街燈도 달지

아니한 下宿집 大門이 있고 바로 그 옆으로 約 五六間 떨어져 있는 어느집
大門위에 달린 電燈이 피트는 눈 속으로 희미하게 비친다。

으시시한 밤이다。 시름없이 오는 눈은 天地에 자욱하고 四圍는 잠잠하여
자는 듯이 고요한데 다만 때때로 어—르티서 急히 돌아가는 「보—」 하는

(79)

前幕까지의梗概

實業家 蔡容臣의 집에 家庭教師로 있는 秀才 白琦玉은 蔡氏집 養女 鳳珠와 서로
 思慕하는 사이였으나 은근히 琦玉에게 嫉妬를 하고 있는 그집 큰말 鳳珠의 라는듯
 한 嫉妬와 猜忌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妨害를 받는 一方으로 自稱 洪律家요 貴族
 財 中の 한사람인 閔滋基는 또한 鳳珠의 어리고 美貌임을 貪내어 秋々一念에 어쩔
 계는지 이 장피어 으르는 꽃봉오리를 한번 꺾어보고자 하는 野慾이 懇切하나 恒常
 눈속의 가시같은 琦玉을 꺼리고 있던차에 마침 琦玉에게 餘地없는 冷待를 당코 繼
 憤이 復讐로 變코자 하는 鳳珠의 안타까운 心理를 巧妙히 利用하여 두사람의 協力으
 로 드디어 琦玉을 陰害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竊盜라는 無實의 陋名을 쓰고 蔡氏집
 에서 쫓겨나온 白琦玉은 無依無托한 孤身 隻影으로 徹天의 원한을 품고 冷落한 人
 生의 거리를 指向없이 헤매이게 되었던 것이다.

(7 8)

아남。(모개들 풀리모) 흥! 나 원 삼 원한을 다—다—보지... (웃음) (연장)

————— 천하의 꽃이 나팔단 —————

(7 7)

琦玉

(怒氣를 면 語調로) 주제넘은 소리를 마시오. 그때도 琦玉이는 사나이울시다.

金錢으로 써 能히 男兒의 마음을 굽힐수가 있을까요。病이라는것이 두려워서 自

己의 理性을 주일수가 있겠습니까? 자! 나는 갑니다。(沈然히 물아서서 걸

어 나간다)

鳳姫

여보시오 暫間만 참으세요。(따라가서 琦玉의 背인코로 소매를 잡고 때 탈

린다)

琦玉

(침껏 鳳姫를 때다 밟치면서) 야이 더러운 재집아이... (急히 下手로 나간다)

鳳姫

(벌떡나가 자빠졌다가 翹幸히 椅子를 잡고 일어서서 琦玉의 나간 便을 함참이

나 흘려보다가 憤氣에 全身을 바로로 떨면서) 조런 까정이 같으니라고...:어

디 배가 알미니. 이렇게 딱딱한체를 하나 보자. 그래도 아직까지 苦生이라는것

을 못해본 모양이로구나! (잠간 우엿을 생각하다가 불안한 잠잠한 웃으면서) 내

가 미쳤지 미쳤어...:글세 저 돈 한푼 없는 거지녀석한테 우엿을 보고 汗했드

람? 내 獨 우스워서 죽겠네! 게다가 또 제가 돌아내린다...: 財產家의 사위

되기가 싫어서? (입을 비죽거리며) 고만 두어라! 요 재리야! 너 아니라도

시집간다. 어디 가면 설마 너만한 男子없으랴! 世上에 男子가 저 하나뿐인줄

(7 6)

鳳姬 (몰이 줄 꿰어) 글세 가기는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세요. 아버지께서도 一時

憤恨에 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또 只수이라도 辯明할수가 있지 않습니까?

琦玉 아니 나는 積々히 辯明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鳳姬 그럼 꼭 가서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참말 딱도 하십니다. 글세 이렇다는

定處도 없이 빈손받고 덩어 나가시면 어떻게 하실 생이야요? 白砂地에서 그 苦痛

을 어떻게 當하시려고..... 空然히 一時的 感情으로 容氣부리지 마시고 眞이 眞

이 생각해 보세요.

琦玉 (暫間 沈吟하다가) 비. 勿論 나도 苦生될것을 모르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眞

사람은 亦是 가는데 좋겠지요. (몰아서려고 한다)

鳳姬 暫間만 기다리세요. 글세 저렇게 虛弱하신 體質을 가지고... 다군다나 四顧無親

하신 地에.....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세요. 客地에서 病患이라도 나시면 어떻

게 하실려고..... 只今 世上에는 病을 고치려도 돈이 있어야 된답니다. (침있

게) 돈이요. 아버지께서도 琦玉氏의 病을 고치려면 많은 돈이 들겠다고 그러시

던데..... 그러지 말고 그대로 우리집에 가서 守실수는 없겠어요? (暫間

망자리다가) 나에게는 相續될 財産도 없으니까.....

(7 5)

내외 운다)

澄基 이애 石琯아! 애기 초주머니를 좀 만져보아라. 或 鉛筆값이라도 盜賊맞지나

않았나。(下手로 나간다)

石琯— 鳳男은 안고 뒤를 이어 나간다.

鳳男 (舞臺 밖으로부터) 先生님! 가지지 마우……(울음소리가 차차 멀어진다)

琦玉 (주먹을 부르짖면서) 돈! 돈! 돈! 돈이라는것이 없으므로 내가 오늘날 이와같은

侮辱을 받는구나! (下手쪽을 向하여 걸어 나간다 門앞까지 왔을때에 上手로

부터 鳳姬— 急히 뛰어 들어 들어오며 連하여 琦玉을 부른다. 琦玉— 말없이 돌아선다)

鳳姬 (椅子를 가리키며) 이리좀 앉으시지요.

琦玉 아니 關係치 않습니다。(의지로 沈着한 態度를 짓는다)

鳳姬 그런데 어디로 가실때예요?

琦玉 받길 내키는대로 가지요.

鳳姬 (威脅하는 態度로) 이세상은 참나다. 이집 문저방만 넘어서면 기구한 險路가

있다는것을 아십니까?

琦玉 (反抗적으로) 예. 나도 그것쯤은 覺悟했습니다.

(74)

이때에 上手로부터 鳳男—「先生님」을 부르며 슬허히 뛰어 들어온다.

鳳男 (瑤玉의 소매를 잡고 매달리면서) 先生님! 가시지 마우.

瑤玉 (鳳男을 꺼안으면서) 오! 鳳男아 나는 간다. 어! 그곳으로 나는 갈란다. 나쁜

놈 동안이라도 부디 工夫 잘 해라. (목이 메인다) 그리고 누나가 오시거든 내가

못보고 간다고 그래다고 응……

鳳男 先生님 가시지 마우. 先生님 가면 나두 갈걸. 아버지 누나 다 배비리고 나는

先生님 따라서 갈테이야! (비죽 비죽 울리고 한다)

瑤玉 (손수巾으로 鳳男의 눈물을 씻어주면서) 鳳男아! 울지 말아. 내가 곧 다녀오

마 응. (黯然히 눈물을 머금는다)

鳳男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삼오! 그래도 나는 따라갈걸! (몸을 흔들는다)

이때에 下手로부터 濼濼와 石璽—前後하여 들어온다.

濼濼 鳳男아! 들어가자. 아버지가 부르신다. 石璽아! 어서 얘기를 안고 들어가거라.

石璽— 鳳男을 안고 일어서나.

鳳男 (발바동신을 치면서) 삼오! 삼오! 나는 안할의 갈테이야! (石璽의 하이칼라의

소리 들어 들으면서) 다 힘다는게. 이삼의 子璽이 웨이때. 삼오 삼오! (크게 소리를

(7 3)

石憲 — 對答하며 돌아온다.

琦玉 石憲아...

石憲 (투명스럽게) 왜 그러우?

琦玉 저 彔房에 나의 行裝을 꾸려 놓았으니 내가 있을 곳을 定할때 까지 내가 좀

말았다 추렴.

石憲 심소. 나는 그런 도적놈의 物件은 말지 않소. (눈을 부라리며) 일없이 사람을

나오나라 들어가거라 해가지고.....이건 무어 새끼에 맨 돌명인줄 아나. (똥

똥거리며 下手로 나간다)

琦玉 (氣막히는듯이) 응 그럼 고만 두어라. (感傷적으로) 아! 世上이라는것은 이러

한 것이었구나! (초연히 돌아선다)

이때에 다시 江上으로부터 哀調를 띤 단소 一曲이 凄涼히 울려온다.

琦玉 (고개를 떨어뜨리고 몇걸음 걸어나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슬픈듯이 室內을 한

번 回— 돌라보다가 기—르게 한숨을 쉬면서) 아! 三年 동안이나 나를 질러주던

因緣 짚은 이집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로구나! (壁上에 걸린 寫眞을 떼어 들고

가만히 키스하면서) 오! 鳳男아! 잘있거라. 鳳珠氏! 나는 갑니다.

(72)

琦玉 (默々히 듣고 싶다가 분노와 冤恨이 가득한 얼굴에 靑이 決心한 빛이 나타나

며 悲痛에 떨리는 목소리로) 가지요. 當場에 나가지요. (帽子와 外套를 집어들

고 초연히 上手로 나간다)

澄基 (氣高萬丈하야) 자! 命監! 어땠습니까? 그러기에 前日부터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恒常 못살음이라고 그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만한 損害만 보신

것도 多幸입니다. 그런놈을 오래 불어 두었다가는 참말 큰일나지요.

容臣 (默然良久에) 그렇지만 실마 누가 그럴줄이야 알았나. 그러기에 요새 世上에는

도무지 믿음놈이 없어... (不快한듯이 椅子를 밀고 일어서면서) 어! 참! 怪常

한 일이라고... (걸어 나간다)

澄基 (따라 가면서) 그럼 고만 두시렵니까? 警察署에 電話도 아니 하사고?.....

容臣 고만 두려네. (입맛을 다시면서) 내가 돈 千圓이나 損害본셈 잡지.

두사람! 한가지 下手로 나간다.

石匣! 에! 불위에 書類等屬을 大綱 整頓해 놓고 室內의 掃除를 어둡어둡

친 뒤에 비를 들고 亦是 下手로 나간다.

註音 뒤에 琦玉! 류딩크를 들고 上手로부터 물어와서 石匣을 부른다.

(71)

氏께서 感謝를 드립니다. 남의 物件을 이렇게 誠實히 맡았다 주시니…… (눈을
평안하며 가만히) 속 상하지? (下手로 나간다)

繼基 (意氣揚々하여) 원 그러면 그렇지! 저기 등계 어디 잠비가 있나. (容臣에게)

인제는 小切手도 찾을 端緒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아! 어떻게 할까요? 警察
병에 電話를 걸까요?

容臣 (慌忙히 손을 저으며) 아니 여보게! 暫間만 참게!

繼基 참만요! 조런 애 盜賊녀석은 着實히 비뚤을 가르쳐야 됩니다. (蔑視하는 態

度로 瑋玉을 노피오며) 자! 瑋玉君도 일일이름 되었으니 良心이 있거든 말의
自白을 하란 말이야.

瑋玉 (忿怒의 떨리는 목소리로) 무엇이랴? 自由! 나같은 畜의게 自由를 할 내가

아니다.

繼基 무엇이 오빠? 이봐야! (瑋玉의 안으로 말 퍼다)

容臣 (말을 빌려 막으면서) 허! 이게 원 무슨 짓이야. 짐작은 사람들이……. 가만있

게. 내가 다 잘 措置를 할 터이니……. (瑋玉을 向하여 嚴肅한 語調로) 여보게
瑋玉이! 자네가 오늘 밤 안으로 當擄 버집에서 떠나 주기를 바래.

(70)

標基 그립 나 이놈 이리쯤 오니라.

石魂 (벌벌 벌벌 앞으로 나오면서) 나리! 저는 아무 罪도 없습니다.

標基 가만 있어 이놈아! (石魂의 몸을 大綱 뒤져보고 나서 다시 瑤玉을 向하여) 무

어 그럴 理는 萬無하겠지만 그때도 일이 이쯤된 以上에는 彼此에 이질경한

노릇이니까, 大段의 未安하지만 不可不 瑤玉君의 身體도 좀 搜索을 해 보아야

되겠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지 마시오. 勿論 瑤玉君을 搜索해본 뒤에는 나도

搜索을 當한 義務가 있으니까.....

瑤玉 (한참이나 標基를 노리다가 한숨을 쉬면서) 자야 마음대로 해 보시오. (앞으

로 나온다)

標基 (瑤玉의 몸을 一스이 뒤져 보고 나서 外套 포켓트를 뒤져가다가 손

수巾을 꺼내서 손끝의 불태워 그 속에서 반지가 떨어진다)

瑤玉—불태워 일몰이 해주해진다.

標基 (반지를 집어서 鳳姬를 주면서) 이것 아님니까? 仔細히 보시오.

鳳姬 (흔히 반지를 받아서 물이다 보다가 기쁨을 못 이기는듯이) 예. 이것이에요. 아

유 참말 고맙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주셔서.....(瑤玉에게) 그리고 瑤玉

(6 9)

容臣 반지는 도 현 반지란 말이냐?

鳳姬 어머니가 돌아가실때에 遺物로 주고 가진 寶石반지 말이예요. 아하! 어쩌면

좋은가! (절절매며 돌아다니다가 다시 눈물이 그림거리는 눈으로 容臣을 바라

보며) 아 아버지! 저것을 어떻게하면 좋아요?

容臣 (눈살을 찌푸리면서) 가만 있거라. 그렇게 燥急히 굴지 말고……(石璽를 부른다)

石璽— 對答하며 下手로부터 들어온다.

容臣 이에 石璽아! 아가씨가 반지를 잃어 버렸었다. 그 冊床 밑을 좀 仔細히 찾아

보아라.

石璽— 몸을 굽으려고 階·불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

燕基 허허! 이거 집안에 大賊이 들었습시다 그려.

鳳姬 아 아버지! (다시 발을 뚫음 부른다)

石璽 (階·불 밑에서 기어 나오면서) 암만 찾아보아도 없는걸요.

燕基 (石璽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보며) 이에 石璽아! 오늘 저녁 以後에 이房에

드나든 사람이 누구 누구냐?

石璽 (瑠玉을 가리키며) 저 糞房 남하고 나리하고 저 밖에야 어디 또 누가 있습니까.

(8)

조차 없으니 이것은 부 결압이서 생긴 懸念을시다 그러. (갑자기 생각난듯이)
아 참 命監—그러면 좋은 수가 있습니다. 발의 銀行에 電話를 걸어서 支拂停
止를 시키지요. (慌慌히 나가려한다)

容臣 (부채를 저으면서) 아나 여보게! 아까 내가 물어보았네. 그런데 오늘 午前 열
시가 땅에 어느놈이 밟서 찾아 갔다네 그러. (입맛을 다시면서) 그일로 해서
오늘 宴會에도 못가고 여태까지 四方으로 돌아 다니다가 인제야 겨우 나오는
길일세.

이피에 下手로부터 또다시 攫籠히 볼때는 소리가 나더 鳳姬—慌急히 뛰어 불
어와서 膝—불. 싹합도 얻어보고 마뚝바닥도 굽어보며 奔走히 무었을 찾는채 하
고 돌아 다니다가 온갖한 일들로 容臣을 바라보며 승찬 우소리로 부르짖는다.
아 아버지! 저것은 어떻게하면 좋아요?

容臣 (白鬚을 어루만지며) 너는 또 무었을 가지고 그러느냐?

鳳姬 아까 저녁때 이방 膝—불위에다 반지슬 膝에 놓고 있어버리고 그냥 돌아갔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이인삼 어떻게하길 좋아요? 아버지! 제발 좀 찾아주세요.
(몸을 흔들며 발을 동동 구른다)

(67)

물 琦玉의 外套 포켓도 밖으로 모퉁이 나온 손수건 한 개씩 싸서 도로 보

이지 않도록 집어 넣고 두려운듯이 뒤를 돌아보며 急히 下手로 나간다.

琦玉은 아지못하고 글씨를 쓴다.

風便히 불려오는 단소 소리와 같이 머—머리서 汽笛소리가 불린다.

조금뒤에 떠드는 소리가 나며 主人 蔡容臣、閔滋基와 한가지 下手로부터

들어온다

琦玉——椅子에서 일어나서 默然하고 한옆으로 비켜선다.

容臣 (容臣은向하여) 그자 집안에 큰變怪가 났습니다 그러. 大體 그제 웬일입니까?

滋基 (椅子에 앉으면서) 글세 원 하도 意外의 일이다 나도 도무지 까닭을 모르겠네.

容臣 더판질 小切手나 振出人은 누구입니까?

容臣 음 鍾路 大昌商會야……

容臣 그런데 어따가 두셨다가 잃어 버리셨어요?

容臣 바로 나 자는房 文臣속에 든것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네 그러. 이것이야말로

鬼神이 뭇할 노릇이 아닌가!

容臣 러러! 웬 三千圓이나 되는 莫大한 돈을 잃기 버렸는데 外人의 出入한 形跡

(6 6)

서 안에서 전지 잡수십니다.

蔭基 음 그림 되었다. 인제는 그냥반을 불러오라.

石原 蔭基! 對答하니 나가려할 때에 琦玉! 上手로부터 들어온다.

蔭基 (걸어앉은채 傲然히) 여보 琦玉! 어디를 가우?

琦玉 (걸음을 멈추면서) 네. 暫間 불일이 있어서 나갑니다.

蔭基 (때-불. 실험에서 封套와 住所錄을 내어 놓으면서) 아까 主人 命監해서 「오늘밤

열시 안으로 이 招待狀의 皮封을 全部 써 놓으라고」 그러십니다. (命令的으로)

불일은 나중 불지라도 이것을 먼저 쓰게 하우. (下手로 나간다)

琦玉 一 치밀어 오르는 憎惡의 感情을 鎮定키 爲하여 한참이나 입을물물고 가만

히 섰다가 문득 角帽의 띠인코! 도를 벗어서 때-불한 열에 놓고 버두를 다

놓으며 먹을 집는다.

石原 (앞으로 나오면서) 書房님은 글씨나 쓰십시오. 먹은 제가 잔것입니다. (먹을

잔다)

琦玉 一 潛着히 글씨를 쓴다.

石原! 먹을 가는제 하디 슬금 슬금 잔치를 보다가 띠되는 손으로 가만히 반지

(65)

石硯 (눈을 크게 뜨며) 베? 그돈을 저를 다 추세요? (머리를 긁으면서 혼자말 같

이) 땀은 땀인데..... (暫間 생각하다가) 그렇지만 萬一 發覺이 되면 저는 이

배작 말은 초·택·다·에 양·택·이·나 하나 일어 먹게요. (약을 만지면서 몸서리를 친

다) 아이 무서워.....

滋基 그러니까 싫다는 말이지? 그럼 고만 두어라. 어리석은놈.....

石硯 아니 싫다는것은 아니지만..... (머리를 긁으면서) 한 五拾圓만 어떻게 더, 더, (

더, 處分하신다면 제가 무이 다라나드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을 뻗는다)

滋基 그러면 壹百 五拾圓?

石硯 네. 그저 그렇습니다. (또 허리를 긁을거린다)

滋基 그러면 니 일짖 가서 그냥반 좀 불러오너라. (반지를 준다)

石硯 | 반지를 받아 가지고 나가려 한다.

滋基 (다시 손짓을 하여 부르면서) 아너 이애! 가만 있거라. 그것보다도 니 먼저 안에

들어가서 命監마님이 市內에 다녀 나오셨나 좀 보고 오너라. (卷煙을 내어

불을 붙인다)

石硯 (下手로 나갔다가 조금 뒤에 다시 들어오며) 命監마님은 무슨 막 다 떠 나오서

(6 4)

石原 (갑작스럽게) 驚愕한 表情으로(驚愕) 曰。그저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술이 끊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磯基 (수염을 비껴 올리면서) 曰。술이 끊고 싶이 그랬다—그저 어디 되었다。

이해— 너 술먹을 돈 좀 주랴? (椅子에 앉는다)

石原 (허리를 굽슬거리면서) 曰。그저 말씀만 하여도 慚愧하다。

磯基 (지갑에서 百圓짜리 紙幣을 꺼내 보이면서) 너 이것을 줄터이니 紙幣을 잘들

겠니?

石原 (입이 딱 벌어지며) 曰。그저 나리 분부라면 도깨비 불알이라도 잘라 오겠습

니다。

磯基 정녕?

石原 말씀만 합시오。(連하여 허리를 굽슬거리다)

磯基 다른것이 아니라 이해 얘기 할 가르치는 家庭教師가 있지?

石原 네. 알겠습니다。

磯基 (포켓에서 寶石 반지를 꺼내 보이면서) 石原의 귀에 입을 대고 수군거리다)

자아 어떠냐? 그러면 내 이 돈 百圓을 다 줄터이니……

(6 3)

燕燕

이해 이지 어디서 또 슬내가 난다! (코를 뚫긋거리며 뽀새를 맡다가 椅戶에
 덜석 주저 앉으면서) 예기 경칠기: 一死二死는 도모사다. 아무려면 내가 高峯
 되겠느냐. 오늘 밤에는 때물은 잠뱅이라도 전혀서 秋月 이 집 가서 한잔 빨아보
 자. (조금 사이를 띄어서) 그래도 大監에서 건달 退物이라 말슴씨는 있어서 제
 집은 따르거던. 가만 있자: 어디 어떻게 생겼나 좀 다시 볼까? (體鏡앞으로 가서
 한참이나 들여다 보다가 滿足한듯이 빙그레 웃으며) 애행! 그거 누군지는 모
 로지만 참 자알 생겼다: (땀송땀송한 鬚髯을 어루만지면서) 이만하면 무어 나
 라도 반하겠는걸! 가만있자 (몸짓으로 흥미를 낸다) 이따 거기를 쓰우 틀어선
 다! 그러면 고 췌꼬리 같은 秋月 이가 방실 방실 웃으면서 「에그 반가워라 石主
 事 나리 인제 오십니까.」 하고 多情스럽게 맞아주었다! (눈을 스프로 감으며)
 그 보들 보들한 손목! 물선 물선 말이는 췌水네! (누런 잇발을 드러내고
 本能的으로 생긋 웃으며) 이이! 사람의 肝臟이 술술 누누나!

이때에 下手의 도어가 열리니 閨澄基——꽃노래를 부르면서 끌어온다.

(빙그레 웃으며) 이해 石主야! 내가 그런데 瞥眼間에 미쳤느냐? 혼자 무슨
 소리를 그렇게 중얼 중얼 하니?

(6 2)

飛馳시키니까……(고개를 돌리며) 흥! 내 신 참 앓가 막혀……

琦玉

(빙그레 웃으며) 그렇게 氣막히실것 까지야 무엇 있어요?

이때에 上手로부터 下僕 石硯! 비를 물고 들어온다.

鳳姬

(椅子를 요란히 밀고 일어선채) 왜 기가 막히느냐요? (憤氣에 가슴이 텅텅

마치는듯이) 참말 당신은 말 못할 惡, 惡, 惡脫을시다. (물아서 떠다가 다시 두팔

스런운 눈으로 노덕보며) 그렇지만 마음은 놓지 말으세요. (입술을 악물면서)

언제든지 내앞에 무릎을 꿇고 哀願할때가 있을걸……(憤然이 下手로 나간다)

琦玉

(일어서서) 鳳姬의 뒷모양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무릎을 꿇고 哀願을 한다!」

흥! 琦玉이가 색엿는게로군. (上手로 나간다)

石硯

(한옆에 서서 한참이나 光景을 바라보다가) 흥! 또 사랑 삼이 난 모양이

로구나! 오나 너희물은 싸워라. 大監께서는 굿이나 보고 떠이나 먹자. (한참이

나 비질을 하다가 빗자루를 마루 바닥에 내 던지며) 이거 어찌 백숙이 점점

나뉘어 해 오누나! 이런 전장! 이렇게 출출한 판에 락백이 한잔을 못얻어

먹고……그래도 먹던 솜씨라 舍監마님 밤상 받으시는 약애를 가면 그코를 꼭

켜로는 구수! 한 휘스키. 심서라니……에에! 사람이 두 회가 勤해 죽겠다라.

(61)

結婚이라는 것은 性愛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鳳姬 (눈을 두바로 뜨며) 그런 性愛가 아니요?.....

琦玉 네, 내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鳳姬氏가 생각하고 세신 그것보다는 範圍가

좀 넓습니다. 卽 性이니 두엇이니 하는 그런것을 超越했다! 그런 말입니다. 假

令 크게 말하자면 世界的 十八億 同胞를 사랑하고 적게 말하자면 朝鮮의 二

千萬 兄弟를 사랑하고.....

鳳姬 (瞥眼間 눈꺼피 살짝해지며) 네. 알겠습니다. 듣기 싫으니 고단 두십시오. (비꼬

는 語調로) 아음 그러시겠지요. 나 같이 못생긴 바보년이 당신같이 잘나고 훌륭한

남반의 사랑을 받아 볼수가 있겠습니까. 흥! 참말 어림없는 생각이지요. 그때

도 鳳珠같이 어여쁘고 알찼다고 싸싸하고 妖嬈스런 저 에미애비 일흔도 모로

는 불쌍년이래야 도구하신 당신의 마음에 맞으시겠지요. 네 참말 感視합니다.

부디 두분이 幸福스러운 家庭을 이루워 주십시오.

琦玉 (極히 沈着한 語調로) 그런데 왜 그렇게 火症을 내십니까? 날르 말하면 무어

特別히 鳳珠氏를 사랑한 일도 없고.....

鳳姬 아음 그러시겠지요. 왜 안그러시겠어요. 元體 마음이 清白하고 道徳이 호으신

(6 0)

心算을 몰라 주십니다. 그러. 네 그렇기도 하시겠지요. 원체 나물 못 마땅해 하시
는 處地니까……. 아 마 당신은 내가 미워서 꼭 죽겠지요?

琦玉 어이구 원 千燕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왜 鳳姬氏를 미워합니까
글세. 나는 鳳姬氏를 사랑합니다. 至極히 사랑해요. (말소리가 좀 부드러워진
다)

鳳姬 (自己의 귀를 疑心하는듯이) 네? 무엇이요. 나쁜 사랑하셔요? 정말요? (바짝
琦玉의 옆으로 다져 않는다)

琦玉 그럼 내가 언제 거짓말 하닐의 있습니까? (술려 避해 않는다)

鳳姬 (저속이 焦燥한듯이) 그럼 참말이란 말씀이지요? 어떻게 사랑하셔요.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예요. (또 다져 않는다)

琦玉 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辯明하기는 어렵지만 何如間 나는
鳳姬氏를 사랑하니까…….

鳳姬 그렇지만 나는 암만해도 믿을수가 없어요. 바로 速히 結婚이나 해 주신다면 모
르되…….

琦玉 結婚이요? 허허!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라는 뜻을 全然 誤解하셨습니다. 그러.

(5 9)

鳳姬 무어 特別히 證據라고 할만한 것은 없지만……어쨌든 저 나는 그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첫째 그의 獨唱 소리를 못 들고는 하루라도 살 것 같지 않아요.

琦玉 그렇게도 목소리가 끊던가요?

鳳姬 네. 聲樂家시니까……

琦玉 그러면 卽 그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이 鳳姬氏의 사랑을 끝겨 된 最初의 原因이 을시다 그러?

鳳姬 (無心히)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요.

琦玉 그러면 只今이라도 그 原因만 없어진다고 보면?……

鳳姬 (疑訝한듯이) 네? 原因이 없어지단요?

琦玉 아니 잡작이 變奏이 된다거나 병어티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勿論 그때는 잊어 버리시겠지요?

鳳姬 (어리둥절하여) 그렇지만 그야……

琦玉 (冷然히 흘겨보며) 「그렇지만」이란 다—무엇입니까. (푸짖는듯이) 率直하게 그렇다 하십시오.

鳳姬 (핀잔 뒤면서) 예그머니! 아니예요. 그것은 絶對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도 남의

(5 8)

鳳姬 그럼 그저 빈정대는것이 아니고 무엇이요. (어린애처럼 몸을 흔들면서) 아이

참 수상해 죽겠네!

琦玉 그다지도 속이 상하셔요?

鳳姬 (쓰는듯이) 그럼 속이 안 상하겠어요?

琦玉 (얼마쯤 참따위지며) 아니 그럼 左右間 鳳姬氏로 말하면 그나와 같다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事實이올시다 그럼?

鳳姬 네. (若干 差態를 짓는다)

琦玉 어떻게 사랑하셔요? 어느 程度까지?.....

鳳姬 모든것을 바쳐서 사랑해요. 生命까지라도.....

琦玉 生命이라는것은 人生 一代에 가장 貴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칠지라도?.....

鳳姬 네. 生命보다 더한 것이라도.....

琦玉 그렇다는 무슨 證據가 있습니까?

鳳姬 또 그렇지 않다는 證據는 어디 있어요?

琦玉 글세 그렇지 않다는 證據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그렇다는 證據를 말씀할 必要가

있지 않아요.

(57)

琦玉 대판절 얼굴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예요?

鳳姬 얼굴은요. 저...琦玉氏와 거진 같아요.

琦玉 네? 나와 같대요... 그럼 그게 누구일까요? (머리론 끄덕거리면서) 응. 그렇

아마 閨. 基君인게로군?... :

鳳姬 (激烈하게) 아니예요. 絶對로 그이는 아니예요. 그까짓 바보들 누가 다 사랑해
요.

琦玉 그럼 그게 누구일까요?

鳳姬 아마 琦玉氏는 나와 濛基氏 사이를 疑心 하시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誤解
요. 濛基氏로 말하면 社會的 地位도 있고, 또 우리집에 對해서도 多少 勞力을
잡고 있으니까 아직 蕪絶히 할수가 없어서 自然히 精답게 이야기도 하고 하
지만..... 實狀 사랑할 생각은 꿈에도 없어요.

琦玉 (지긋이) 왜 좀 사랑해 보시지요.

鳳姬 (원망하는듯이 눈을 흘기면서) 왜 그렇게 빈정대기만 하십니까. 남은 힘 들

여 말하는데.....

琦玉 어디 누가 빈정대니까? 空然히 그렇게 책당만 마십시오.

(5 6)

琦玉 (고개를 지우리면서) 글세요.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그러면 瞽眼間에 그것은 어

째서 들으십니까?

鳳姬 (愛嬌가 흐르는듯 한 微笑를 띄우면서) 아니 글세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世上에서 살아가자면 浬外에 사랑도 있어야 한다는 意味가 아니겠어요?

琦玉 아마 그런 意味겠지요. (間)

鳳姬 琦玉氏! (목소리가 若干 떨린다)

琦玉 네!

鳳姬 (魅惑的으로 슬쩍 琦玉을 바라보며) 저.....저는요 이世上에서 자나 깨나 마

음속에 잊을수 없는이가 꼭 한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이는 좀 冷情해요. 그

리고 또.....(잠간 망사리다가) 그러니 그이가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琦玉 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鳳姬 (哀願하는듯이) 글세 좀 생각을 해 보세요.

琦玉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天然스럽게) 그거 압만 생각해 보아도 모르겠는걸요.

鳳姬 왜 그렇게 시침만 자꾸 베십니까. 좀 생각을 해 보시때니까.....(슬쩍 눈은

흔들린다)

(5 5)

琦玉 (코를 경그리면서) 귀 귀 한 게 동 향나……

鳳姬 (苦笑하면서) 원 범셔도 잘도 맞으십니다. 바로 메쓰. 以上이시군요. (急히 話

題를 물리키려는 듯이) 그런데요. 저……: 나 오시라고 한것은 좀 여꾸어 볼 말

씀이 있어서……

琦玉 네. 무슨 말씀입니까? (椅子에 앉는다)

鳳姬 아 마 臂眼間에 이런 말씀을 하면 或 異常하게 너기시기도 십겠지만 나는 언

제든지 從容한 機會가 있으면 한번 여꾸어 불리고 늘 버르고 있었답니다. 다

른것이 아니라요. 저…… (暫間 躊躇하다가) 우리 人類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자면

가장 必要的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琦玉 (尋常하게) 글세요. 그것이 무엇이 될는지? 아마 그래도 衣食住가 第一 必

하겠지요.

鳳姬 또 그다음에 要求될 것은요?

琦玉 글세 그다음에는 무엇이 될까? 아마 그것은 사상에 따라서 衣食 다르겠지요.

鳳姬 왜 언젠가 한번 「人類生活上 二大要素는 愛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

지 않아요?

(5 4)

있거든 (손으로 제 가슴을 가리키며) 이 「나」하고 하십시오. 그럼. 이 石硯이 이
 때에도 深山 金鐵에서 辟障으로 있을 때에는 風流 豪傑이라는 別名까지 붙었습니다.
 鳳姬 (성난 語調로) 그런데 저녀석이 미쳤나! 웬개 수작이야. (발을 구르며) 어서
 들어가.

石硯 (如前히 싱글거리며) 아! 주어진 누가 다! 모른을 알고... ..

鳳姬 무엇이 어째! 이녀석! 이녀석! (椅子에서 뛰어 일어나서 때리려는 채 한다)

石硯 (비를 물고 上手로 다라나면서) 배! 들어 갑시다. (나간다)

鳳姬 (웃으면서) 열저녁에 꿈자리가 사납더니 원 별것이 다 느물대네. (忿히)

앞으로 가서 손으로 머리도 만지고 香水도 내어 뿌리며 粉粧 행취취프르
 글에 분때도 밀다가 발자취 소리에 놀랄듯이 급히 懷巾에 집어넣고 天然한
 로 椅子에 와 앉는다)

琦玉, 上手로부터 들어온다.

琦玉 (椅子에 앉으려다가 짐짓 손으로 코를 싸대니) 휘! 이거 어디서 香水의가

이렇게 나나..... ..

鳳姬 (치어다보며) 무슨 내가 아요!

(5 3)

石 愿 네?

鳳 姬 그런데 掃除를 왜 저녁에 하니?

石 愿 來日은 첫째벽에 門안으로 심부름을 간답니다. 그래서 掃除를 아주 미리 해 놓으랴고 그러지요.

鳳 姬 그렇지만 먼지가 나서 어디 걸디겠니. 그럼 뭘 舍廊 먼저 하렴.

石 愿 뭘 舍廊이요? 어디 그럼 그래볼까요. (나가려하다)

鳳 姬 그리고 들어가는 길에 書房님쯤 나오시라고.....

石 愿 (돌아서며) 네? 書房님이 누구입니까?

鳳 姬 왜 이력 얘기 글 가르치는 先生님 말아야...

石 愿 네. 저! 學生 書房님 말씀이지요?

鳳 姬 그래.

石 愿 (天然스럽게) 그런데 그 書房님 보고 인저기 주구시라고요?

鳳 姬 (눈을 흘기며) 그런데 내가 누구를 까짜를 올리는 셈이냐? 나오시래니까 주

구시래진 왜.....

石 愿 아 밤중에 그냥반은 나오시래 무엇하셔요? (성난 웃으면서) 무슨 할 말씀이

(5 2)

鳳姬 (어리광처럼 몸을 흔들면서) 싫어요. 나는 다른것은 안가질래요. 꼭 그걸을 사 주셔야지 무어.....

蕪基 (마지 못하여) 오! 그러면 사 드리지.

鳳姬 (기쁨을 못 이기는듯이 蕪基에게 매달리면서) 정말요? 언제쯤?

一週日內로.....

鳳姬 그러면 꼭 믿을래요. 거짓말하면 안돼요.

蕪基 念慮 말어요. (下手로 나간다)

鳳姬 (蕪基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입을 비죽하며) 피! 네까지것을: 애 좀

쉬어라... 응. (선채로 머리를 숙이고 暫間 沈思하다가 문득 窓앞으로 가서 門

을 열고 내다본다)

바깥은 澈明이다. 洋洋히 흐르는 蒼波위로 넘어가라는 初生달이 그의 殘容을戀

*하게 비취우고. 處境에 빌피 소리는 啣々한미 綾羅를 뿜듯한 十里長江에 數欸

은 漁火들이 騰風과 같이 감박어리는 그후으로 무정주계 때여 부르는 배따라기

한曲調가 술술 부는 清風을 타고 고요히 흘러온다.

이윽고 上手로부터 下陔 石筵——비물 불고 들어와서 掃除을 始作한다.

鳳姬 (몸을 돌려 椅子에 와 앉으면서) 石筵아!

(5 1)

자 다시 더 말할 必要도 없겠지만 萬一 그렇게 되고 보면... 우리의 誓日 約束은 꼭 實行하셔야 됩니다.

鳳姬 (생각 웃고 愛嬌한 부리면서) 글세 그런 말씀은 군 말씀이에요.

濬基 아니 그러면 우리의 言約과 같이 鳳姬氏의 마음은 永遠히 變치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鳳姬 자유 참 퍼도 多心도 하십니다. 글세 저! 하늘에 있는 해빛이 變한다면 그

것을 누가 믿겠어요?

濬基 (滿足한듯이)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저! 하늘에 있는 해빛과 같이 永遠히 빛

나리라는 뜻이올시다. 그럼 허허허! 이世界上에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나만 한

善運兒도 實狀 드물렀다! 자! 그러면 나는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일어선다)

鳳姬 (따라 일어서면서) 그런데 절대 約束하신것은 어떻게 하실때예요?

濬基 (눈이 둥그러지며) 約束하기라니 무엇 믿어내지?

鳳姬 (아양을 부리면서) 왜 그것 말이예요. 寶石반지...:

濬基 슬쩍 저 미쓰즈에서 보든것 말씀이지요? (若干 눈살을 찌푸리면서) 아 그

비싼것을 사서 무엇하시랴우. 새 다른것을 하나 사 드리리다.

(50)

鳳姬

鳳姬

그것은 그렇다 하지만…… 或日後에 濶濶이라도 볼것같으련…… (눈물을 자르려다)
 (답답한듯이) 허허! 저런 말씀 했나! 저게다! 살피없는 걱정이란 말이야. 원
 千不當 萬不當도 분수가 있지 濶濶이 왜 됩니까 글세. 우리 두사람 以外에는
 하거나 알고 땅이나 알뿐인데: (입맛을 다시면서) 그때 相當한 教育까지 받
 은 兩班이 그렇지도 濶하시단 말씀이요. 그러기에 女子하고는 도무지 무슨 일
 을 해볼수가 없단말이야: 자! 어떻게 하실터이요? 너무 망상거리지만 말고
 한번 新女性날게 大勇斷을 해 보시구려.

鳳姬

鳳姬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그럼 어디 그때 볼까요.
 「그때 볼까요」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한다면지 못 한다면지
 좀 徹底하게 對答을 해 보시구려.

鳳姬

鳳姬

(明瞭하게) 네 그럼 決心하고 해 보겠습니다.
 (喜色이 나타나며) 음지 음지 참 잘 하십니다. 新女性이란 그때야 쓰지……그때
 도 鳳姬氏가 如干 행배기 女子가 아니란말이야! 膽이 그만이나 왜야 그때도
 무슨 일을 좀 해보지. 자아 그러면 나는 믿고 물어가도 좋겠습니까? (일어서
 떠다가 다시 앉으면서) 다지는듯이) 그러나 이번 問題는 아주 決定이 되었으니

(49)

第一幕 第二場……………誣陷

前場으로부터 約二週日 後 첫가을 초저녁.

前場과 同一함.

幕이 열린즉 濛濛과 鳳姬 두사람이 對坐하여 密談을 하고있다.

濛濛 (나측한 목소리로) 자! 鳳姬氏! 어떻게 하시렵니까? 勿論 지금 말씀한 計略

대로만 할것 같은데 일의 成就是 아주 容易할것이니까……

鳳姬 그렇지만 萬一 그렇게 되고 보면…… 琦王氏는 아주 陰酷한 地境에 빠질것이 아

니겠지요? 그것이 人道上에……

濛濛 (말을 가로 막으며)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鳳姬氏! 당신은 참말 이世上에 人

道라는것이 있는줄 아십니까? 그것은 倫理學者의 참고명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으면 社會는 어디 있고 人道는 어디 있겠어요. 그런故로 「나」라는것은 絶對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나」以外的 것은 보지 마십시오. 생각도 마시고……자!

어떻게 하실때요?

(4 8)

鳳珠 (꾸짖는듯이 울적하며) 이길 무슨 無禮한 짓이요. 남의 집 女子에게 對面서...

이내의 上手로부되 瑤玉 - 첫사랑의 鉛筆을 끼운채 울이 뛰어들어온다.

瑤玉 (怒氣의 떨리는 목소리로) 아 - 이 색이진 丹族의 아들답아... (말피고 나간다)

는 激怒의 가슴을 힘껏 주먹으로 밀친다)

鳳珠 - 이몸을 타서 飛鳥와같이 下手로 타쳐 나간다.

두사람 - 無言中의 서로 노뵈보고 있다.

——幕이 나간다——

(47)

鳳珠

(눈을 두바로 뜨며) 네? 사랑을 해 주시요? 참말 未安합니다.

發基

(입이 벌어지며) 그야 너무 謙辭의 말씀이지요. 무어 未安할것 까지야 있습니
까. 元體 얕전하시니까.....

鳳珠

아니 다른것이 未安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당신께서는 그렇게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는비나는 당신을 사랑해 드릴수가 없으니까 未安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람과
다 各各 自由가 있으니까.....(일어 선다)

發基

(벌떡하여) 무엇이요! 허허! 요새 女子들이란 所謂 知識이라는게 좀 들어가
와서 變뜻하면 무슨 自由이니 自立이니 해가지고.....저게다 병풍이란 말이야.

자! 그렇게 특특 쓰지만 말고 이리와서 내 말을 좀 仔細히 들어봐요. (가

까지 가서 손을 잡으려 한다)

鳳珠

(일글을 켜그리고 뒷걸음질을 쳐서 避하면서) 그런데 이이가 미쳤나베. 나는
당신같은 데러운 兩班의 말은 듣기도 싫어요. 나는 들어 갑니다. (빨리 뛰어

앞으로 나온다)

發基

(慌忙히 두팔을 버리고 門앞을 막으면서) 아너 鳳珠氏! 자, 자, 잠깐만 참으
시오.

(4 6)

即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水陸이라는 뜻이지요.

鳳珠

호호호…… (더저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고 手巾으로 입을 가리며) 그때 그것

도 英語라고 배우셨어요. 어느 字典에 그렇게 냈어요?

鳳珠

(얼굴이 붉어지며) 네 鳳珠氏는 아직 모르실 것입니다. 그때 그 字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십니까? 字典이라는 것은 中學時代에는 얼마쯤 必經도 하겠지

만 大學校부터는 所用이 없습시다. 前日에 내가 大學에 다닐 때로 말하면 宇

典을 더더 訂正도 해 보았고…… (입맛을 다시면서 손찰말같이) 「조·센·노·은·

나·도·유·호·모·노·와·도·1·모·시·요·가·나·이·몬·다·네!」(暫間 사이를 띄어서) 그러나

鳳珠氏! 空然히 그까지 할 때 없는 말도 時間만 虛費할 것이 아니라 참 나는

鳳珠氏에게 한마디 물어 볼 말이 있습니다. 예·1·도· 鳳珠氏의 아버님께서는 이

미 許諾까지 하신 일이지만…… 그때도 只今 世上에는 當衆의 意見도 얼마쯤 必

要하단 말이야. (鳳珠의 결으로 다져 앉으며) 다론 것이 아니라……예·1·도…… (말하

기 지복한 듯이 連해 이마에 땀을 씻으며) 나는 鳳珠氏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러니까 鳳珠氏께서도 어떻게 나를 좀 음……음…… (모를 정거거리며 陰險한 웃음

을 띄웁니다)

(4 5)

發基 (發音을 비벼 올리며) 네 나는 東京가서 明治大學 法科를 卒業했습니다. 남들

이 부르자면 明法學士의 아무개라고 그러지요.

鳳珠 法科에도 英語 課程이 있나요? (웃음을 머금은다)

發基 그야 勿論이지요. 大學 처 놓고 語學 卽질 必가 있나요.

鳳珠 그럼 未安하지만 單字하나 여쭙어 볼까요. 저어……: 「드람마」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發基 음… 드람마! 드람마! 英語 發音이란 恒常 力이 쓰는 法이것다요. 어떻게

하는고 하니 드르르르라마 : 아시겠지요? 그러기에 英語 初步에 있어서는

그까진 意味보다도 첫째 發音을 注意해야 된넌다.

鳳珠 그렇지만 意味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發基 그야 勿論 意味도 알아 두기는 해야 되겠지요. (한참이나 머뭇거리다가 머리

를 끄덕기더니) 오! 드람마 :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 그게 다른 뜻이 아니

라 江山이라는 뜻이 을시다.

鳳珠 네? 江山이란요?

發基 (가장 답답한 듯이) 허허! 저런 말씀 봤나! (손가락질을 하면서) 산과 물!

(44)

羨慕 (미우는 語調) 흥! 有望한 青年이요! 아 저 저지가 다 될 놈이 有望한 青

年이예요. 그거 요선 웬 더러운 有望한 青年이 그렇게 많습니까?

鳳珠 (多少 激하여) 저지는 왜 저지예요. 그이는 우리 社會를 爲하여 奮闘하려는

學生인데요. 왜 苦學生은 사람이 아납니까? 말할 權利도 없나요?

羨慕 아니 말할 權利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 몸 하나를 못 꾸려가서 남의 집

舍廊 구석으로 빌어먹어 다니는 子息이 전방지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글세:

琦玉이가 지금 무슨 經濟科를 다닌다지요? 흥! 전방진 자식! 요새 아이들

이란 어떤 속에 짐잡은 學問이라는게 좀 들어가 놓으면 아주 제법 큰 思想

家나 된듯이 무슨 剩餘 價値이니 階級 鬪爭이니 하고 떠들고 다니지만 實狀

그것을 누가 認定해 주나요. 倏然히 저 혼자 검속될 뿐이지. 그때도 나 같이

(손으로 自己 가슴을 가리키며) 法律家가 되고야 입에 밥이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요새 朝鮮있는 所謂 專門學校라는 비서야 實狀

무어 때우는게 있다고요. 저어도 海外 留學生이려야 그때도 무엇을 좀 아는

法이넌나. 그런데 왜 그렇게 서 계십니까? 좀 앉으시구려.

鳳珠 (앉으며) 그럼 外國 가서서 工夫를 하셨던가요?

(4 8)

濼基 무어 權利가 없어? 전방전 子息 같으니라고. 이 데 主人 命監해서 이 집에

對한 財産 處理權을 나에게 委任하셨다 그런 말이다. 너 같은 苦學生 놈도

내가 내뺏을 權利를 가지고 있어.....

琦玉 (憤怒에 떨리는 소리) 무엇이냐? 내가 이집의 財産 處理權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나는 이집에 附屬된 財産이 아닌 以上, 너 같은 者에게 支配를

받을 必要가 없다 그런 말이다.

濼基 (短杖으로 마룻 바닥을 두들기면서) 무엇이냐? 너는 法도 모르느냐 이 놈아

! 一個 苦學生 놈으로서 堂堂한 貴族을 보고 무엇이 어찌? 어 참 때지 못

한 子息이로군!

琦玉 (椅子를 밀치고 물러서면서) 흥! 참 훌륭한 貴族의 威勢로군! 애끼 이 가

니고운 子息 같으니라고... (忿히 上手로 나간다)

濼基 (琦玉의 뒷 모양을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어 참 발길 자식을 다 보겠군! (椅子

에 앉으며 帽子를 벗어 놓고 부채질을 한다)

鳳珠 (얼굴빛이 若干 變하되) 짐작은 兩班이 남의 집 有望한 青年을 보고 그진

무슨 可러운 事이냐.

(4 2)

이때에 下手로부터 閔濤基—醉眼이 朦朧하여 中山帽은 비스듬히 쓰고
어온다. 농담 농담 하달 만큼 동동한 몸집에 華麗한 洋服을 입었으며
기쁨이 찌르르 흐르는 純感的으로 생긴 얼굴은 酒氣에 붉으미하다.

琦玉 아니요. 왜 怒할 까닭이 있나요. 그게 다 彼此間 實善인 데요.

鳳珠 (琦玉을 쳐다보고 방그땀 웃으너) 그렇지만 저는 다 안다나요.

琦玉 (疑訝한 듯이) 무엇을 아서요?

濤基 (急に 앞으로 나오며 怒氣를 띤 濁한 音聲으로) 야! 琦玉君!

두 사람 놀라 一時에 일어선다.

濤基 (琦玉을 노려보며 꾸짖는 듯이)君은 어떠한 責任을 가지고 이 집에 와 있

느냐 말이야? (발을 구르며) 家庭教師가 아닌가! 家庭教師라는 것은 어림

이 말이나 가르쳐 주라는 것이지 남의 집 庶女와 밤중에 密會를 하라는 것은

아니야. 空然히 뜨거운 국의 맛을 모르고 남의 집 女子와 결핍하면 이야기

가 속디 속디 무슨 이야기야. 주제넘게스리……

琦玉 (沈著하게) 濤基氏! 당신이 이 집 主人이 아닌 以上에는 우리의 行動을 制裁

할 權利가 없는줄 아십니까?

(4 1)

영 매에 안으로부터 鳳男의 울음 소리가 들리자 뒤미처 石硯어멈! 下
手로부터 들어온다.

鳳珠 (얼굴을 붉히며) 아니 언니!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멈 (鳳珠를 向하여) 큰아강씨! 守監대님의 부르십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鳳姬 (椅子에서 일어나서 鳳珠를 돌려보면서) 무엇이 어찌? 양름스럽게시리... (주

석硯을 하면서) 애끼 요 여우 같은년.

石硯어멈! 鳳姬와 같이 下手로 나간다.

窓밖에서 빌레 소리가 어지러이 들린다.

掛鐘이 열 점을 친다.

琦玉 (時計를 쳐다보면서) 빌레 열 점이 됐네! (기지개를 키면서) 어...:..한참 잘

떠들어됐다. (鳳珠를 보며) 안들어 가시렵니까?

鳳珠 (몰없이) 배 틀어 가겠어요.

琦玉 아까 내가 말을 잘못해서 突然히 鳳珠氏만 들볶이게 되나 봅니다.

鳳珠 아니에요. 무얼요. 그것보다도 아마 아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해서 꼭 怒하셨

지요!

(40)

어제요. 古往 道徳心이 있어서 자립을 비어 출퇴면 善은인에게 내어 주는 것이 올겠지요? 남고 病든 사람의 앓을 자리가 없어서 별일 없고 선을 때에는 모르는 체 하다가도 우리같은 女學生들이 선 것을 보면 가장 親切한 뜻이 선뜻 일어서면서 이리 앓으십시오. (홍내를 낸다) 그래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을까요?

瑋玉 (良心에 좀 쫓기는 듯이 두 손으로 머리를 싸쥐며) 에에! 그러기에 나부터 죽일놈이올시다.

鳳姬 (嫉妬의으로) 아까는 말말마다 反對를 하시더니 鳳珠의 말에는 고만 餘地없이 降服을 하십니까. 그럭.

瑋玉 그야 누구의 말이든자 事理에 合當한제야 感服지 않고 어찌 하겠습니까.

鳳姬 (더욱 눈가가 설추해지며) 아음 그렇시겠지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다른 사람말의 말이야 모두 글러도 압전한 鳳珠의 말이야 올겠지요.

瑋玉 (慌忙히) 아니 그런것이 아니라.....
鳳姬 아니기는 무엇이 아니에요. 수제 사내답게 鳳珠의 어드문 일들에 관해서 服從한다고 그러십시오.

(39)

참기에 따라 갔더니, 코정정이 가다방에 호박 가보자, 보지만 해도 전저리가
걸고 나누나.」 그리고는 또 무엇이요? (웃으면서) 사람이 독 氣가 많이 막혀서 말
이 다 안 나오지: 그때 將來 民族의 指導者가 되겠다고 自任하는 훌륭한 男
學生들의 行勢는 모두 고 뻘센가요?

琦玉

그야— 철 도르는 어린 學生들의 하는 소리고...

鳳姬

아니에요. 세루 校服에 角帽은 쓴 짐장은 專門學生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길에서만 해도 그렇지요. 保護 巡査도 아님에 왜 남의 공무니는 출출 따

라 다닌니까 글세. 그리고 그 陰凶스러운 눈갈딱지를 해 가지고 女子만 보면 지
뭇이 꽃아 와서 들떠다 보거나 탐내 나는 몸통이로 룩 치 보기가 일수고:

(몸짓으로 흉내를 낸다)

琦玉

(빙그레 웃으며) 그야 女子들이 너무 하이칼라를 하고 다니니까 구경을 좀 하
느라고 그랬던 게지요.

鳳姬

(입을 비죽하며) 에이그 좀 다고만주세요. 둘러다 대긴 무엇처럼 잘도 둘러다
피십니다.

鳳珠

(가만히 들고 있다) 그럼 그것은 그렇게 할적라도 그 電車 속에서는 또

는 일이 大體 무엇입니까? 무슨 工夫를 합니까 하고 父母가 예세 벌여 놓은 애들은 밤마다 지나 팔아다가 演劇場 料理집 出入의 專門이요. 또 무슨 社會 事業을 한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어리석은 시골 사람의 돈뿐이나 떼와야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離婚한다는 핑계로 남의 집 處女 버려두기가 일수요. 그리고는 무슨 社會가 自己를 몰라 준다는등, 家庭에 理解가 없다는등, 人生은 結局 刹那라는등 해 가지고 일 한다는 것은 말뿐이요. 其實 술과 게임밖에 모르는 浮浪事業의 先導者들...: 입만 까놓은 高等遊民.....

琦玉 (말을 가로 막으되) 그렇지만 그것은 一部 墮落者의 生活이니까 그것을 가지고全體를 評할수는 없는 일이고....

鳳姬 가만히 좀 제쳐요. 어디 또 그뿐이라고 자고 나면 한다는것이 寫眞들이나 가지고 公團으로 몰아다니며 어여쁜 女子 寫眞박이기에 試驗보기 싫으니까 先生 스드라이크 할 窮理—女子主權의 講演會에 가서 야지할 궁리—그 외에 무어 더 있어요? 없지요. (자자기 생각난 듯이) 또 그 길로 다니면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똑 氣가 막혀서 죽겠지. (눈을 반쯤 감으되) 아이고 저 무엇이 타던가? 읍지 참...: 저—무슨 「박씨 洋傘」도 딱머디 감정 못지마, 뒤로 보기에

(8 7)

自己에 들은 일이나 行勢를 똑똑히 했다고.....
 몇千年 동안을 두고 우리 女子들을 家庭이라는 地獄속에 가둬 놓고 잦은 手
 段을 다 부려서 눈은 장님에, 말하는 人形을 만들어 가며 奴隸같이 부려 먹
 고도 오히려 不足하여 인제 겨우 머리를 좀 들고 일어나려는 우리들의 몸을
 보면 벌써 못 먹겠다고 으르렁 거리는 그 陰凶스러운 능구렁이 惡魔들...사흘동
 안만 女子를 못 속여 먹어도 배가 아프서 못 견디는 虛僞 輕薄의 주머니들...
 이키! 또 鳳姬氏의 男性 反駁論이 나오시는군! 그래 그게 可當키나 한 말
 입니까.

鳳珠 (잠잠히 앉아서 부채를 만지작거리다가 若干 머리를 들며) 그럼 또 언니의
 말이 거짓말입니까?

琦玉 (필적 두면적) 이키! 또 鳳珠氏까지 마자 出馬를 하십니까. 그러. 이젠 참은
 일 냐군! 두 女雄辯家가 合勢 攻讐을 하는대야 當해낼 張飛가 있나.....

鳳姬 글씨 그렇게 빈정거리지만 마시고 證明을 할터이니 들어 보세요.

琦玉 또 證明까지요? 이젠 참 宏壯합니다. 그러! 어디?...

鳳姬 (머리를 기울리며) 가만...무슨 얘기부터 할까? 음지...첫째 그 男子들의 하

第二條 本會는 本部를 朝鮮 서울에 둠.

第三條 本會 會員의 資格은 朝鮮 男女로 中等 程度 以上の 未婚者에 限함.

第四條 本會의 目的은 一般 婦女의 總角間에 互相 勸勉 資養하여 親睦을 企圖하며

福利를 增進하자는 趣旨下에 在來의 惡習을 打破하고 男女間 牆壁을 撤毀하여

智德體 三育을 均等하게 敎育 奨勵 함으로써 從前의 男女보다 좀 더 健全하고

좀 더 堅實한 進取的 事業家를 養成하는 一方으로 性及結婚에 對한 知識과

覺醒을 普及 또는 促進하여 模範的 良夫 賢妻를 養成함에 在하되 만약 處女便에서

此를 頑強히 拒絕하는 同時에는 그들에게 徹底한 理解와 悔改가 있기 까지 此

後 十五年間을 爲限하고 本會 總角 一同은 一切 장가지지 말 事……

鳳姬 (옆에서 가만히 들여다 보다가) 어디 十五年間을 爲限하고 장가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突然히 없는 말을 꾸며다 데십니다. 그러.

琦玉 (狼狽하여) 아니 글썽 그 말은 여기 따졌지만 말이지. 인제 그 勿節도 將次

넣을 작정이옵시다. (得意하여 고개를 끄덕거리며) 자! 어떨습니까? 萬一 이것

이 實行만 될것 같으면 未符不 老處女들은 大-狼狽로 것이 을시다.

鳳姬 (입을 비죽거리며) 에이그 좀 더 고만 두세요. 그 알영한 男子들 부럽잖아요.

(3 5)

琦玉 네? 結婚이요? (暫間 생각하다가 머리를 꼬덕이면서) 아하... 인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卽 그와 같이 虛榮에 드고 淺薄한 女子들에게 장가는 왜들 가느냐... 그 말씀이지요?

鳳姬 읊습니다.

琦玉 (對答에 좀 窮한듯이) 장가는 왜들 가느냐! 마는 그럴듯한 質問인걸... (暫間 생각하다가 머리를 함으면서) 애... 이진 참 담파질 問題로구나!

鳳姬 왜 어름 어름 하고 對答을 못 하십니까? 어서 말씀해 보셔요. (勝任의 嘲笑를 머금은다)

琦玉 가만히 계셔요. 只今 생각합니다. (또 잠깐 생각하다가 忽然이 주먹으로 해... 불을 치며) 읊지 그러기에 우리 朝鮮 青年界에도 總角會라는 것이 組織되는 것이 아납니까. 우리 總角會의 綱領이 무엇이나 하면, 가만이 제심시오. 卽 草稿를 가지고 나올 터이니... (일어서서 들어가려다가) 아니 참 여기도 한별 있겠구면. (포켓에서 會則을 꺼내들고) 자! 이것이 우리 總角會 綱領인데 只今 입을 터이니 仔細히 들으셔요.

第一條 本會는 朝鮮 總角會다 謹啓.

(84)

도 마음이 솔깃하고 애꾸눈이라도 西洋만 갔다 온놈이면 秋波를 건넌다고

그랬던가요. (슬쩍 鳳姬를 바라보며 빈정거리는 語調로) 그럴 요새 女子들은

정말 그렇습니까?

鳳姬 그것이야 누가 압니까.

琦玉 (지꽃이) 왜 모르세요?

鳳姬 (쓰는듯이) 몰라요.

琦玉 아니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무슨 異議는 없으십니까?

鳳姬 그럼 우리 女子들은 모두 아무 理想도 없고 主見도 없고 虛榮에만 눈이 어

두운 卑劣한 것을 憐이란 말씀이지요?

琦玉 무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 詩人들의 評한것을 보니까

「大概 女子란 얼굴은 菩薩 같으나 마음은 夜叉 같고 말로는 泰山도 움직일

뜻 하지만 其實 옷밥 지을줄도 번번히 모르는 어여쁜 詩的 創造物이라고」그

렇더군요.

鳳姬 네 옳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무작에 잘못 없는 詩的 創造物을 파는 結婚도

하지 말아야 옳겠지요?

(8 8)

는 아니겠지요. (鳳珠) 다라 보면서 (말)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鳳珠氏! 아
마 그런 소리는 좀 듣기가 싫지요?

鳳珠

아니요. 關係가 없습니다. (쓸쓸한 微笑를 머금은다)

鳳姬

(낮빛이 붉어지며) 그렇지만 그것은 모두 整理에 닿지 않는 兪설이네요. 남의

批評을 해도 분수가 있지 그런 至濤한 險談이 어디 있어요.

琦玉

(빙그레 웃으며) 아니요. 決코 至濤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오히려 허름

한 批評입니다. 찬말인지는 몰라도 어떤 雜誌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내 고대로 의뢰하니 물어 보지요. 첫째 題目이 무엇이나 하면

「요새 女學生들의 말은 참말 눈허미가 서어서 못 보겠더라.」

「돈 賈하다면서 값 비싼 縲은 왜그리 많이 발랐는지 마치 灰桶에서 튀어

나온 박죽 같고, 손전종거리 자랑인지는 모르지만 정경이까지 올라오는 잠뱅이

는 왜 입었으며, 발등때가 튀겨져야 맛인가 구두 뒤축은 왜 그리 높은지, 팔복時計

맛에 주운 저울재고 소매 길고 다니는 풀이한 사람이 驅逆이 날 지경이요. 그

리고 무슨 이름이든 雜談에서 하늘하리르 사랑은 自由라야 쓰느니 戀愛는 神聖한

것이니 해 가지고 열달만 반수그레 해도 고만 반하고, 바이올린 한 曲綱만 해

理想的 男便장이 하나씩은 다 물어앉았을 것입니다.

에..... 이렇게 말하면 좀 불편한 것 같지만 나는 오늘날 우리 朝鮮 女子들의 學校를 다니게 되는 動機도 大概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까지도 疑問인 줄 압니다. 그 외에 무슨 公共을 爲하느니 民族을 救하느니 하는 것은 입에 발린 거짓말이고.....

鳳姬 정말 꼭 그럴까요?

琦玉 아음 勿論이지요. 흥! 그래도 그와 같이 속은색이 가면서도 입들은 잘아서 빈

뜻하면 무슨 男子는 女子를 할이개로 안다는중, 惡魔라는중, 肉慾만 가는 김승 이라는중 하는 無責任한 批難을 하지만 나는 꼭 그 反對로 생각해요. 왜 그 러나 하면 첫째 男子의 할이개가 되어 주는 女子가 바보요. 또 男子는 自己의 비안 치마 값이나 피아노 살 밑천을 빌어 물이는 奴隸로 가는 女子가 이 社會에 對한 罪人인 줄 압니다. (興奮하여 테이블을 치면서) 왜? 적어도 男子는 朝鮮의 男子이지요. 그러면 微弱하나마 이 社會를 爲하여 일할 일꾼들이 아닙니까? 女子의 化粧品 밑천이나 빌어 물이라는 그러한 無意味한 男子

(3 1)

鳳姬 (憤然히 앞으로 나오면서) 아니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 — 놀래어 — 一時에 일어선다.

鳳珠 (若干 머리를 숙이면서) 인니! 인제 나오세요. (세 사람 — 한 가지 椅子에 앉는다.)

鳳姬 그런때 어찌면 남의 人格을 그다지도 無視하십니까. 그래 우리 女子들은 모두 아무것도 모르는 天痴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야요.

琦玉 누가 어디 天痴라고야 했습니까.

鳳姬 그럼 그것이 天痴라는 것이나 一般이지 무엇이야요. 첫째 우리가 男子들에게 그와 같은 酷評을 받을 理由가 어디 있어요?

琦玉 흥! 理由야 참 많지요. 오늘날 우리 朝鮮 社會에 몇百 몇千의 李秀一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그 理由의 하나가 되겠지요. 글썽 가만이 생각해보지요. 이전 어떻게 洋머리나 틀어 얹고 모양이나 좀 내고 英語나 한 마디 하면 그저 三層 洋樓, 寶石반지가 공짜로 슬슬 기어 들어오는 줄만 안단 말이지요. 이제 글썽 기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아! 추 그래도 결으로서는 가장 그렇게 많은 체 하지만 實狀은! 흥! 누가 다! 모른다고요.只수이라도 엑스光線같은

(3 0)

琦玉

네! 어찌해서 그러냐 하면 大概 사랑이라 하는것은 두 사람의 驗과 證이 가장 神聖하고 單純한 動機로부터 接觸되는 가운데 自然히 心性이 相合하고 意氣가 相通되어 不知 不識間에 서로 同情하고 尊敬하게 되며 이것이 어떠한 時日을 經過함에 따라 차차 戀慕와 愛着心으로 變하러 하는 그대에 다시 冷靜한 理智的 批判을 加해 본 結果 相對方의 人格을 徹底히 理解하고 信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成立되는 純一하고 鄭重한 兩性의 精神的 結合 이래야 하겠거늘 요새 떠돌고 다니는 女子들의 사랑으로 말하면 제법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 이라는 完全한 理解가 있는것도 아니요 또한 將來 어떻게 하겠다는 徹底한 覺悟가 있는것도 아니라 다만 疑問 疑問으로 일어나는 外部的 衝動이 바뀌 말하면 虛榮이나 好奇心으로부터 생긴다는 말입니다 卽 自己의 마음 속으로부터 眞正으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이니까 나도 한번 해 보겠다는 一時的 장난이요 또 어떠한 사람은 사랑한다는것 보다는 그 사람에게 從屬된 財産이나 地位 같은것은 前提로 하여 비로소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根據가 薄弱해 놓으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짐이 없고 熱이 적고 따라서 眞價가 없다는 말입니다.

(29)

鳳珠 그렇지만 女界에 두요?

琦玉 더군다나 女子界요. 朝鮮 女子들은 아직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요.

鳳珠 (不服하는 듯이) 참말 그렇겠습니까?

琦玉 勿論이지요. 요새 女子들의 떠들고 다니는 所謂 流行性戀愛라는 것은戀愛라

고 부르는것 부터도 罪惡인줄 압니다. 眞價가 없는 사랑은戀愛라고 부르는

것 보다는 遊戱라고 부르는것이 마땅하겠지요.

이때에 下手의 도어가 방긋이 열리며 鳳姬— 가웃이 半身만 門 안으로

디밀고 두 사람의 談話를 엿 듣는다.

肉感的으로 된 동등한 몸집에 華麗한 洋裝을 했다. 모—디식으로 멋지게

들어올린 머리에 꽃은 首飾品과 또 허리에 년긋이 율리 혹은 금매 안

경이 전등불에 反射되어 반짝거린다.

두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얘기를 繼續한다.

鳳珠 네? 眞價가 없단요?

琦玉 名目뿐이요 實價가 없다는 말이지요.

鳳珠 그것은 어찌해서요?

(2 8)

모든 것은 어떤 예제로든 로맨스지요. 어떤요? 재미있지요?

鳳珠 그때 그들은 아주 죽어 버렸나요?

琦玉 그럼 거짓말 죽였을까요.

鳳珠 (춤 사이를 띄어서) 사랑의 힘이든 果然 그렇게도偉大한 것일까요? 自己의

무숨을 죽이기 까지?.....

琦玉 勿論이지요. 그러기에 人生의 가장 큰 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참 사랑을

모르는 青春이야 말로 슬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一般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爲하여 自己의 一身을 犧牲하는 것은 참 사랑을 모르고 사는 無意味한 生로

다는 오히려 價値가 있을 것입니다.

鳳珠 정말 그럴까요?

琦玉 아음 그렇지요.

鳳珠 우리 朝鮮에도 그와 같이 熱烈한 사랑에 犧牲된 사람이 있을까요?

琦玉 朝鮮이요? 仔細히는 모르지만 아마 없다고 하는 것이 마땅할걸요?

鳳珠 過去에는 모르겠지만 現代에도 없을까요 무어.....

琦玉 아음 現代에도 없지요.

(27)

물은 卽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는 로미오, 하나는 줄리어스. 하나는 風流才子,
 하나는 絕世佳人, 하나는多情한 總角, 하나는 꽃같은 處女……

鳳珠

(부끄러운 듯이 살짝 얼굴을 붉히며) 무슨 얘기를 그렇게 무당 넘두리 하듯이
 도막 도막 잘라서 하십니까.

琦玉

아 大綱만 하자니까 그렇지요. 그럼 인제는 주르 줄 이어서 하겠습니까. 그런
 데 말이지요. 그와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된 多情한 두 靑春의 純眞한 가슴
 속에는 異常하게도 큐피드의 사랑의 화살이 깊이 깊이 박히게 되었으므로 彼
 此間 怨讐임에도 不拘하고 서로 쓰라린 눈물을 뿌려가며 久遠한 將來를 言約
 하여 春風秋雨 불어매한 사랑 속에 醉해보려 하였으나 彼—無情한 運命의 神
 은 可憐한 그들을 미워하였던지 不意에 일어난 災殃으로 말미암아 로미오는
 만류야라는 地方으로 귀양을 가게 되자 一方으로 줄리어스는 父母의 勸
 하는 強調的 結婚을 避하기 爲하여 麻酔劑를 마시고 거짓 죽었으나 그런줄
 모르는 로미오는 이와 같은 悲報를 듣고 落膽 絶望한 끝에 그밤으로 줄리어
 트의 쿠덤을 찾아가서 一場을 痛哭後에 毒藥을 마시고 自殺을 하자 얼마
 아니하여 다시 계어남 줄리어스는 이 光景을 보고 亦是 칼을 빼여 따라 죽었

(2 6)

鳳珠 재미 있어요?

琦玉 아유 재미 있지요.

鳳珠 그럼 좀 얘기 해 주세요.

琦玉 그렇지만 이것은 드람마가 돼 나서……

鳳珠 왜 드람마 탄요?

琦玉 戲曲이란 말이지요. 脚本………

鳳珠 (입 속으로 드람마 드람마 하고 외어 보다가) 스피이 무어예요?

琦玉 디, 알, 에이, 엠, 에이………

鳳珠 (입 속으로 다시 한번 외어 보고 나서) 인제 그만 얘기 해 주세요.

琦玉 그럼 자 大綱만 할 터이니 들어 보셔요. 中古에 燦爛한 羅馬 文明을 낳은

곳은 南歐羅巴 이탈리아 이탈리아 中에서도 景致 좋기로 有名한 곳은 베로나……

그런데 그 곳에는 代代로 怨讎이던 몬타유와 캐플레트라는 두 貴族이 살았것

다요. 그런데 몬타유에게는 의 아들이 있었고 캐플레트에게는 의 딸이 있었

고………그런데 그들은 偶然한 機會로 서로 만나게 되었지만 말이지요. 어떠한

곳에서 만났느냐 하면 殷勤한 月下에서 무도하는 綠蔭속에서………그런데 그

(25)

구... : 그대 어떤 것은 또 무슨 問題인가요?

鳳珠 : 그까진 얘기는 말하면 무었합니까. 다 제八字가 崎嶇한 灣이지요. 여태까지 生父

母의 얼굴도 모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아이 참!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두 죽고만 싶어요. (슬픈빛을 띄운다)

琦玉 : 아니 그렇지만 참아야지요. 收養 父母라도 계신 鳳珠氏가 그러신다면 幸々無依

한 몸으로 남의 집에 와 얹혀 있는 나는 어찌 되겠습니까?

鳳珠 : 그렇지만 先生님은 男子시지요.

琦玉 : 그야 男子나 女子나 苦痛이라는 그 點은 一般이겠지요.

鳳珠 : 그래도 저는... (눈물을 머금는다)

琦玉 : 아니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 두십시오. 우리는 青春이 아니에요? 모든 幸福

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할 꽃같은 青春에 울

기는 왜 울어요. 자! 이제 그만 고개를 좀 드세요.

鳳珠 (若干) : 머리를 들고! 그런데 지금 보시던 책이 무슨 책이냐요?

琦玉 (손에 들었던 책을 가리키며) : 이것 말입니까? 이것은 저어 魏스피어의 戯曲

이게요. 로미오와 줄리아트라는 戀愛 悲劇이야요.

(24)

琦王 鳳男이 물어가 봐라. 안에서 부르신다.

鳳男 (흔히 下手로 편이 다카면) (음. 띠이!) (나간다)

琦王 꿀. 나이트! (보던 것을 다시 凝望한다) (間)

下手的 노어가 고요히 열리며 鳳珠— 손에 教科書를 들고 들어온다.

質素한 衣裳 호리호리한 키 微笑가 호호는듯한 가동한 얼굴에 若干 죽은개가 있는 것과 通知의 반짝여리는 별같은 두 눈이 더욱 애뵈고 의외로 보인다.

鳳珠 (사뿐 사뿐 걸어 나와서 손가락으로 띠이불을 푹푹 두들기면서) 무엇을 그렇게 재미있게 보셔요?

琦王 (감작 놀타어 벌떡 일어나서 다가가 빙그레 웃으며) 나는 또 누구라고.....

鳳珠도 짐짓 생긋 웃는다.

두 사람 말없이 마주 앉는다.

琦王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애처로운 듯이) 왜 또 울었어요? 같이 다

부었으니!.....

鳳珠 (시름없이 고개를 숙이며) 아!.....

琦王 아아 또 鳳姬氏에게 들볶았지요? (寒心한 듯이) 어찌면 사람의 마음이 그런

(2 3)

琦玉 무엇할 일야? 무얼야?

鳳男 왜 그때—그때 釋王寺에 갔을적에 눈만 으시면 스키이트로 사주마고 안그렸남.

琦玉 (비로소 생각난 듯이) 오—참 그랬던가? 그러면 사주지. (鳳男의 머리를 쓰

다듬어 주면서) 鳳男아 작은 누나는 지금 무엇하시던?

鳳男 누나는 안에서 울고 있다누.....

琦玉 왜?

鳳男 저어 왕과리 동구멍이...

琦玉 무엇이야?

鳳男 (웃음을 못 참는 듯이) 왜 鳳姬 누나 말이야 鳳姬 누나! 저어 그것이 무

소리가 어떻게 큰지 내가 왕과리 동구멍이라고 놀려먹으면 아주 득 추겠대겠

지 호호호. (웃으며) 琦玉의 무릎에 쓰러진다.)

琦玉 그래서 어떻게?

鳳男 그런데 왕과리 동구멍이 아니 참 鳳姬 딱지 코딱지가 鳳珠 누나 더더 「개구멍

반이로 들어온 년이 무슨 주체에 큰 소리나고 「야단을 쳤다누. 그리고 또 고집

어 들고. 그래서.....(이 때에 안으로부터 鳳男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몸을 비비 물면서) 아이 유익기 없여. (공을 고내 가지고 장난한다) —기—

기침 소리가 나며 家庭 教師 白垵玉, 上手로 부터 들어온다.

몸 여윈듯 한 몸집에 옛낫 制服을 입고 왼손에 英文冊을 들었다.

힘없이 내리든 두 눈과 若干 ings된 얼굴이 무슨 말할수 없는 哀愁

물 수살거리는 듯이 보인다.

鳳男— 기침 소리에 놀래어 소리를 높이어 책을 읽는다.

玑玉— 말없이 椅子에 앉아서 책을 펴놓고 소리없이 읽는다. —間—

鳳男 (용석 비숫이 玑玉을 쳐다보며) 先生님... 인제 그만?

玑玉 (時計를 내어보며) 참 오늘이 土曜日이지... 그럴고만두고 일찍 들어가 자거라.

鳳男 (椅子에서 뛰어 일어나서 정중정중 뛰면서) 아이 좋아 아이 좋아 (玑玉의 물

에 안긴다)

玑玉 (鳳男을 안으면서) 그때 그렇게도 좋으나?

鳳男 (玑玉의 품에 얼굴을 비비면서) 先生님! 저 인제 다칠까만 지내면 스키이트도 사주지?

玑玉 응 스키이트라니?

鳳男 왜 벌써 있어 비렸수?

(2 1)

第一幕 第一場……………舌戰

西紀 一九二四年 여름 초 저녁.

漢江 沿岸 蔡容臣家 別莊.

곳 華麗한 半洋式的 書齋.

下手는 內庭으로 上手는 外室로 通한 門이 있다. 正面으로 假鏡 掛鐘 등이 걸

려있고 그 옆 琉璃窓을 通하여 樹木이 茂盛한 後庭 그 밖 樹林 사이로

月光에 싸인 西水庫 一帶의 江流가 隱隱히 보인다.

左便 壁上에는 油畫와 寫眞이 걸려 있고 그 밑에는 長椅子 椅子 옆으

로 冊장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花草盆과 魚缸 등이 별려 있다.

中央에는 椅 方桌 方桌 위에는 女房具 등이 알맞게 配置되어 있다.

室門에는 그스한 花香이 郁積하고 天井에는 電燈이 輝煌이 켜져 있다.

江邊으로 浮城 漁夫의 漁具가 門暇히 懸려다

幕이 懸려다 鳳男 如 繪畫本을 朗讀하고 있다.

鳳男 (글을 읽다가 上手를 바라보며) 그런데 先生님의 어찌 여태 안 나오시나?

(20)

秋	甲	春	尙	林	白	閔	石	石				蔡
				率	琦	潑		丕	鳳	鳳	鳳	容
月	龍	甫	熙	椿	玉	基	丕	母	男	珠	姬	臣
												△人
												▽物
	(色酒家)	(下宿小使)	(浮浪學生)	(苦學生)	(家庭教師)	(賈族)	(下僕)	(下婢)	(長子)	(次女)	(長女)	(實業家)
	二十四歲	十九歲	四十一歲	二十五歲	二十五歲		三十歲					
此外、家主 刑事 郵便配達夫 運碑手 米利下僕 無賴漢 三、四人 行人 五、六名												

(19)

富貴他人合

廉蔭門易軌

貧賤親戚離

田廩相奪移

晉 曹 掾

現代劇
날아가는
孔雀
(全三幕五場)

禁無斷上演